보이차
www.hongdawon.com
보이차전문주식회사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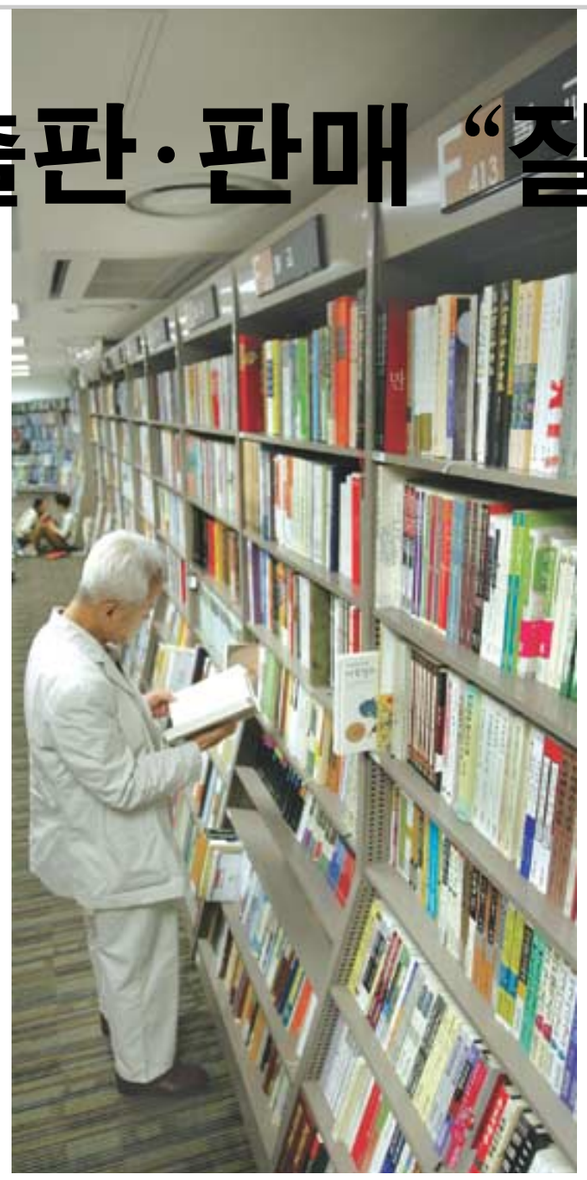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9월 13일(음력 윤 7월 21일) 수요일 (주간) 제 595 호

불교서적 출판·판매 "잘 나갑니다"

2년전보다 3배 증가…올 120종 예상

공급자 · 수요자 동시만족 '효과 톡톡'



2004년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불서가 출간, 보급되고 있어 불교출판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반디앤루니스 종로점에서 한 불자가 불서를 구하기 위해 책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고영배기자

불서읽기운동·양서만들기 노력 결과

다양한 기획·적극적인 마케팅 '과제'

불교 출판계가 살아나고 있다.

본지가 2004년과 올해 불교계 출판사들의 불교서적 출판현황과 올해 판매추이를 분석한 결과 책 발간이 2년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의 경우 교계 출판사의 책 발간은 총 30~40여종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교계 출판사의 책 발간이 늘어나면서 100~120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사 불광출판부 운주사 조계종출판사 여시아문 정우서적등 교계 6~7곳의 주요출판사의 경우 매달 1~3종씩 책을 꾸준히 펴내고 있다.

불서 발간이 많아진 것은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2004년의 경우 교계 출판사는 초판을 1000부 이상을 찍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나마 초판도 창고에 쌓이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나 올해 상황은 2년전과 확연하게 다르다. 불교서적의 판매가 꾸준하다. 이런 영향으로 주요 교계 출판사들이 발간한 서적들은 대부분 3쇄를 넘기고 있다.

특히 조계종출판사의 <가야산 호랑이>(5월刊, 9800원)가 3쇄 9000부, 불광출판부의 <오대산노스님과 인과이야기>(1월刊, 1만원) 3쇄 6000부, 초기경전을 번역한 초기불전연구원의 <디가니까야 1·2·3>(1월刊, 9만원)도 4500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또 성법 스님이 쓴 민족사의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이 2쇄 5000부, 대원 스님이 엮은 여시아문의 <반야심경>(3월刊, 1만5000원) 3쇄 4000부를 돌파하는등 교리해설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불교 학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4년 1년동안 200권도 채 팔리지 않았던 불교 학술서도 판매가 꾸준하다.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이 시공사에서 펴낸 <인도불교사1·2>(1월刊, 6만5000원)는 벌써 3쇄(1500부)나 찍었다.

불교계 출판사들이 이처럼 활성화의 시동을 걸 수 있게된 요인은 무엇일까? 출판 관계자들은 대부분 2004년 당시 최악의 출판 불황을 '반전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시 출판사들은 '양서 만들기'는 포기하고 법보시 책 발간이나 편집대행 등으로 '살아남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속에서도 교계 출판사들은 자구책을 찾았다. 불교출판의 현실을 짚어본 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불교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불서읽기운동과 교구본사 도서관 설치, 도서공급창구 일원화 등 불황 타개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불교출판문화협회도 재발족시켜 2005년 본격적인 불교출판 활성화 운동을 전개했다. 불교출판협회는 지난해 전국 62개 서점에서 불서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연말에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을 갖는등 좋은 책을 만든 출판인 격려에도 공을 들였다.

또 민족사의 경우, 새로운 작가와 원고를 발굴하기 위하여 출판원고를 공모하고, 작가초청 강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등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러한 활동이 이어지자 독자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다.

불자들이 출판 불황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돼왔던 '책 안 읽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종이거울 바로보기 운동' 등의 모임을 자발적으로 발족했다. 또 때맞춰 일반 학자들과 재가자들 사이에 불교교리공부와 수행열풍이 분 것도 불서읽기 활성화에 일조했다.

다른 요인으로는 그동안 '흥행보증수표'로 통하는 유명한 스님들의 책과 번역서가 모두 일반 출판사의 차지였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고. 요즘 명망있는 스님과 재가자들은 불교계 출판사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광출판부 사기순 부장은 "일반 출판사가 겉모양을 좋게 하고 광고에 더 신경쓰는 장점이 있겠지만 불교전문용어의 경우 오자 탈자가 심하고 번역도 교리를 훼손하는등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런이유로 요즘은 일반출판 선호현상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사 부장은 "일반출판사는 책의 판매도 초판에서 반응이 없을 경우 곧바로 매장에서 정리하는등 교계 출판사처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보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교출판계에 묵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불서 출판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법공양 위주의 안일한 출판에서 벗어나야한다. 불교계 출판사들 스스로 독자의 요구와 취향을 제대로 파악한 후 필자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기획을 시도해야 한다.

모처럼 활황으로 돌아선 불교출판계가 문서포교의 새로운 국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시방세계 9면
중국국가장애인예술단

도반의 향기 17면
남원 운교리 진상호 이장

인터넷 불교정보 오류 4면

가을, 숲길 아름다운 절 28면

'컴'으로 불교공부한다

조계종 사이버불교대학 오픈

신도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조계종 사이버불교대학이 오픈했다. <불교입문>을 중심으로 한 신도기본교육을 웹상으로 구축한 사이버불교대학 도메인은 www.edubuddha.net, www.edubuddha.co.kr, www.edubuddha.com 등 총 3개. 한 강좌 당 30분씩 총 24강으로 구성되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돼 종단 신도등록이 가능하다. 단 교육과정 중 종단에서 인정하는 수련회를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불교문화·산업 한자리서 만난다

'2007 한국불교박람회' 내년 3월 열려…참가신청 접수

현대불교 · 제이컨벤션 공동주최

2007한국불교박람회가 대회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007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한국 최대규모의 불교전시회인 '2007한국불교박람회'는 내년 3월 22~2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무국은 불교산업체들의 참가를 독려하며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주)제이컨벤션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찰건축 및 유지보수, 불교용품, 종단 및 단체, 전통차, 첨단포교, 불교장례문화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기타산업을 분야별로 전시한다.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행사기간내 불교문화와 산업에 대한 세미나도 열린다. 지난해 불교적 요소가 확연히 드러나는 문화행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불교문화행사를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전시 1관과 3관은 산업부스로, 2관은 체험부스로 운영한다. 지난해 산업부스 사이에서 진행된 문화행사들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업체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산업부스와 체험부스를 분리시켰다. 체험부스는 서각 종이공예 등 무료체험시설들로 꾸밀 방침이다. 참가업체 소개를 담은 디렉토리북도 제작한다.

올해보다 부스도 늘렸다. 300개였던 부스를 2007박람회에서는 450개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박람회는 불교계 사업체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불교사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까에 치중해 왔던 것. 품질보다 영업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공식적인 마케팅 시장이 구성되지 않아 알음알이 판매가 중점이었다.

장혁 사무국장은 "한국불교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불교사업계가 고질적으로 앓아왔던 품질 개발보다 영업력으로 승부했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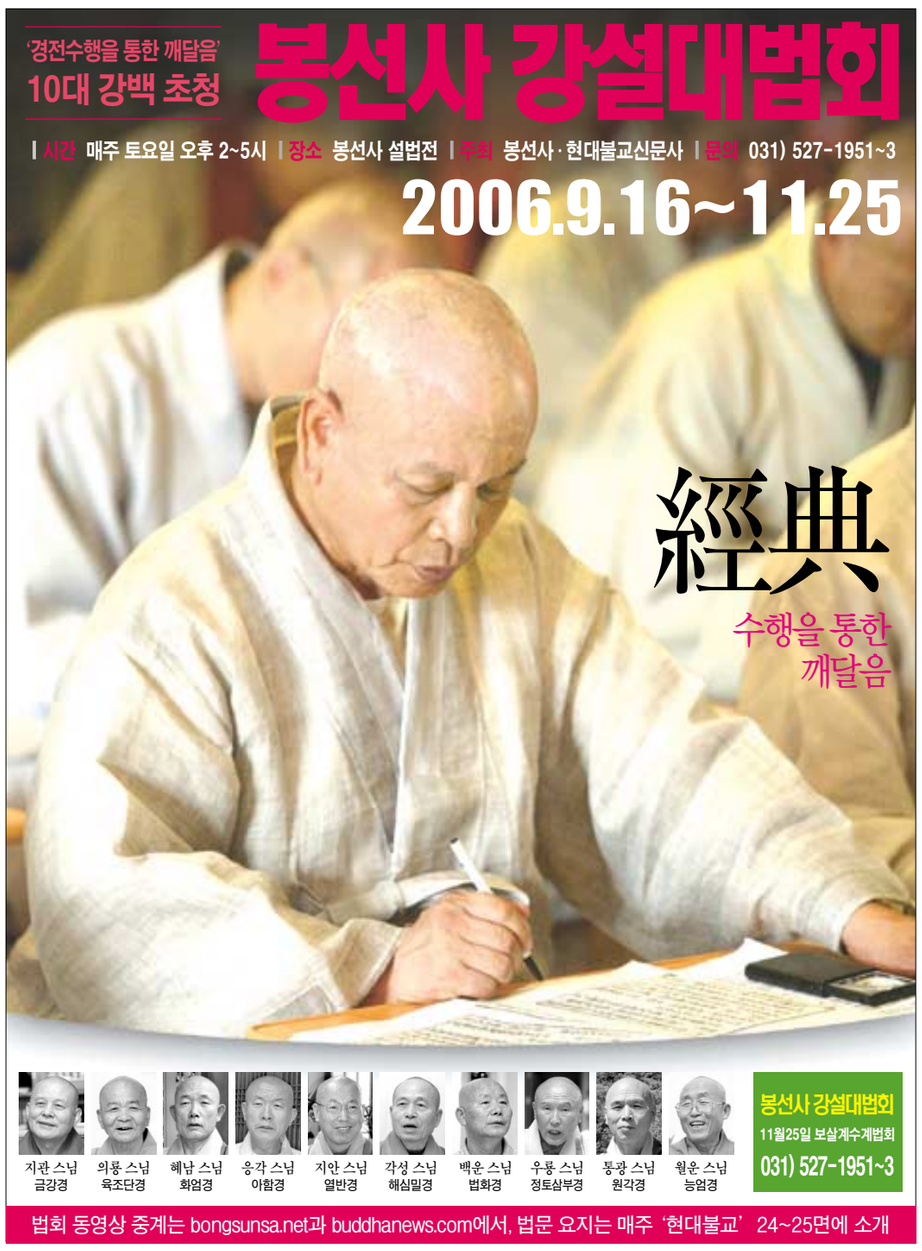
지난해 처음 열렸던 한국불교박람회는 연인원 5만여명의 참가로 성황을 이뤘다. 사무국은 당시 참가업체의 70% 가량이 다시 참가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2007한국불교박람회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bexpo.org)와 전화로 받는다. (02)706-3493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전시 · 체험 분리운영, 효과 높여

공식마케팅 기회로 정착

각종 세미나 · 이벤트도 계획



법회 동영상 중계는 bongsunsa.net과 buddhanews.com에서, 법문 요지는 매주 '현대불교' 24~25면에 소개

불교방송 사장에 홍승기 교수

9월 11일 취임식 … 임기는 2008년 7월까지



제7대 불교방송 신임사장에 홍승기 동국대 교수(52 · 사진)가 뽑혔다. 불교방송 재단이사회는 9월 8일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호텔에서 제 59차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 신임사장에 홍승기 교수를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홍승기 사장의 임기는 이성언 前 사장의 잔여기간인 2008년 7월 5일까지.

홍승기 동국대 교수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덴버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부터 동국대 경영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임중이다.

홍 신임사장은 "불교방송을 관리한다기 보다는 제 2창사를 한다는 목표로 불교방송 발전의 토대와 기초를 쌓는 사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취임식은 9월 11일 오전 9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

강지연 기자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12월 16일 마감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6년 12월 16일 ■ 당선작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41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9월 5일 폐회한 조계종 13대 중앙종회 무엇을 남겼나?

계파이익 챙기고 종단발전 뒷전에

회의 17차례 열어 개의는 절반 이하
'본격 정치 마당' 고착… "초심 잃지 말아야"



조계종 13대 중앙종회가 9월 5일 171회 회의로 사실상 마감됐다. 13대 중앙종회는 지난 4년간 갈수록 정치화 되어가는 중앙종회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후 13번째 중앙종회가 9월 5일 사실상 마무리 됐다.

중앙종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첫 회기 시작에 앞서 의원선서를 한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맹세를 얼마나 지켰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종책보다 계파의 이해가 먼저

12대 중앙종회가 문중과 계파의 이해로 움직였다면, 13대는 계파 구도가 명확해지고 여야의 개념도 강화됐다. 정당개념의 계파가 공식화 되고, 이런 와중에 종회내 다수의석 확보와 총무원 집권이라는 정당적 성격을 표방한 계파가 탄생하기도 했다. '공격수' 역할을 하는 야당은 여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 정치공세를 계속했다.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정대 · 법장 · 지관 스님 등 3명의 총무원장 집행부를 거치면서도 큰 분란 없이 4년을 마감 할 수 있었던 것은 종회의원들의 애종심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13대 종회를 바라보는 종도들의 시각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회의원 스스로의 노력은 미미했다. 종도 대의기구라는 중앙종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계파의 이해를 대변 · 옹호하는 중앙종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전문성 · 추진력 부족도 문제

13대 종회는 155~171회까지 17번의 회의를 열었다. 총 125일의 회기 가운데 55일(44%)만 개의되고 대부분은 회기를 단축한 채 폐회됐다.

그나마 156, 159, 168회는 성원미달로 개회도 못하고 유회됐다. 출석률은 평균 70%를 밑돌았다.

4년 동안 사무처로 접수돼 종회에서 논의한 안건은 모두 230건, 이 가운데 210개 안건이 상정됐다. 12대 중앙종회에서 457건이 상정된 것과 비교하면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상임위의 역할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 가운데 순수한 법안 처리는 83건이 제출됐고 고작 14건(17%)만 가결됐다. 그나마 의원발의로 처리된 안건은 단 1건에 그쳤고, 대부분 원안을 수정하거나 첨삭해 원래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가 막판에 법안개정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13대 중앙종회의 유일한 위안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이해에 매몰됐다. 기초위가 발의한 종헌 종법 개정안 대부분이 중진들의 방해로 부결되거나 폐기 처리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초선에 최연소 의원이었던 보경스님은 "종단의 중심에서 선배스님들에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도 "종단의 법과 제도가 세속의 정치적 논리를 닮아가면 안될 것이다. 종교집단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 사회적 종단 위상 제고 소홀

불교가 가진 사회적 위상에 맞는 역할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문제다.

북한산 관통문제, 지율스님 단식,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 도난 성보문화재 반환 등 불교와 관련된 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도 고작 종회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는 수준에 머물렀다.

종단 현안에 맞춰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정쟁의 목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13대 중앙종회는 △종헌종법개정특위 등 6개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진정한 의미의 종책 관련 특위는 '사설사암조사특위'가 유일했다.

종회 사회분과 일문 스님은 "몇 차례 회의 소집 정도로 추진력을 갖고 나서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인데다, 사회분과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너무 많았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책임성 강화와 계파 극복 과제

지난 4월 본지가 종회의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활한 종회활동을 막는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문중과 계파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종단의 화합을 이끌어야 할 종회의원 스스로 갈등과 대립에 빠지는 모순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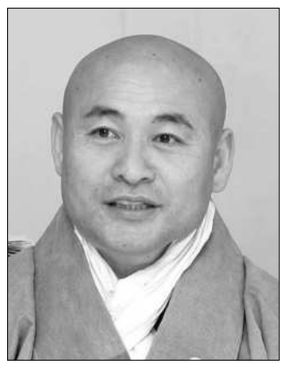
초선의원 이암 스님은 "종교를 앞세운 종단 대의단체인 종회가 계파의 입장에 매몰됐다"며 통렬한 자기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11월 9일 새롭게 개원할 14대 중앙종회가 13대 중앙종회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는 길은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원선서의 초심을 잃지 않는데 있다.

조용수 기자

"경전 통해 깨달음의 길 여는 계기 되길"

interview '10대 강백 초청 … 대법회' 여는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불자는 항상 경전을 읽고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행의 생활화는 경전을 버리고 이뤄질 수 없습니다. 경전을 통한 공부가 초석이 될 때 참선 등의 다른 수행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 16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오후 2시-5시)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주제로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봉선사 현대불교 공동주최)를 여는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사진)은 불자의 삶과 수행에 경전 공부가 기본임을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이번 법회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 수행에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다.

"경전도 수행의 방편이고 그를 통해 깨달음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열 분의 강백 스님들이 명확하게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은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차례에 걸친 경전 결집과 경판의 제작, 오늘날의 한글대장경 전산화에 이르기까지 경전불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전이야말로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절대적인 안내자임을 증명하는 일이라 봅니다."

철안 스님은 이번 법회가 봉선사에서 열린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봉선사는 조선조 이래로 교종본찰의 명맥을 이어 온 사찰이기 때문이다.

"1934년 월초 스님께서 사유지 2만 8천 평을 출연해 홍법강원을 설립하시며 교학도량의 맥을 중창하셨고 손상좌인 운허 스님을 이어 지금의 조실 월운 스님에 이르기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불사도 운허 스님과 월운 스님의 큰 원력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실 월운 스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능엄학림의 간단없는 정진도 교종본찰로서의 면모를 장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설대법회의 마지막 순서는 11월 25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보살계 수계법회'. 철안 스님은 "10주간 경전의 세계를 이해하고 계를 받음으로써 보다 반듯한 불자의 삶과 정진을 서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강설대법회가 믿음과 앎과 실천을 통해 무상대도를 이루는 인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스님은 "봉선사의 모든 대중과 본말사의 각 문중이 한 마음으로 법회를 준비하고 있어 교구 화합의 기회도 삼고 있다"고 말했다.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는 당대 최고의 강사 스님이 하나의 경전을 주제로, 해당 경전이 가르치는 깨달음의 길을 펼쳐 보인다. 강의 말미에는 스님과 재가자가 한 명씩 질의를 통해 강의 내용을 더욱 심화한다. (본지 594호 1면 기사 참조)

임연태 기자

■ 조계종 포교원장 공석 언제까지?

포교 업무 차질 … 하루가 급한데 …

빨라야 11월 정기종회서 … '내년 3월 說'도

조계종 포교원을 대표하며, 종단의 포교에 관한 제반업무를 통할하는 자리. 포교원장은 포교원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비롯해 사찰, 포교당 및 기타 불교단체 등의 포교업무 관할권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교원 산하 교육기관, 포교단체, 신도단체, 경승, 군승, 교법사, 국제포교사, 전교사 포교업무 지도 감독권도 갖고 있는 등 '포교의 정점'이다.

이처럼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조계종 포교원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9월 4일, 4대 포교원장 도영 스님 퇴임 후 후임 포교원장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교법'에 따르면 포교원장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서 행해가 청정하고 학덕이 탁월해 포교에 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하지만 9월 4~5일 열린 임시중앙종회 이전 포교원장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불교계 일각에서는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선출과 관련있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20석 중 관례상 2석은 포교원장 몫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차기 포교원장 선출은 올 11월 열리는 정기중앙종회로 넘어갔다.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14대 종회에서 차기 포교원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포교원장 공석이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대 종회가 개원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따라 계파간 합종연횡과 안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임시중앙종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포교 관련 실무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포교원 한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포교원장 공석이 장기화 될 경우 포교업무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비구니원로 명사법계 '동의'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등 부결
조계종 171차 임시종회 폐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9월 4일 제171차 임시종회를 열고 현등사 사리구 등의 환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 건, 비구니 원로(해운, 광우, 묘엄, 지원, 명성, 정훈 스님) 명사 법계 품수 동의의 건, 승가고시법개정안(중앙 및 교구본사 종무직 4년이상 종사한 자의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확대), 종무원법개정안, 종회의원선거법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가 발의한 '총무원장 추대제' 관련 종헌개정안 등은 종회내 이견으로 모두 부결됐다.

조용수 기자

봉행

법상종 용화구족계 및 생전 예수재 대법회

미륵존불님께 귀의하옵고
중생교화와 사중불사에 늘 애쓰시는 각 삼, 암 주지, 포교사님들께
불보살의 자비광명이 중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병술년 윤 7월을 맞아 중생들의 다겁생애 지은 업장소멸과 죄업을
생전에 참회하고 인로왕 보살님과 염부제 시왕에게 선법을 닦아
내생에 성불코져 발원하는 생전 예수재를 다음과 같이 본 종단에서
합동으로 봉행하오니 각 사, 암 주지스님께서는 수희 동참하셔서
법회가 원만이 회향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06년 9월 19일(음 윤 7월 27일)
오전 9시 (화요일)
나. 장 소 : 법상종 총본산 쌍미륵사
다. 봉 행 : 본종단 교육원장 교덕스님과 비구니 스님들의
바라춤 시연과 티벳 린포체 스님을 포함하여 10명 스님이
증명으로 참석하여 생전예수재 법회를 더욱 장엄하고
성대하게 봉행함
라. 문의전화 : 총무원 031) 653-1250 ~ 1 / 팩 스 031) 653-1253
※ 총무원으로 전화 또는 팩스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大韓佛教 法相宗 總務院 教育院

여성불자상 후보 추천받아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가 9월 15일까지 '한국여성불자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

후보자 자격은 불교포교활동 경력 20년 이상인 여성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주어진다. 사찰 주지 스님이나 신행단체장이면 누구나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인은 추천서와 해당부분 활동 공적서, 주요 경력 및 이력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9월 20일에 하며 시상식은 10월 중순 경 개최될 <한국여성불교연합회 10년사> 발간 기념법회 때 열릴 예정이다. (02)738-5586

여수령 기자

'자비상담원회' 출범

불교계의 대표적 상담전화인 '자비의전화' 상담원들의 체계적 · 조직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인 '자비상담원회'가 조직됐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단법인 자비의전화는 8월 30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자비상담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회장으로 김영자 상담원을 선출했다. 또 10월 중 부회장과 각부 부장을 선출하고 보살계 수계식과 더불어 정식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자비상담원회'는 불교상담원들의 상담활동과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참여 등의 회원 대외 활동을 위한 불교상담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10월 15일 올림픽공원서

제3회 한강행복문화축제

불교계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한강행복문화축제가 10월 15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축제는 오전 8시 88잔디마당에서 열리는 '걷기선(禪)과 명상'으로 시작된다. 지난 5 · 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불자 단체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는 한얼광장 및 88잔디마당에서 족구, 피구, 발야구,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의 체육대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장기자랑도 펼쳐진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얼광장에서는 불교문화체험 행사가 열린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10월 10일까지 조직위원회(02-733-7277)로 접수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어떤 요구도 응대 안 해"

리움박물관, 조계종 항의 방문에 강경입장

"답변 없을땐 사리 친견법회 · 단식투쟁 계획"

불교계는 삼성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봉선사 주지 철안, 현등사 주지 초격,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탁연 스님 등 '현등사사리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철안 · 원담, 이하 추진위)' 관계자 5명은 9월 6일 삼성리움박물관을 항의 방문해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리움박물관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피고측인 삼성문화재단에 항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원고인 현등사는 물론 조계종단의 어떠한 항의나 요구에도 응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추진위는 '조계종 법통부정 · 장물문화재 비호하는 사법부의 각성'과 '삼성은 현등사 사리 즉각 반환'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리움박물관 측에 전달했다.



9월 2~3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포교사 정기 연수 및 팔관재계 수계법회에서 선배 포교사가 신규 포교사 가슴에 포교사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성명서에는 '현등사 사리구 반환 소송(사건번호 2005가합9777) 1심 판결에서 원고인 현등사의 동일성을 부정한 법원의 판결은 조계종의 법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며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의 사리 또한 삼성 측이 주장하는 재산적 가치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반환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의방문 후 초격 스님은 "리움박물관 측에게 9월 9일까지 사리와 사리구 반환여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리움박물관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앞으로 '현등사 사리 불자 친견법회'와 '단식투쟁' 등의 강도 높은 항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현재 각 교구본사 입구에 '삼성은 현등사 사리를 반환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100만 불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9월 19일에는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소집해 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포교의 꽃 피우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사 425명 탄생

신규 포교사 425명이 탄생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9월 2~3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포교사 정기 연수 및 팔관재계 수계법회와 함께 신규 포교사 425명을 대상으로 품수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포교원장 도영, 통도사 총무국장 혜봉 스님을 비롯 전국의 포교사 17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도영 스님은 입재사를 통해 "바로 여러분이 핵심신도가 되고 또 핵심신도를 길러내 포교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홍 포교사단 단장은 "포교가 바로 우리 생활이자 삶이듯이 지계 실천 또한 우리의 생활이자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불자로 포교 현장에 임하자"고 말했다.

이날 서울 경기 자원봉사2팀 이은자, 대구 경북 환경팀 박성경, 부산 경남포 교도소봉사팀 박진걸 포교사가 포교사단 총재상을 수상했으며 부산경남 청년대학팀 이인복 포교사 등이 포교사단장상을 받았다.

또한 포교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동해온 3명의 포교사에게 '전문포교사' 자격이 부여됐다.

특히 대학생불교연합회의 전신인 학사불자회를 창립한 후 현재까지 포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대불련 출신 24명에게 명예포교사증이 수여됐다.

통도사=천미희 기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국보 지정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 반출된 지 9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47책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9월 7일 국보지정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일본에서 반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을 <조선왕조실록(1973.12.30 국보 제151호로 지정)>에 추가해 국보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본 1천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산엽본 21책 등 모두 2천77책에서 2천124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이날 열린 국보지정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대산사고본 47책을 당분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 · 관리토록 결정했으며, 관리단체 선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노병철 기자

용주사 인근 골프장 공사 중단

화성 용주사 문화재보호구역내 남수원골프장의 연습장 증축(본지 593호 3면 기사 참조)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9월 2일 공사를 중지했다.

남수원골프장측은 용주사에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약속한다"는 군인공제회 사장 명의의 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라는 용주사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용주사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성무 · 세영)는 남수원골프장 정문 앞에서 진행하던 항의집회를 중단했지만, 철거를 촉구하는 항의방문 등의 활동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용주사 비상대책위는 또 4일 이재율 화성 부시장이 "용주사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화성 용주사 승무제 연다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가 9월 23일 제4회 승무제를 연다.

조지훈 시인의 '승무'가 탄생한 무대인 용주사는 이날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 살풀이 예능보유자인 송악 김복련 선생을 초청해 '승무'의 탄생배경과 시 해설을 곁들여 나비, 바라춤을 선보인다.

또 어르신 3000여명을 초청해 경내에서 장수노인을 공경하는 백수연(白壽宴)과 산사음악회 등을 열 계획이다. (031) 369-2062

김원우 기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제2회 남북불교도 합동법회가 9월 2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됐다(사진).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조선불교도연맹 등 220여명의 불자들은 공동발원문을 채택하고 민족자주, 반전평화, 애국애족의 3대 공조를 실천하며, 통일을 앞당기는데 불교도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봉은사 부주지 명궁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남북 불교도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민족대화합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북한인권법' 주제 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포럼은 '북한인권법, 인권철학이 있는가'를 주제로 9월 20일 오후 5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06 불교평화생명포럼을 개최한다.

발제는 서보혁 前 국가인권위 위원과 조성렬 고려대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교수, 노귀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맡았고, 임순희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선임연구원, 변희욱 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봉영 기자

목탁소리

'佛之宗家' 가풍 회복할 날은 언제?

통도사(通度寺). 천하의 진리를 회통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으로 영축산 통도사의 편액을 볼 때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한다. 요사이 어른을 잃은 불지종가(佛之宗家)의 스님들은 도(道)로 통하는 길을 잃어버린 듯하다.

방장 월하 스님(조계종 제9대 종정)이 2003년 12월 원적에 든 이후 통도사는 예전 모습이 아니다. 2005년부터 무려 6번이나 후임 방장 추대를 위한 산중총회를 열었지만, 아직도 결론이 없다.

총림법에 따라 주지를 지명하도록 되어있는 방장 부재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기가 만료된 현문 스님에게 네 번이나 주지직무대행 임명장을 끊어주었다. 유례가 없는 다섯 번째 직무대행을 임명한 9월 5일,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새 주지 직무대행 지은 스님에게 언제까지 총무원이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11월 정기 중앙종회 이전까지 새 방장후보를 추대 못하면 통도사는 총무원장 직권으로 '총림해제 건의안' 상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전한 것이다. 비록 지은 스님이 현문 스님 주지 시절 부주지를 맡았었지만 새롭게 종무소 7직 국장 인선을 단행하고 총림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돌입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지금까지 '젊은승가회' '통도사 화합모임' '영축총림비상대책위' 등 이름도 외우기 힘든 여러 단체들이 3년여 동안 현문 스님 중심의 통도사 집행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양쪽 모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삼보사찰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대표급 사찰인 통도사가 방장이나 주지 자리가 계속 공석이고, 어두운 밤길을 헤매듯 '도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산문안 800여 대중이 '구하-경봉 문중'을 놓고 갈라져 싸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세속으로 고스란히 전달 될 때마다 불자들 마음도 큰 상처를 입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보종찰의 명예가 지금처럼 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렵다. 더욱이 8일에는 중앙종회 내 금강회 보림회 소속 일부 스님들이 전 · 현직 주지의 비행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에 진정을 내고 수사를 촉구해 불자들을 더욱 우려케 하고 있다.

모든 이들이 통도사가 하루라도 빨리 통도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가풍을 되찾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도무난 유혐간택 (至道無難 唯嫌揀擇 ·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나니, 다만 가리고 고르는 일을 그만두면 된다 <신심명>).' 길을 잃고 헤매는 통도사를 보노라면 승찬 스님의 이 가르침이 유난히 떠오른다.

■ 조용수(취재부 기자)



잘못 발견시 즉각 시정 요구해야

‘사이버 불교정보 오류’ 막을 길 없나?

비방·왜곡·불교이름건 사주 운세 등 문제 심각
포교사단, 7대 포털 모니터링 2000건 바로잡아
사이버 공간서 활동할 포교사 양성 시급

인터넷을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 바다 속에는 쓰레기도 많다. 음란물, 스팸메일을 비롯해 고의적으로 남을 헐뜯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엉터리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불교정보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정보를 사이트에 올려놓아 방문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악의적으로 불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유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포교사단이 지난 1년간 20000여 건의 오류를 바로잡기도 했다.사이버 공간에서의 잘못된 불교 정보가 어느 정도 난무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펌글 등으로 잘못된 정보 무한 전파

인터넷은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관리 운영하는 호스트 컴퓨터가 없고 이를 통제하는 조직도 없다. 접속은 물론 누구나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고 이 모든 웹페이지들이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상공간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웹페이지의 생성은 폭발적이다. 현재 전 세계 웹의 규모는 표층웹이 40억 페이지 심층이 5500억 페이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 의회도서관 장서의 50배에 이르는 규모다. 또한 하루에 700만페이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매일 150만페이지 이상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웹페이지의 소멸도 엄청나다. 지나친 상업화나 음란물이 넘쳐 정착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웹페이지들이 네티즌들로부터 외면 받아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버 용량 문제 등으로 관리자가 스스로 삭제하고 있어 웹페이지의 소멸 속도도 폭발적으로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는 웹페이지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생성, 소멸, 방치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잘못된 불교정보들은 네티즌들에 의해 펌글(동일한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겨놓는 행위)로 무한 전파가 되고 있어 문제다.

최근에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전파가 더 빨라지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다양한 쓰레기 정보들이 유통되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유형과 사례

잘못된 불교정보의 유형은 크게 악의적으로 불교를 비방하는 경우나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왜곡된 불교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운명 상담 등 비불교적인 내용이 상업화되며 불교를 표방하면서 나타나는 피해 등이다.

인터넷이 지금처럼 생활화가 되기 이전에는 주로 타종교인에 의한 악의적인 불교 비방 정보가 많았다. 안티불교사이트를 개설해 고의적으로 불교정보를 왜곡해 유포하는 것이 대표적인 행위였다. 네티즌들의 성숙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면서 지금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검색엔진 엠파스에서 안티불교라는 주제어로 검색을 해보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안티불교사이트(http://www.geocities.com/onias77/) 바로가기 링크다. 이 사이트 서버는 미국에 있어 정보 폐기 등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태. 클릭해 보면 승려들의 범죄 기사를 모아 한 페이지로 소개하고 있다. ‘사찰 주지가 15년 내연녀 살해’, ‘승려가 액땜한다며 돈받고 부녀자 강간’ 등 19개의 기사를 올려 놓았다. 읽는 이로 하여금 불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고의성이 가득하다. 이같은 범죄 기사는 불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네티즌들에 의해 펌글로 웹사이트의 게시판, 블로그, 카페 등에 무제한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사이버 훼불로 가상공간을 떠돌고 있다.

다음 카페인 안티불교(http://cafe.daum.net/antibuddhism)도 잘못된 불교정보를 유포하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한국불교 관련이라는 카테고리에는 불교가 싫어질때, 불교의 잘못 / 문제점, 불경과 가르침 상의 오류들, 불교에 바라는, 불교문제의 대안 / 해결책 등 5개의 하부 카타고리가 존재한다. 그 안에는 ‘중님들아~ 스님을 스승님의 준말이라고 가정하고 물어 보자’, ‘붓다의 법을 사이비로 만드는 어리석은 땡초와 추종자들’, ‘왜 한국불교를 삿된불교, 사이비불교라 규정하는가?’ 등 제목만 봐도 악의적인 불교비방 정보가 가득하다. 이 카페는 5년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에 의해 폐쇄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주소만 조금 바뀐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불교 비방 정보들은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보다는 왜곡과 훼손을 위해 불교교리를 편집, 각색하고 있어 일종의 사이버 훼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네이버, 야후, 엠파스 등의 대형 포탈사이트에서는 지식검색이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궁금증을 가진 네티즌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네티즌들이 답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과 개인간의 질문과 답이 모든 네티즌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정보를 해답으로 올렸을 때는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잘못된 불교정보를 유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숙제를 하기 위해 질문을 올린 학생들의 경우 잘못된 불교정보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불교를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네이버에 ‘석가모니’를 주제어로 검색을 해보면 지식검색에 한 네티즌이 ‘석가모니가 사람인가 신인가?’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사람이었으나 현재는 부처입니다. 부처는 신과 차이가 없습니다’는 답변이 올라와 있다. 불교를 잘 모르거나 초심자들은 이 질문과 답을 보면서 부처님이 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잘못된 불교정보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사주, 팔자, 운세 등을 다루는 곳이 불교를 표방하는데서 오는 오해와 왜곡이다. 오프라인에서 점집에 가보면 절만(卍) 자를 간판으로 걸어놓고 있는 것과 같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스님이 직접 운명 상담을 한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의 행위는 지나치게 상업적이어서 불자들은 물론 타종교인에게까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정화라고 밝힌 네티즌은 조계종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8월 21일 자신의 경험담을 올려 놓았다. 조롱박닷컴이라는 곳에 접속해 돈을 내고 사주를 보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비구니스님이라고 했고 부적, 달마도를 팔면서도 평범하고 청빈한 스님이라는 말이 상업적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비불교적인 내용들이 버젓이 불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목이다.

▷불자 모두 주인의식으로 감시를

조계종 포교사단은 2005년 8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포교원의 위탁사업으로 불교바른정보사업단을 개소해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7대 포털의 지식관련 정보코너의 불교정보를 모니터링했다. 홈페이지 및 카페를 운영하는 포교사 50명이 포털사이트 게시물의 답글을 일일이 검색하며 불교정보의 오류나 왜곡된 내용을 파악하고 각 포털의 오류등록과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바른 불교정보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네이버 1441건, 다음 302건, 야후 61건, 엠파스 68건 등 2천여건의 잘못된 불교정보를 바로잡았다. 또한 자주 질문하는 비중이 높은 불교관련 150문안을 골라 모범 답안을 만들어 포교사들에게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식검색에 상당수 모범 답안이 업데이트 되어 있고 불교단체 사이트의 신행상담코너 등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고있다.

포교사단은 올해 불교바른정보사업단은 포교사단내 정보사업팀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포교사단의 활동성과는 가상공간에서 잘못된 불교정보를 바로잡는데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가상공간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무한정으로 확대되고 있어 한두명으로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잘못된 불교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잘못된 불교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홈페이지에 수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또한 포교사단 정보화팀과 같이 불교계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가상공간의 잘못된 불교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바로잡는 것도 효과적이다.

종단에서도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5일제, 인터넷의 생활화 등으로 인해 신행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이버 포교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사회 변화에 맞는 대기 설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이버 포교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장하용 교수는 “인터넷의 구조상 종단이나 몇몇 단체에서 잘못된 불교정보를 바로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자들 스스로가 정보화능력을 키워 자신이 속한 원찰 홈페이지는 물론 불교 관련 홈페이지에 바른 정보를 올리고 잘못된 불교정보를 발견했을때 적극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는 주체적인 인터넷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삽화 박구원

‘서로 모여 부처님의 법을 듣고 토론합니다’ 원각사 재가논강(在家論講)

8월 11일 보시(김응철 교수)편을 시작으로 인욕(이순규 교수), 선정(이호근 법사), 정진(박건주 교수), 지혜(이희재 교수)까지 많은 불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인 지계(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편에서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아우르고 앞으로 바른 신행생활을 하는 의미로 보살계수계식도 함께 할 예정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주 제 :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불기2550년(2006년) 8월 11일 ~ 9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9시)
● 대 상 :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 논주(論主) :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순규 의학박사, 이호근 법사, 박건주 전남대교수, 이희재 광주대 교수, 송광사 율원장 지현스님
● 장 소 : 원각사 대웅전
● 주 최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 후 원 : (주)BBS광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 발제 40분 / 토론 50분 / 토론자 2인(신행단체) / 총 진행:이중표 전남대 교수
● 보살 수계식 | 동참비 : 2만원 / 장 소 : 원각사 대웅전 / 일 시 : 9월 22일 오후7시

생전예수재 안내
불기 2550년 음력 7월 윤달을 맞아 원각사에서는 살아생전 진 빚, 즉 업을 죽기 전에 잘 닦아서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죽음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인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 49재 | 입재 : 2006년 8월 05일 토요일 오전 10시 / 회향 : 2006년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 매주 금요일 마다 재를 7.7재 일곱번 지내고, 동참비는 1인 10만원, 가족 30만원입니다.
● 영산재 : 초재, 3재, 5재, 막재에 영산재를 봉행합니다.

■ 유등접수 ■
9월 22일 생전예수재를 회향하며 불자들의 서원을 담아 유등 띄우기 행사를 봉행합니다.
▶ 장소 : 광주천 ▶ 동참금 : 5,000원

■ 추석 합동제사(10월6일, 추석)
집에서 차례를 못지내시는 분이나 평소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싶은 영가님들이 계신분들은 원각사에서 추석제사를 올려 들립니다.
일 시 : 2006.10. 6(음 8.15)금 오전 11시 추석차례
동참금 : 영가1위당 5만원

■ 중구절 합동제사(10월30일, 음 9월9일)
불기2550년음력 9월9일 중구절을 맞아 합동천도재를 봉행, 유주무주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드립니다.
일 시 : 2006.10. 30(음 9.9)월 오전 10시
동참금 : 영가1위당 1만원

접수 및 문의 : 원각사 종무소 (062)223-3168

도롱뇽이 사람 못살게 하면?

극단 새벽, 천성산 소재로 한 연극 '그리하여 그들은…' 공연

수미산 꼭대기 고원 늪지 뒤편에 살고 있던 도롱뇽들이 9월 7일부터 부산의 한 연극 무대에 올라 지율 스님과 관객을 만났다.

극단 새벽이 '도롱뇽 소송'을 소재로 만든 연극 '그리하여 그들은…'에 등장하는 도롱뇽들은 인간과 도롱뇽의 입장을 바꿔놓은 관점에서 얘기를 시작한다. 도롱뇽이 서식지 확장을 위해 지하터널을 계획하고 그 지하터널이 인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상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다. 잔잔한 노래와 함께 진행되는 연희극 형식의 이 연극은 극적인 '감동'과 환경영향공동보고서, 도롱뇽 소송의 법정 상황 등 '사실' 사이를 오가며 도롱뇽소송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되짚어보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들은…'이라는 제목에서 '그들'은 법적 판결을 내린 재판부, 고속철공단 관계자, 천성산대책위 관계자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도롱뇽 소송 기각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 물음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물음이다.

이번 연극은 도롱뇽소송을 극화했다는 점 외에도 연극 자체가 천성산 살리기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사전제작후원제'라는 독특한 방식을 도입해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불자, 스님, 일반시민 등이 제작비를 후원해 연극을 만드는데 동참하기 때문이다. 연극에 도입한 독립영화 운동과 같은 사전제작후원제를 통해 천성산 살리기 운동에 대한 공유와 소통을 이끌어내겠다는 극단 새벽의 의지가 담긴 시도다. 9월 3일, 공연을 앞두고 시연회를 열어 천성산대책위 관계자와 일반인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도롱뇽 소송의 과정과 연극 제작을 둘러싼 의견을 나눈 것도 그 때문이다.

인간과 도롱뇽 입장 바꿔 이야기 전개
'사전제작 후원제' 독특한 방식 도입
9월 7일~10월 1일…관람후 토론도

연출을 맡은 이동민씨는 "5월 지율 스님을 뵙고 연극 제작을 결심하기 까지 고민이 많았다. 도롱뇽 소송 기각이 곧 천성산 운동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연극제작을 통해 이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운동가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환경이나 생명이 개인의 생활 속으로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리하여 그들은…'에 참가한 관객들과 함께하는 천성산 기행이나 '공간 초록'에서의 토론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밝혔다.

그래서 다른 연극 제작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장기 공연으로 기획했다. 10월 1일까지 남포동에 위치한 소극장 실천무대에서 일주일에 5회(목, 금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4시) 공연된다.

"환경운동에 대한 하나의 입장 전달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상생의 거대한 흐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싶었다"는 이성민 연출자의 말처럼 연극 '그리하여 그들은…'은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큰 순환을 일깨우며 막을 내린다.

'공간 초록' 개원 행사 이후 영덕 토굴에서 머물다 연극 공연 관람을 위해 부산에 온 지율 스님은 "도롱뇽소송 기각 이후 많이 힘들었다. 그것은 패소의 절망이 아니라 그 과정에 드러난 사회의 여러 부정적 단면 때문이었다. 연극을 통해 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희망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245-591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interview

개교 100주년 금정중학교 **현익채** 신임교장

"새로운 100년 준비 민족의 동량 양성"



"부덕한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스님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과 마음을 모아 100년 전통의 맥을 잇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조계종립 부산 금정중학교 신임 교장으로 취임한 현익채(56 · 사진) 교장. 현 교장은 "부산에서 한 세기를 넘어 전통을 이어오는 중학교는 금정중학교가 유일하다"며 "100주년을 기념해 10월 21일 부산KBS홀에서는 한마음축제를 기획,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낙후 시설 확충 최우선 과제
'금정 100년사' 발간에 진력
등반 · 마라톤대회 등 준비

금정중학교는 1906년 6월 '불타의 자비정신으로서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국민을 양성하고자 중등교육을 실시한다'는 건학이념으로 범어사 금어암에서 문을 열었다. 일제 강점기 당시 3 · 1운동과 43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강제 폐교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동안 前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 스님을 비롯해 1만 8852명의 졸업생들이 지역사회 및 국가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펴치고 있다.

31년 6개월 동안 금정중학교에 몸담아왔고 87년부터 교법사로 활동해온 현 교장은 금정중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낙후된 학교시설의 확충을 꼽았다. 휴게실, 강당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학사를 옮기든지 새롭게 신설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학교법인,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달 발간되는 600페이지 분량의 <금정 100년사> 최종마무리에도 진력하고 있다.

현 교장은 학부모, 동문, 학생들이 금정중학교의 새로운 100년에 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등반 및 단축마라톤 대회, 각종 전시 및 금정학생 가요제, 학교 소개 영상물 제작 등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현 교장은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교장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아이들의 심성을 맑히는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금정중학교는 100주년 기념일인 10월 20일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금정대동제'를 거행한다. 천미희 기자

공 굴리며 마음 나눠요

대불청 회장배 첫 전국 볼링대회 개최



대한불교청년회는 볼링대회를 통해 지역을 초월한 도반애를 다졌다.

'지역'이라는 공간적 거리가 볼링핀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볼링대회가 열렸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 이하 대불청)는 9월 2일 부산 장전동 현대볼링장에서 제1회 대한불교청년회장배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대불청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부산지구 청년회원을 비롯 서울지구, 경북지구, 경남지구, 조계사청년회 등 5개 지구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도반애를 다졌다.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대회는 가족의 손을 잡고 참석한 회원들과 평소 볼링 모임으로 실력을 다져온 팀들의 활약으로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졌다.

50여 명이 출전한 개인전에서는 경북지구 포항 죽림사 지회의 임종락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지회별로 팀을 나눠 진행된 단체전에서는 부산지구 기장지회가 우승했다.

특히 단체전, 개인전 1, 2, 3위에 주어진 시상금 중 10퍼센트를 대불청 중앙에서 실시중인 북한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김익석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해 훈훈함을 더했다.

대회를 주관한 부산지구 손정현 회장은 "평소 볼링 모임을 가지며 신심을 다져오던 청년회원들이 이제 볼링을 매개로 다른 지역 청년들과 만나 서로 마음을 나누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의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배움과 가르침을 둘 아니게"

부산 교사불자 '청림회' 창립15돌

부산 교사불자 청림회(회장 조은영)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9월 1일 남산동 문수원에서 회장단 이 · 취임식 및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청림회 지도법사 무비스님은 법화경 강의에 앞서 "여러분은 지식을 가르치고 나눠주는 사람들인 만큼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공덕을 쌓아야 할 것"이라며 "정법으로 전법을 한다면 세상의 어떤 공덕보다 수승하다"고 말했다.

청림회는 불법으로 아이들을 교화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길 발원하며 15년 전 1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창립됐다.

매월 정기법회를 열어 예불문, 천수경, 유마경, 법화경 등을 함께 공부하는 동안 회원 수는 100여 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교사가 아니어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도 법회를 개방하고 있다.

이날 청림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은영 대남초등학교 교장은 "많이 부족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도반들이 있어 두렵지는 않다"며 "청림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남북 수해 희생자 위령재

부산불교평화연대

부산불교평화연대(상임대표 황정)는 9월 3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세계평화 및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남북 큰물피해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부산불교평화연대는 부산 황정사 신도들이 모은 1억원 상당의 옷 1만 200여 점을 북한으로 전달하고 9월 말까지 수재의연금 1천만 원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황정 스님은 "우리 개개인의 힘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북한의 동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도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中 영화제 관계자 범어사 방문
다도체험 등 한국불교 경험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영화관리국 동강국장과 중국영화제 관계자들이 9월 5일 부산 범어사를 찾아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이 한국을 찾은 것은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이 한국과 중국의 영화문화 교류를 위해 9월 1일부터 6일 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하고 있는 중국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범어사 연수국장 혜수 스님의 안내를 받아 조계문과 사천왕문을 지나 대웅전과 팔상전, 나한전 등을 둘러 본 중국방문단은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차를 마시며 범어사 스님들에게 한국불교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날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은 "이 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맑고 따뜻해지길 발원한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범어사를 찾은 경험이 여러분이 만들어 낼 아름다운 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周易講義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부처님 법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마는 부처님 법을 중생제도 하기에 알맞은 방편인 신비한 오행비법이 바로 강의속에 있으니 선지식의 스님들 앞에 감(敢)히 머리조아려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뜻있는 불자님들도 이곳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을 비워보세
그리고 나면 나를 볼 것이네
그리고 나면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 오고 있음을 믿을 줄 알아야 하네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인연 닿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 장 소 : 寶明寺 (보명사)
• 개강일시 : 2006년 9월 23일 / 매주 2회 (토, 일요일) 오후 3 ~ 5시
• 수 강 료 : 월 12만원 삼개월 과정 (총 36만원)
• 강의내용 : 전화문의 • 강 사 : 방 필 석 居士
※ 특전 : 수강료 일시불, 매번 강의 무료. 스님은 필기도구 및 교재무료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 방향, 마을버스 06번 (법원단지행 보명사) 마을버스에 표시
• 문의 : 02)738-2045 ※ 스님께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寶明寺 보명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3동 610-281호

그림에 담은 천년의 '佛香'

국내 유명작가 25명 경주박물관서 '천년의 황금도시 - 경주展' 개최



9월 5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천년의 황금도시 - 경주전' 에서 신라문화원장 진병길씨가 관객들에게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을 통해 신라 천년의 숨결을 찾아보는 이색 그림전이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마련됐다. 북촌미술관(관장 전윤수)이 주최하고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이 주관하는 '천년의 황금도시-경주전'이 그것.

9월 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는 국내의 유명작가 25명이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경주남산을 비롯한 석굴암, 불국사, 분황사 반월성 등 경주의 문화재를 찾아 화폭에 담은 10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경주시니어클럽 소속의 문화유산해설사들이 그림속의 문화유산을 설명해주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경주 남산 문화재 화폭에
문화유산 해설가가 설명
28일까지 전시, 전국 순회도

"박대성 화백은 초등학교 졸업이 유일한 학력이며, 한국전쟁 때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열심히 그림을 그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이 작품은 박대성 화백이 그린 경주남산인데요, 황룡사 9층 목탑과 분황사모전 석탑, 불국사와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까지 경주의 모든 문화유적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9월 6일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실에는 문화유산해설사 이정희(62)선생이 십여 명의 현대 기아 자동차 협력단에서 온 단체 관람객들을 안내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림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전시회를 기획한 북촌미술관 이승미 부관장에게서 작가들에 대해 들은 내용을 꼼꼼히 메모해두었다가 작가의 의도나 뜻을 전했다.

"이것은 비단에 수묵채색 한 김현철씨의 작품인데요, 천상의 불국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그렸답니다. 이것이 석가탑, 이것이 다보탑, 그리고 이곳이 관음전입니다."

천상의 불국사가 새로운 느낌으로 전해진다.

"이 작품은 문봉선 작가가 그린 황룡사지 빈터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옛 황룡사를 얼마든지 마음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9층 목탑과 금당 등…"

그냥 허허벌판으로 보이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은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며 옛 신라인의 눈으로 살피는 황룡사지는 다른 멋과 맛을 지닌다.

100여점의 작품에는 25명의 작가들이 만난 경주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반월성터, 화사한 유채밭 너머 첨성대, 구르는 돌마저 범상치 않은 남산을 오르는 길, 남산 곳곳에 산재한 불상 등. 김범석 화백이 남산꼭대기에서 360도를 둘러보며 스케치하고 6개월간 작업한 대작 남산별곡은 경주의 과거와 현재가 모두 들어있다.

양동마을, 옥산서원, 기림사, 석굴암 일출을 그린 이호신 화백은 "보통 문화유적이라면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단정하는 이들이 많은데 문화유적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살아있는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는 진경산수화나 풍속화처럼 2000년의 역사를 품어온 경주를 오늘의 미감으로 고스란히 드러내 놓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천년의 황금도시 - 경주전'은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북촌미술관과 부남미술관에서도 열릴 예정이며, 차후 전국 순회 전시도 예정 중이다.(054)740-7518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춘향가 완창' 도전하는 불자 자매

임혜진 · 혜정



어릴적부터 반야심경 줄줄
흥부가 완창 경력도 보유
부모 매일 기도로 성공 기원

독실한 불자집안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불교계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파라미타학생회활동을 해온 대구의 두 자매가 다섯 시간에 걸친 판소리 춘향가 완창 발표회를 갖는다.

임혜진(경북예고1 · 왼쪽사진) 혜정(덕원중2)양이 주인공. 언니 혜진양은 9월 15일 오후 3시 대구 봉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동생 혜정양은 9월 20일 오후4시 같은 장소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혜진 · 혜정양은 둘 다 부여 비로자나유치원을 졸업했으며, 일곱 살 때부터 반야심경을 줄줄 외워 주위를 놀라게 했다. 혜진양은 덕원중학교 파라미타 학생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모범회원으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며 TV 등에 나오는 국악공연만 보면 흥에 겨워했다는 두 자매. 혜진양은 8세부터, 혜정양은 6세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대구문형문화재 8호 (사)영남판소리보존회 이사장 이명희 명창으로부터 사사 받고 있는 수제자로 지난해 두 시간 삼십분에 걸쳐 흥부가를 완창했다.

현재 경북예고 학생회장으로 집과 학교 학원을 빠지지 않고 다니며 소리를 배워온 혜진 양은 2002년 제2회 인천학생국악경연대회 은상, 2005년 부편풍물 대축제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대상, 제12회 달구벌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수상 경력과 발표경력을 갖고 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울통(소리통)을 가졌다는 칭찬을 듣는 혜정양도 2000년 TJB 주최 제8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2002년 제4회 상주전국민요경창대회 특별상, 2003년 제17회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했다.

대구 경북불교대학 14기 졸업생인 어머니 백미정씨는 두 자매의 춘향가 완창발표회를 앞두고 매일 아침 사찰을 찾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아버지 임정식씨 또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야심경 사경을 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팔공산 갓바위 참배 쉬워져요

경산방면 주차장 무료화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 일명 갓바위 부처님을 참배하기 위해 오르는 경산 와촌방면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경산시와 갓바위주차장 관리자 사이의 오랜 운영권분쟁에서 승소한 경산시는 9월부터 주차장을 직영하고 무료로 운영한다.

경산시는 주차장에서 선본사까지 편도 1차로의 진입도로가 좁고 보행통로가 없는 점을 감안해 내년까지 보도를 확보하고 쉼터를 마련하는 등 일대 도로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며, 도로정비를 하는 약 1년간 68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 팔공산관리사무소는 9월부터 팔공산 등산로 보수작업을 시작해 내년 1월부터는 대구시 동구 도동 팔공산 관암사에서 갓바위에 이르는 725m 구간이 새롭게 단장된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구미불청, 보리수공부방 개원

구미불교청년회(회장 박현도)가 구미 선기동 구미불교청년회관문화센터(센터장 김수용)에 보리수공부방을 9월 2일 개원했다. (사)대한불교청년회가 행정자치부의 후원으로 9월부터 12월 중 둘째 넷째 토요일마다 시행하는 공부방사업 '놀토! 우리함께 놀아요'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 그러나 구미불교청년회는 노는 토요일 뿐 아니라 매주 토요일 공부방을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보리수공부방은 지역 초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노는 토요일인 2, 4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나머지 토요일은 낮 12시부터 오후5시까지 공부방을 운영한다.

9월 2일 구미불교청년회관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구미사암연합회장 정우 스님과 (사)대불청 중앙회 류춘일 감사 등의 구미 불교청년회원과 보리수공부방에 등록한 지역청소년과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불교청정운동 대구서 법회



(재)대한불교진흥원 청정운동 대구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대불청 대구지구와 대구불교산악회가 주관한 청정운동대구순회법회가 대구 관오사 법당에서 9월 3일 봉행됐다(사진).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법회에는 관오사 주지 지도 스님과 구도회 하재웅 회장, 대광맹인불자회 이재달 회장, 동구청일심회 조규택 회장, (사)대불청 이만희 대구지구장 등 지역신행단체장들도 대거 동참했고, 청정운동추진위원장 송석구 교수가 '보현보살의 10대행원과 현대적 실천'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배지선기자

진성 스님, 장학기금 마련 전시

대구 금화사 주지 진성 스님이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연화사계 사진전을 개최했다. 25년이 넘도록 사진을 찍어 온 스님이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스님은 6년여 동안 청도, 경산은 물론 충남 부여 궁남지, 전북 전주 덕진못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담아낸 연꽃사진 50여점을 선보였다. 스님은 연꽃의 사계를 통해 생로병사의 이치를 작품에 담았다.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 어린이집 열어

영남불교대학 사회복지법인 참좋은 어린이집(원감 최정애)이 9월 6일 개원했다.

참좋은 어린이집은 3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며, 다도실, 발레실 등 특별실과 최첨단 방송 스튜디오, 수영장, 자연생태공원, 전통문화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내년 3월에는 유치원도 개원할 예정이며, 장애 아동을 위한 행복어린이집(가칭)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9월 30일부터

조선왕조실록 학술심포지엄도

제3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평창 월정사, 상원사 등 오대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모토아래 진행되는 불교문화축전은 공식행사를 비롯해 △체험의 장 △참여의 장 △청소년 및 어린이 어울마당 △친견 및 전시의 장 △공연의 장 △나눔의 장으로 나눠 진행된다.

학술심포지엄 '조선왕조실록 기념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불교문화축전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과 월정사 탑돌이 등으로 전통문화 원형을 복원하고 이를 재현한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오대산 전국 학생 사생대회, 백일장대회, 어린이 불교동요 배우기 및 경연대회 등으로 지역청소년 문화체험의 기회를 넓히고, 청소년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판소리 창작한마당, 산사음악회, 산사영화제 등을 통해 강원도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도 꾀한다.(033)332-6661~5

남동우 기자

결혼이민자여성에 한복 지원

불교사회복지회 산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태화)는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9월 25일까지 한복을 후원받는다.

또 9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결혼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신기한 컴퓨터 교실'을 연다. (053)475-2324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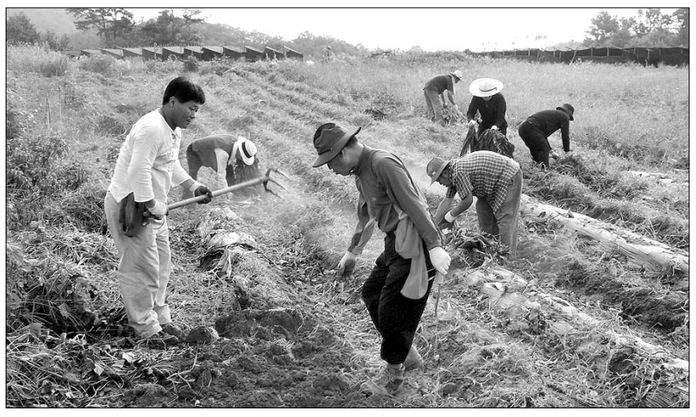
니르바나(nirvana)란 불교에서 수행에 의한 최고의 경지인 해탈(解脫)의 의미이며, 현대적으로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뜻한다. 광주 덕림사에서는 니르바나불교사진공모전을 마련, 우수한 한국 불교문화와 건축물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Asia 文化 거점도시인 光州를 사진 文化의 메카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 작품 내용 :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불교건축, 유형무형문화재(문화재 표시)**
2006년 특별주제 달빛에 관한 사진 (해마다 주제 변경됨)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의 미발표 자유작)
■ 출품 자격 : 전국의 사진애호가
■ 작품 규격 : 11″×14″ 칼라, 흑백. 디지털(장정불요)
■ 출 품 수 : 제한없음 ■ 출 품 료 : 1인당 2만원
■ 접수 기간 : 2006년 9월 10일~10월 10일 (당일 소인 유효)
■ 출품 방법 : 작품 뒷면에 화제, 주소, 성명,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것
■ 출 품 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04-7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덕림사
전화 (062)362-2091~2 / **팩스** (062)362-8413
■ 심사 발표 : 2006년 10월 16일(월)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홈페이지 (http://www.kjphoto.or.kr)
■ 수상작전시 : 2006년 11월 5일(일) ~ 11월 10일(금) / 덕림사 경내
■ 시 상 식 : 2006년 11월 5일(일) / 덕림사
■ 시상 내역 : •금상(1명)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특별주제상(1명) -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은상(1명) - 상금 100만원 및 상장 •동상(3명) - 상금 30만원 및 상장
•가작(5명) - 상금 10만원 및 상장 •입선(100명 내외) - 상장
■ 기타 사항 1. 입상 · 입선 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로 인정함.
2. 입상 · 입선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주최 · 주관에 귀속됨.
3. 본 공모전에 동일작 및 유사작품은 출품하여 입상 또는 입선될 경우 사협회원은 제명되고, 비회원은 10년 동안 입회 유보됨.
4. 입선 이상 작품의 초상권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책임이 있음.

주 최 _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덕림사
주 관 _ 대한일보, (주)청강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후 원 _ (사)한국사진작가협회, KBS, 정경뉴스, 불교TV, 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주)벽진건설, 광주브라이튼학원

“수확량 적어도 마음 풍족”

익산 마한거사림회 회원들 불우이웃 위한 고구마 재배 수익금 전액 생활·치료비로


고구마 밭을 일궈 자비를 실천하는 마한거사림회 회원들이 9월 3일 고구마를 캐고 있다.

고구마 밭을 일궈 자비 실천행을 펼치는 거사들이 있다.

익산 마한거사림회(회장 박중근)는 9월 3일 익산 외곽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 60여 상자를 수확했다.

이날 거사림 회원 30여 명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600여 평에 이르는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포장한 뒤 현지장터를 열어 판매까지 마쳤다.

거사림회가 지난 5월부터 파종과 잡초 제거 등 고구마 농사를 지은 것은 불우이웃에게 자비손길을 펴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다.

거사림회는 4년 전부터 병고로 시달리는 독거노인 2명에게 매월 생활비를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치료비 후원까지 맡으면서 회원들의 성금만으로는 어렵게 됐다.

금년 초, 기금 마련을 고민하던 박중근 회장은 “고향에 있는 농토를 무상임대하겠다”고 밝혔고 거사림 회원들이 선뜻 노동력을 제공키로 해 고구마 농사가 시작됐다.

첫 농사를 마친 박중근 회장은 “경험 부족으로 수확량이 적어 아쉽지만 땀을 흘리면서 신심과 친목이 더욱 돈독해졌다”며 “고구마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3명에게 매달 생활 및 치료 후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틈틈이 고구마 밭을 찾은 이근영 거사도 “거사들이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일하다보니 어려운지 몰랐다”며 “농사지은 고구마가 불우한 이웃에게 힘이 되기에 더욱 보람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한거사림회는 2002년 창립된 익산지역 거사들의 신행단체로 매월(첫째 일요일) 사찰순례를 겸한 산행과 자원봉사로 신심을 키우고 있다.

글·사진/익산=이준엽 기자

아미타회상도 13년만에 대중 앞에

백양사, 17일 돌아온 불화 공개

백양사 아미타불이 13년만에 법당으로 돌아와 보살계 수계식을 증명한다.

백양사 박물관장 지선 스님은 지난 4일 “1994년 도난당한 극락보전 아미타회상도를 되찾아, 오는 17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미타회상도는 윤달을 맞아 백양사가 봉행하는 가사불사 및 보살계수계식이 열리는 대웅전에서 대중들의 참배를 받게된다.

한편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회상도는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을 근거로 서방 극락세계를 표현한 365×254㎝ 크기의 대형 탱화로 18세기에 제작됐다.

이 불화는 도난이후 지난 4월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발견되었으며, 백양사측의 반환요청으로 7월 14일 유물증서와 함께 백양사로 돌아왔다.

아미타회상도를 반환받은 백양사는 보존처리를 거쳐 일반에 공개한 후 도난방지를 위해 백양사 박물관에 보관 전시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빛고을을 불교사진 중심지로

덕림사, 10월 10일까지 작품 공모

빛고을 광주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인정하는 첫 불교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는 9월 10일부터 10월 10까지 제1회 니르바나 불교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점수가 부여되는 권위 있는 사진전으로 전국 사진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빛에 관한 사진’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불교와 전통문화, 불교건축물, 유 무형 문화재를 담은 작품이면 참가할 수 있다.

지역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불교 사진전을 마련한 무이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와 건축물을 사진예술로 한단계 승화시켜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며 “사진전을 정례화 시켜 덕림사를 광주 사진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진 공모전 수상작은 11월 5~11일 덕림사에서 열리는 시왕재 기간동안 전시된다. 이준엽 기자

백제 불교문화 정수 만나보자

정림사지박물관 29일 개관

옛 백제의 수도 부여에 백제불교문화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이 생긴다. 부여군은 9월 4일 “부여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백제시대의 생활상과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9월 29일 정림사지박물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의 상징인 만(卍)자 모양으로 설계된 독특한 건물구조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실은 2개의 전시실과 1개의 기획전시실로 구성돼 있다.

제1전시실에는 백제불교의 시작과 발전과정을 제2전시실에는 정림사지 복원에 중심을 두고 발굴과정과 출토유물 등을 전시한다. 중층에 있는 기획전시실은 백제사비도성 신자료전을 개최, 백제와 불교를 말함에 있어 타박물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뒀다. 노병철 기자

쓸쓸한 추석 걱정되세요?

화엄사 ‘달빛아래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10월 1~7일 ‘특별한 부처 체험-달빛 아래 일곱날’이란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개천절과 추석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한가위 보름달 아래 펼쳐지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매일 밤마다 달빛 아래에서 참선, 부처님 닮은 걸음배우기, 차 마시기, 송편 빚기 등을 대중스님들과 함께 한다.

또한 선원장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의 십우도강좌, 불교기초교리 등의 특강과 법문이 이어지며 산내 암자를 순례한다. (061)782-7600 이준엽 기자

“격식 갖춘 사찰음식 맛있네”

광주 광제사, 천일기도 회향 ‘공양’



도심사찰에서 열린 작은 공양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9월 2일, 광주 양동시장 옆 도심 속에 자리한 광제사(주지 석두) 법당 앞마당에서 열린 점심공양(사진). 2003년 광제사 개원과 함께 시작한 천일기도 회향일로 지역사암 스님과 불자, 주민 등 100여명이 초청됐다. 광제사 신도회가 기도 회향을 기념해 인연있는 이들과 사찰음식을 나누고자 했던 것이다.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도 신도회가 마련한 다채로운 사찰음식과 연차를 맛보며 기도 뒷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공양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당 앞마당에서 여유롭게 공양을 하다보니 사찰 음식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격식을 갖춘 야외공양이 새로운 사찰 공양문화로 보급되기를 희망했다.

주지 석두 스님은 “사찰이 특정한 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마을회관 같은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지상중계 – 원각사 재가논강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❹선정 바라밀

호남 최초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에서 열리는 재가논강. 회가 거듭될수록 불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논강이 9월 1일 ‘선정 바라밀’을 주제로 진행됐다. 논주로 나선 박건주 전남대 교수(사진)는 “속세의 번잡함 속에서 얻은 선정의 힘은 더욱 값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속세에 사는 재가자일수록 용맹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속서 얻은 선정이 더 큰힘 발휘”

박건주 교수(전남대)는 “대승불교에서 선정은 지혜와 함께 바라밀의 최상에 위치하며, 수행을 통해 맛을 보아야 제대로 논할 수 있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특히 “재가자들이 선정을 수행자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멀리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리이타(自利利他) 보살행은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속의 번잡함 속에서 얻는 선정의 힘이야말로 조용한 산 속에서 홀로 닦아 얻는 선정의 힘보다 세배나 더 큰 힘을 얻는다”며 “재가자도 현재 처한 각자의 여건에 따라 경론의 가르침을 열심히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현실사회의 여러 변화에 대응하는 법도 경론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현실에 적응하는 변용의 기술을 갖게 되어 자연히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선정의 성취를 위해 애쓰다보면 자칫 삿된 길로 빠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며, 선정과 선법을 체계화시킨 중국 천태지의 대사(538~597)가 정리한, 선정 수행자들이 경계해야 할 10가지를 소개했다.

△이익을 얻기 위해 △명예와 칭찬을 얻기 위해 △권속을 위해 △남을 이기려는 마음으로 △악도의 과보를 두려워하여 △선심 안락을 위해 △세력과 자재함을 얻기 위해 △지혜를 빨리 얻고자 △범천에 태어나고자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고자 발심 수행하는 것은 선정바라밀법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바른 좌선과 선정을 이야기하며 “마음에 생각 일어나지 않음을 이름하여 좌(坐)라 하고, 안으로 자성이 부동함을 보는 것을 선(禪)이라 한다. 밖으로 상을 떠남을 선이라 하고, 안으로 마음이 산란하지 않음을 정(定)이라 한다. 모든 경계를 보더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 이것이 참다운 정이다”고 설한 혜능 스님의 <육조단경>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한 토론자는 “참선 수행하는 과정에서 병을 얻어 병원을 찾는 수행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선을 제대로 하기보다 흉내만 내다보니 상기병, 위장병 등 각종 병을 얻는다”며 “선수행을 지도할 선지식이 없는 것은 아닌가”고 반문했다.

또 다른 청중은 “재가자를 위한 선정바라밀 수행으로 ‘참회(懺悔)’를 제안한다”며 “참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는 다시는 잘못을 짓지 않는 것으로 매일 참회정진을 할 때 결국 참회 할 것이 없어지고 보살도를 이루어 궁극에 성불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질의 응답

▲선정을 닦는데 꼭 참선 수행만 해야 하는가?

– 불교수행은 곧 마음수행이다. 참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참선뿐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다. 선지식들은 간경, 주력 등 모두를 선이라 했다.

정리=이준엽 기자

다음주 재가논강 - ‘지계’
일시: 9월 15일(오후 7시)
논주: 지현 스님(송광사 율원장)
장소: 광주 원각사 법당
(062-223-3168)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혜담지상 스님

방거사어록강설

“신통이니 묘용이니 무엇을 말하는가(神通幷妙用)?
물 긷고 나무 나르는 일 바로 그것인 것을(運水與搬柴).”



‘중국의 유마거사’라고 불리는 방거사. 간화선의 주창자인 대혜 스님이 『서장(書狀)』에서 방거사의 임종게(臨終偈)를 극찬한 까닭은 무엇일까? 임제선의 정맥을 잇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불교에서 왜 1,200년 동안 『방거사어록』을 한 번도 간행하지 못했을까?
방거사의 입멸 1,200주년을 2년 앞둔 2006년, 강설을 맡은 혜담지상 스님은 『방거사 어록』을 통해 방거사와 당시의 선풍이 우리시대와 한국불교사에 올바로 조명되기를 바란다.
『방거사 어록 강설』은 오늘날 교계에서 일고 있는 간화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앞서 참선(參禪) 본래의 참구법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국판 양장본|328쪽 | 값 15,000원

● 혜담지상(慧潭至常) 스님|1949년 경남 울산에서 출생,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득도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해군 군종법사 대위로 전역,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선우도량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경기도 검단산 각화사 주지,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소임을 맡고 있다. 역저서에 『대품 마하반야바라밀경 상·하』, 『반야경의 신앙』, 『반야불교신행론』, 『신반야심경 강의』,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등이 있다.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02)420-3200, http//www.bulkwang.org 불광출판부

동산불교대학(2년)
불교장례문화학과 신입생 모집

장례지도사 양성

1. 개설취지
장례문화학과는 불교의 생사관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장묘문화, 상장의례, 장묘제도, 장의와 관련된 직무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 연구하게 됩니다. 장례는 단순히 사후처리가 아니라 가장 종교적인 의식행위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2. 교과목

과 정	과 목	
1 년	· 장례학개론 · 상장례민속학/역사 · 종교와 불교 · 실습	· 장묘관련법규 · 장사법위주 · 실습
2 년	· 공중보건학 · 장례식장경영론 · 환경과 풍수지리 · 실습	· 시신위생처리및 관리학 · 현행 장묘제도의 제반적고찰 · 불교정토학 · 실습

3. 일 시
2006년 9월 접수중(매주화요일오후7시)

※특전:2년과정 수료후 불교장례지도사 자격증 수여

동산불교대학원(3년)
범본 금강경 대강좌

초기 대승경전의 산스크리트본 원전강독

1. 개설취지
초기대승경전중 반야부의 핵심인 반야심경, 금강경을 산스크리트원전 해석을 통하여 대승사상의 새로운 이해와 반야지혜를 증득하여 사회정의구현을 실천할 불교지도자 육성 경전강독과정입니다.


최봉수 교수

2. 교과목

과 정	과 목	교 수
근본불교학과 (목)	금강경(Ⅰ), 금강경(Ⅱ)	최봉수교수
불교학과 (월,화)	선사상	김호귀교수
	8천송 반야경	김형준교수

3. 개강일시
2006년 10월 12일(목) 오후4시

※특전:3년과정 수료후 전법사 자격증 수여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 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태고종 총무원 - 선암사 '운영권' 등으로 갈등

물리적 충돌 위기 넘겨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이 선암사의 운영권과 말사인 도선암 재산권 등의 문제로 총림인 순천 선암사와 극한 대립을 보이며 물리적 충돌 위기까지 갔다.

사태의 발단은 태고종 총무원이 8월 30일 선암사 주지에 대해 행자 교육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해종'이라며 승려 자격정지를 의미하는 정적 및 주지 해임을 통지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선암사 재적승들은 다음 날인 9월 1일 전산대회(총회)를 열고 선암사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총무원측의 '운영위원회법' 무효를 주장하며 자주권 수호운동을 결의했다

이후 선암사 측은 9월 3일 순천경찰서에 시설보호를 요청했고 당일 낮 12시부터 경찰병력 2개중대가 사찰 입구를 막고 선암사 대중 이외의 출입을 제한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한 4일 오후 2



9월 4일 선암사 매표소 앞에서 선암사 대중스님과 신도 100여명이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선암사측의 시설보호 요청으로 경찰 2개 중대가 배치돼 일반인의 출입을 막았다.

행자 합동득도법회 잠정 연기
도선암 재산권 문제 등 불씨 남아
완전타결 장기간 소요될 듯

시부터는 선암사 대중 스님과 신도 100여명이 선암사 매표소 앞에서 철문을 굳게 닫고 "선암사 운영은 재적승에게 있다"며 △총무원의 선암사 운영 음모 중단 △도선암을 비롯한 선암사 재산 반환 △행자교육 연기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같은 선암사 대중의 산문앞 단체행동으로 사실상 선암사 참배가 어려운 가운데 윤달을 맞아 삼사순례차 선암사를 찾은 다수의 참배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태고종 총무원은 9월 4일 종단 원로 중진 및 전국 각시도 종무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행자 합동득도 수계산림법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의해 충돌은 일단 비켜가게 됐다.

종회의장 인공 스님 등 참석자들은 "행자 득도 교육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총무원과 선암사간에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종도간에 충돌이 일어나면 종단뿐 아니라 불교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입을 모아, 합동득도 법회가 연기됐다.

회의가 끝난뒤에는 태고종 원로와 각 기관 간부 스님들이 종단과 선암사의 중단없는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종단발전을 위해 총무원과 선암사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협력관계가 돼야한다"고 천명하고 △총무원과 선암사는 각각의 역할분담으로 종권수호와 그릇된 관행, 제도를 과감히 개선 할 것 △편견을 가진 일부 선암사 재적승들은 정견을 가지고 종단과 화합하도록 노력하며 이번 갈등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할 것 △해종행위자는 퇴출하고 총림질서 회복할 것 등을 결의했다.

총무원측의 법회 연기 결정으로 이번 선암사 사태는 일단 별 충돌없이 끝났다. 하지만 선암사측은 여전히 자주권을 주장하며, 도선암을 비롯한 선암사 재산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어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선암사 경담 스님은 "선암사 운영에 자주권을 주지않고 종단이 계속 관여하겠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선암사측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선암사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종단과 합리적으로 협상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담 스님은 "선암사를 자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월 7일자로 조직개편을 새롭게 했다"며 "재적승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율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선암사 중진 스님들이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를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종도들에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알림과 동시에 핵심주동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준엽 · 김주일 기자

■ '선암사 사태'에 대한 양측 입장

◆선암사 운영문제

▲선암사 : 현 운산 총무원장은 2000년 제19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암사 운영권을 재적승들에게 돌려준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7일 총무원 주도로 후임 주지를 선출하려다 이를 알고 소집된 선암사 재적승의 방해로 무산되자, 같은해 12월 2일 중앙종회를 소집해 선암사 총림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선암사를 강제 운영했다.

▲총무원 : 2004년 12월 중앙종회에서 태고총림 선암사법을 개정해 선암사 재적승에게 운영권을 분명히 돌려줬다. 선암사법 개정골자를 살펴보면 선암사 주지는 반드시 선암사 재적승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해 태고총림이 재적승 위주로 자체운영하도록 했다.

◆선암사 말사 도선암 재산 환수 문제

▲선암사 : 말사인 도선암을 불법으로 운산 총무원장 스님의 재단인 태고원에 불법등기 이전했다. 또한 선암사의 운영위원회나 전산대회 등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더욱이 선암사 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도 모르게 2003년 이전했으며, 선암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월권을 저질렀다.

선암사 "도선암, 태고원서 불법등기"
총무원 "소유권과 관리주체는 달라"

▲총무원 : 태고종은 사찰관리제도를 조계종처럼 본말사 제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찰재산의 소유권 등기는 독립된 해당 사찰 명의로 되어 있다. 도선암 재산은 민법과 종헌종법에 의해 도선암 대표인 주지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 현 주지 승조 스님이 종헌종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처리했기에 불법이 아니다.



법당이 확~ 넓어졌어요

한 비구니스님의 원력으로 작고 낡은 법당을 장병들이 편하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내무반을 개조한 넓은 법당으로 이전 개원해 화제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6포병여단 예하 999대대 범음사 포교당은 9월 2일 해남 대흥사 도공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점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범음사 포교당은 원래 영내 가장 외진 곳에 5평 남짓 창고를 개조해 법당으로 사용해 왔으나 비구니 호택 스님이 11년간의 노력으로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20여평 규모의 내무반을 개조해 이번에 이전하게 됐다.

이동욱 6포병여단장은 이날 법회에서 "장병들의 신앙전력화를 위해 부처님의 도량이 이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부대의 안녕과 장병들의 밝은 군생활을 위해 좋은 공간이 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호택 스님의 원력으로 경기도 연천 범음사 포교당은 9월 2일 부처님 점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장병들의 안식처로 거듭났다. 사진 오른쪽 첫번째가 호택 스님.

범음사 포교당, 내무반 개조해 이전
비구니 호택 스님 11년 노력 결실
"아직 난방시설 못 갖춰 겨울이 걱정"

호택 스님은 6포병여단 법음사를 비롯해 예하 10개 법당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비구니스님. 범음사에 상주하며 10개 군법당을 매월 한두차례 직접 방문, 법회를 주관하는 등 군포교에 전력하고 있다.

20년 전 어렵게 법회를 보는 군법당의 사정을 접하고 시작한 군법당 법회 지원이 지금은 스님의 전부가 되었다. 군법당을 운영하다보니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이번 범음사 포교당도 스님의 승가대학 도반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해 이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해 스님은 겨울철 장병들이 추위에 떨것을 걱정하고 있다.

호택 스님은 "도반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법당을 이전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보다 많은 장병들이 이곳 법당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군생활을 잘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김두식 기자

무량회, 향로암 위문
간식 · 부모은중경 등 전달



대한불교 무량회(회장 박원희)는 9월 3일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향로암 위문을 다녀왔다. 이날 10여명의 회원들이 김밥 250줄을 비롯해 초코파이, 음료수, 부모은중경 등 푸짐한 위문품을 장병들에게 전달했다(사진).

이날 초청강사로 참석한 前 불교신문 양범수 편집국장은 "부처님 믿는 마음 변치 말고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량회는 지난 1996년 조계종 자원봉사센터 산하 봉사단체로 출범해 10년동안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2006년 한국불교박람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최대규모의 전시회와 함께 하고 싶다면
불교계의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을 원한다면

2007한국불교박람회에 참여하십시오

2007한국불교박람회 2007. 3. 22 ~ 25 / 서울무역전시장
문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TEL 02)2004-8213~9 www.bexpo.org

대구BBS 개국 10주년 기념 공연
창작 뮤지컬 갓바위!!
9월 25일 · 26일 / 여의도 KBS홀
사랑과 효, 그리고 적대감독!!
입장권 예매 02-739-7837 www.interpark.com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두 팔이 없는 지체장애인 '황양광' 씨와 32명의 청각장애인이 함께 펼치는 군무 '양묘칭칭'. 황씨와 무용수들은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하지만 완벽한 호흡으로 화려한 군무를 펼쳐 감동을 준다. '양묘칭칭'은 고향에서 두 발만으로 밭을 갈고 농사를 해 온 황씨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국국가장애인예술단 프리마돈나 태려화(맨 앞)씨가 21명의 청각장애인을 이끌고 '천수관음' 춤을 추고 있다.


화려한 의상과 춤으로 사랑의 기쁨을 표현한 '나비'.


시각장애인들이 중국민요를 연주하고 있다.


백반증을 앓고 있는 연주가 위위양이 공연전 무대 뒤에서 책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국가장애인예술단 '마이 드림' 공연 현장



건반에 피가 흥건하도록 피아노 치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발을 손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며 춤추는 지체장애 무용수, 이들이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꿈'을 향한 집념의 결과다

9월 5일 오후 6시 서울 장충체육관. 조금 뒤면 공연이 시작된다. 무대 뒤 분장실은 공연직전의 여느 분장실과 다를 바 없이 분주하다. 배우들은 의상을 갈아입고 화장하느라 여념 없고, 무대 스텝과 무용수들, 화환을 들고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복도가 붐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고함과 말소리 대신에 분주하게 수화를 나누는 손동작이 오간다는 것이다. 날렵하게 천수관음의상을 차려입은 무용수들은 모두 청각장애인이다. 중국전통악기를 조율하는 악사들은 시각장애인이고, 소품을 능숙하게 두 발로 옮기는 배우는 지체장애인이다.

한국 450만 장애인에게 보내는 감동의 대서사 드라마

단원 모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한 공연을 보여준 '중국국가장애인예술단'. 세계 40여개국을 순회공연하고 있는 예술단이 한국땅을 두 번째 방문했다. 예술단이 9월3~5일 펼친 공연 '마이 드림(My Dream · 我的夢)'은 한국의 450만 장애인에게 보내는 한 편의 서사드라마다.

건반에 피가 흥건하도록 피아노를 두드리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단 한 번도 글을 읽은 적이 없지만 탁월한 기억력으로 유창하게 외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시각장애인 가수, 손처럼 자유자재로 발을 다루며 춤을 추는 지체장애인 무용수. 이들이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꿈'을 향한 집념의 결과다.

예술단의 주연배우 태려화(30)씨가 바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지난해 중국 남방인물 주간지가 선정한 '중화권 매력인물 50인'에 선정될 정도로 탁월한 미모와 능력을 지닌 여성이지만 두 살 때 청각을 잃은 이후 침묵의 세계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15살이 되던 1991년 예술단에 입단, 매일 14시간씩 혹독하게 춤을 췄다. 들을 수 없는 음악의 진동을 느끼기 위해 매번 증폭스피커에 귀를 대는 통에 결국 고막이 망가져 버렸다.

그녀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춤을 추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라며 "최고의 아름다움에는 장애도 장애가 될 수 없다"고 고백했다.

21명의 청각장애인 무용수들을 이끌고 추는 '천수관음' 춤 역시 '꿈'에 대한 열망을 그리고 있다. "꿈을 향해 노력하면 인생은 공평하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는 사실을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며 수화를 하는 그녀의 팔목에는 합장주 두 개가 채워져 있다.

다섯 살 때 두 팔을 고압전기에 잃은 무용수 황양광(29)씨 역시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광서성 농촌마을에서 '자강자립(自强自立)'을 가슴 속에 새기고 스스로 두 발만으로 밭을 갈고 천을 직조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꿈을 잃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고 춤을 배운 끝에 예술단에 발탁된 황씨는 "장애는 내게 벽이 되지 않으며,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살아온 행운아"라며 웃음 지었다.

"꿈 잃지 않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농촌생활을 목가적 춤으로 표현한 '양묘칭칭'이라는 군무를 무대에 올리고 있다. 두팔이 없는 지체장애인 황씨가 32명의 청각장애인 백댄서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기까지는 험난한 역경을 무수히 넘어야 했다.

백댄서들은 황씨의 말을 듣지 못하고, 황씨는 백댄서에게 자신의 의지를 수화로 전달할 두 팔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완벽한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몇 번이고 연습을 거듭한다.

각 단원 한 사람 당 두 명의 특수 무용가가 보조해 장애조건에 맞는 연습을 하도록 돕고 있지만, 공연이 가능한 가장 큰 동력은 이들의 '열정'이다.

공연 제목이 '나의 꿈(My Dream)'인 이유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장애인에게든 비장애인에게든 인생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장애인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모든 이들은 각자의 꿈과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서게 했던 '나의 꿈'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중국국가장애인예술단은

등소평 전 중국 국가주석의 장남인 등박방(鄧樸方)이 1987년 창단한 국가지원 예술단이다. 중국 전역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선발된 12~33세의 시각 · 청각 · 정신지체 장애인 80여명으로 구성돼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40여 개 국 정상들 앞에서 공연을 펼치며 찬사를 받았다.

공연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카네기홀과 이탈리아 스카라 대극장에서도 공연을 올린 바 있으며 장애인으로선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화시장에 진입한 특수예술공연단이다.

중국에는 6천만 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이들 중 경연대회의 좁은문을 통과해, 정상을 향한 혹독한 연습을 버티는 이들은 극소수. 때문에 예술단원들은 "꿈을 향한 열정이 강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며 "꿈이야말로 유일한 입단조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 뒷면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최근 '사찰경영'이라는 말이 관심을 모을 만큼 불교와 경영, 경제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1980년대 등장한 불교경제학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시도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기업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성과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CEO의 경영철학이 기업성공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CEO, 사찰서 만나다' 기획의 네번째 주인공은 최재동 VA컨설팅 대표이사. 최 대표이사를 9월 6일 서울 봉은사에서 만나 불교경영과 불자CEO의 역할, 경영의 사회적 회향에 대해 들었다.


서울 봉은사에서 만난 최재동 AV컨설팅 대표이사는 "CEO는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버는 것도 쓰는 것도 '法대로'

최재동 VA컨설팅 대표이사

▷원만한 인간관계야말로 경영의 '밑천'

모든 CEO는 '이윤 창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경영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이윤 창출은 곧 경영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최재동 대표이사는 경영활동에서 경영의 가치를 높이는, Value Adding의 답을 찾는 CEO다.

1996년, 30년간 일해온 현대그룹을 떠난 최재동 대표이사는 이후 전문CEO의 길을 걸었다. VA컨설팅을 비롯해 프라이빗뱅킹, 아웃소싱업체 등 4개 회사를 설립한 것. 불교에 기반한 경영에 눈을 뜬 것도 이때의 일이다.

최재동 대표의 아이디어 연구실은 법당이다. 법당에서 바르게 앉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면 법당을 찾는다.

최재동 대표이사가 오랜 경영활동에서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은 직원들에 대한 신뢰와 도덕경영이다. 도덕성과 신뢰에서 강한 리더십이 나오고, 이는 곧 최고의사결정자인 CEO의 권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은 동료간 또는 상하간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CEO는 인간관계를 활용한 경영을 해야 합니다. 굳이 경영에서뿐만이 아니고 도덕성과 신뢰는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열쇠입니다."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도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화두다. 끊임없는 동기부여는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저 그런' 월급쟁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최재동 대표이사도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직장을 단순히 일하고 돈 받는 곳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상사의 조언이 큰 힘이 됐다.

▷공부 · 일…끝없는 배움의 열정

최재동 대표는 운영하던 회사를 VA컨설팅만을 남기고 지난해 모두 분사시켰다. 인생을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얻은 결론이었다. 곧바로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불교대학에 접수했고, 나이든 이들에게 베풀 침술과 뜸 기술을 일부러 배웠다. 불교공부와 봉사를 회향의 길로 선택한 것이다.

"지금까지 누릴만한건 모두 누렸으니 회향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회향만큼 삶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는 최재동 대표이사의 큰 장점이다. 이곳저곳 강의실을 찾는 그를 부인은 '연구대상'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지금도 부족할 것 하나 없는데 일부러 일거리를 찾아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어 떠올리거나 중요결정 내릴땐 법당 찾아
"회향할 수 있다는 것 살면서 얻은 최고 가치"

최재동 대표이사는 일주일에 다섯 번씩 절을 찾을 만큼 열성적으로 불교를 공부한다. 봉사활동에도 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좋아서 가는 것이지만 불교를 배울수록 안타까움도 크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뚜렷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무엇보다 돈을 벌고 쓰는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한다.

"돈 없이 살기 힘든 현대사회에서 무조건 욕심을 버리라는 가르침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듭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교리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불자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할지 불교가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글=박봉영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최재동 대표이사는

1942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공채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30년간 현대건설 이사, 현대산업개발 상무, 전무로 일했다.

96년 퇴임후 VA컨설팅 등 4개 기업을 창업해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봉은사 신도회(청정공덕회) 지도위원이며, 9월 3일 조계종 포교사 자격을 품수했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가격 : 350,000원 (종틀 포함)

에밀레 법당종

에밀레 법당종(3관)은 지금까지 제작된 3관형 범종 가운데 가장 정교한 제품으로, 실제 에밀레종 탁본을 토대로 실물에 가장 가깝게 조각했습니다. 법당내에서 사용 종이며, 한국불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선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직경 215mm, 높이 350mm 크기입니다.

붇다의 경제학 (17)

왜 불교경영인가?

우리 사회가 기업이라는 존재를 용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이 인간과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저에는 우리 인간의 행복이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활동은 우리의 경제적 조건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현대의 기업 활동은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과연 기업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 도움만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마냥 찬양만 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며, 그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현대 경영사상에서 비롯된다.

무한 경쟁시대 고객이 필요하다면 '뭐든지'
이익만 급급 자본주의 시스템은 위기 초래할 수도
윤리적 경영 통한 구성원 행복 극대화 지향해야

현대 경영사상은 이익극대화, 경쟁, 고객만족경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업경영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인 이익의 극대화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해야 하고, 고객이 필요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정신이 현대의 경영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 경영사상은 불교의 정신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전체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고려치 않으며,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타락을 초래하는 활동마저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아무 대책 없이 맡길 수는 없다. 불교정신에 입각한 윤리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심각한 위기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

불교경영과 불교경영학이라는 용어는 아직 불교계에 매우 생소한 말이다. 물론 경영학계에서조차 매우 낯선 개념들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서양의 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내놓은 연구성과도 아직은 매우 미미하다.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구촌이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은 불교경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기업경영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데는 많은 선구적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영에 유독 '불교'를 붙여 불교경영이라 이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불교경영이 일반적인 경영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교경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복의 극대화가 경영의 목표이며,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경영의 과정이 윤리적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주를 포함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 곧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행복이 존재하며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행복들이 희생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는 현대의 경영사상이 이익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불교경영은 행복의 극대화를 지향한다.

행복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활동을 한다. 아무리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

또한 불교경영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 철저하게 윤리적일 것을 요구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윤리적이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바다 이야기'도 경영자들, 관료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불교경영사상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면 절대로 바다 밖으로 나올 일이 없었을 것이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세로 88cm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

수 월 관 음 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함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4도 판화와 베틀린 왁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플레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앞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 어 해 설

●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 (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롱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물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물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광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면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무각닷컴 사주클럽
격국을 잡아야 용신이 보입니다.
사주가 늘지 않는 분 직접 사주를 풀면서 용신분석 강의 지방계신 분들도 인터넷 강의와 문제지 매주 발송
초보 6개월 완성 월 10만 파격가
전화상담(만원), 방문상담(이만원)
02)831-2202/ 019-838-6908
www.mukak.com

육임입문 출간기념
육임학 특강
■역학의 공식화, 쉬운 학습
■최고의 길흉적중율, 검증된 정확성
■강태공 · 제갈공명 애용 역학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數(수)修理(수리) 사주팔자
● 천체의 이동에 따른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1년이 360일이 되며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니 기존의 달력이 새달력으로 바뀌며 周易(주역) 다음으로 제 3역인 교易(정역)으로 쓰인다.(일부김항선생의 정역편에서 발췌)
•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기본적) 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
• 숫자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 교재) 수수리수인작법서 무료증 (시중에 절판된 책)
수강처 : 031)633-151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阿彌陀佛
축원문카드관리는 기본, 신도증발행 및 바코드 마그네틱카드사용가능, 전화걸기 기능, 이메일전송, 축원문카드내에 신도사진 첨부기능과 지속적인 무료업그레이드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31)746-1560
www.10879.com

범음범패 의식 해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바라나비	사	각종의식
안	49재			출	물	
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기공지도자
전 문 과 정
수련생모집
행자모집
대한불교전통기공협회
051)852-2277
016-551-9700

천수 바라춤, 오공양작법(나비춤)
(살풀이, 극락춤, 승무, 지전춤, 연화무)
여법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사찰의 모든 대소 행사를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정원빌딩
051)515-7865
019-502-8868
바라춤, 나비춤 수강생 모집 中

행자모집 (예비스님)
참신하고 불심이 돈독한 (女)행자를 모집합니다
연령: 45세 미만 여성
사단법인 대한불교 흥은선원 흥은사
054)822-3133
011-9576-4450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 22,2평형 - 3세대
■ 18평형 - 3세대
■ 14평형 - 5세대
} 총 잔여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문의전화 : 054)772-7171
011-538-3879

사주 명리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군위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2-4569
016-717-1592

제 24기 풍수지리 사주학교육생모집
● 강사: 임창열(배재대, 서라벌대출강)
● 풍수지리: 매주 화, 금(10시, 14시 ,19 시)
● 사주학: 매주 월, 목 (10시, 14시 ,19시)
http://www.kpse.co.kr
042)255-8482
011-437-8807
한국정통풍수지리교육원

당뇨로 고생하시는
대덕스님들께 소승이 순수식물로 3개월 복용 후 거의 정상수치로 돌아온 바 (서른분 정도 효과)
스님들분께만 1개월 무료 보시합니다
일반인 절대 전화 사절(비매품)
도허 합장
010-8669-3020

충주 청계산 청룡사 토종꿀 판 매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100%환불함
043)855-8856
011-9426-885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545-6531

평생 같이하실 처사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5~65세
018-427-2256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 경기도 김포
011-688-66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212-98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5~65세
053)632-3844
010-4560-66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가능자 / 경주
이, 사, 주 채용신체검사서지참 내사요망
011-266-284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대구지역 조계종 사찰
053)313-5908

부전스님 모십니다
▷ 원주 백운산 운계사
033)763-6355
033)763-635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부산 관음정사
051)758-8779
011-288-6232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 40~50세
051)542-4848
011-511-1719

후원 보살님 모십니다
▷ 경주
054) 772-4133

기도스님 모십니다
▷ 재 의식 가능하신 조계종 스님
공양주 보살님
▷ 60세 이하 모십니다
전북 고창
063)564-2861

신심있는 공양주를 모십니다
▷ 울산 중구 태화동
052)212-1083
011-861-43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예천
011-336-4665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복지 사업에 뜻이 있으며 운영 경험 있으신 스님,거사님 및 보살님 연락주십시오. 산사에 건물과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사업에 뜻은 있으나 경험이 없습니다.
위치는 경기 안성 근교
011-9871-0466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토굴이나 작은암자 전세나 월세 구합니다
011-9345-9753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개인이나 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을 책임지고 운영하겠습니다
▷ 50대 후반 비구승
010-4602-4916

불심 영혼 안장법 전수
(전국 최초 사부대중 7명 한정 접수)
● 궁중비법 사주명리 ——— 운명
● 환경유해파(수맥) ——— 건강
● 풍수 ——— 조상
상기 교육 이수 후 「불심영혼 안장법」 전수(숙식가능)
문의처 : 054)977-8865. 010-7710-7875
후원 (사)대한불교사주명리연구학회
(사)한국불교문화진흥원 환경 유해파연구학회
금강불심사(대각스님 직접 개인지도)

사찰(급)안내
● 위치: 충청북도 보은
● 법당, 요사채, 용궁, 전답, 임야
● 신의와 믿음으로 남은여생 기도하며 살아가실 스님, 거사님, 보살님모십니다
● 가액: 전세 2200만원
018-406-3073

암자안내
● 위치: 양산 신도시. 교통요지
● 아파트 대단지 입주 예정 ,비구스님, 일반인. 천하명당터
● 요사1. 조립식 법당 1,지하수, 심야 전지, 기타 시설완비
● 평수: 148평
● 가액: 3억 5천(답사 후 절충)
011-9521-5577

지리산토굴. 암자안내
● 대지: 430평, 목조법당 20평
● 요사: 20평, 공양간 7평
● 비구니 스님 토굴로 매우 적당함
● 가액: 9천 5백만원
055)972-4018/010-7179-3699

암자(임법당)안내
● 위치: 충남 온양 (터미널 부근)
● 평수 : 대지 60평, 건평 30평
● 법당, 방2개, 주방, 시설완비
● 가액: 전세1700만원
시설비:상담 후 결정, 주변 조용함
041)533-0853/010-8519-0853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E-2 비자나. 자녀교육으로, 미국에 오시고 싶으신 분
저는 미국 LA 카우니 쎄래토스시에서 2000sq 면적의 아주 예쁘고 위치 좋은 스킨케어 샵을 운영하고있는 보현행보살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려합니다 소중히 가꾸어 자리잡은 저의 샵에 주인을 찾습니다. 이곳은 학군이 아주좋은 지역이므로 자녀들 유학이나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도 좋은 조건입니다.
홈페이지(www.vivantjoiecerritos.com)나 email: jheo69@hotmail.com 방문하시고 저의쎌폰 미국 213-327-4374 / 샵 562-403-2228으로 연락주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좋은 정보입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총무원 행정실 ·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054)464-4725, 4735/010-7302-0077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 2~3일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
태아영가천도
마음이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분
태아영가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향 : 2006년 10월 28일 토요일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능엄신주 해석 독송기도
대학입시합격기도
입시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자녀교육문제
자녀탈선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사법 행정고시 각종 취업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권하 하지 않습니다.
www.10cho-unse.com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 암 모 집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본 종단 종지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 함
● 종 정 대 행 : 각 암 ● 원 로 의 장 : 청 산
● 중앙종회의장 : 무 원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원 삼보선원 : 정 산 (011-421-4688)
● 서울 교구 극락사 : 해 성 (016-266-4874)
● 경기도 교구 각원사 : 혜 일 (010-3033-2363)
● 충북 교구 용원사 : 무 원 (011-272-9451)
● 경북 교구 대원사 : 범 아 (017-507-8825)
● 대구 교구 관음사 : 향 운 (011-9988-1798)
● 울산 교구 관음정사 : 호 암 (050-2378-2378)
● 경남 교구 황룡사 : 정 도 (010-5603-2833)
● 부산 교구 불심원 : 무 안 (010-9611-0384)
● 중앙연수원 팔공사 : 혜 명 (016-9396-4402)
※ 각 사암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총무원 및 각 교구 종무원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포천 ● 위치: 충북충주 ● 위치: 마산
● 법당: 22평 ● 법당: 23평 ● 법당: 17평
● 요사: 13평 ● 요사: 61평 ● 요사: 32평
● 부지: 134평 ● 부지: 2000평 ● 부지: 100평
● 가액: 2억 2천 ● 가액: 6억 ● 가액: 2억 6500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 관악구포교당-월 85
2. 서울명산목조사찰-6억
3. 서울산속사찰만평-20억
4. 서울국유지사찰-10억
5. 강남포교당100평-월 300
6. 은평구포교당-40평-월 50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토굴안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토굴안내
● 위치: 충남 홍성 광천읍
● 건평: 50평
● 대지: 200평 전: 30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1-425-6054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대명동 구남여상 굿모닝병원 중간 대로면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42평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900만원
010-3191-623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 위치: 강릉
● 부지: 약120평 ● 부지: 약1천평
● 법당: 24평 ● 법당: 25평
● 요사: 24평 ● 요사: 25평
● 가액: 6억 ● 가액: 5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삼소 (구,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굴안내
● 비구니 스님 적합
● 위치: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105평
● 가액: 1천 9백만원
010-7207-3323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2층건물 . 위치 좋음
● 법당 2층 28평, 요사채 1층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용왕당有,지하수
실내 화장실 2, 실외 2,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융자 4천 포함) 절충가능
011-226-28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110평, 법당 40평
● 시설 : 주지실, 종무소 1층 -공양간, 창고. 2층- 요사채
● 특징 : 도심속의 기도와 포교도량
● 가액 : 급 양도 3억 3천만원
011-9853-3843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산세수려, 전망최고
● 평수 : 700평
● 대웅전,요사채,산신각(목조), 나한전, 용왕당, 미륵당, 스님진견실등 집기일체 완비
● 즉시법회 가능, 주차장완비
● 가액 : 4억5천(절충가능)
055)973-5054
011-863-0622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 위치: 경기
● 대지: 200평 ● 대지: 약250평
● 법당: 약 25평 ● 법당: 약30평
● 요사30평,산신각,용왕전 ● 요사: 약60평
● 가액: 4억 3천 ● 가액: 3억
교통편리복지시설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당진군 면천면 (아미산 최고의 명당)
● 평수: 10,000평 중 종교부지 600평 허가득
● 가액: 16억원
● 건물: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동 국유지 600평 주차장 사용중
● 당진읍에서 10분거리 진입로 4미터 포장됨
연락 : 011-329-8412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4층 건물 중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가격절충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8676-69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 부산은행 앞
● 평수 : 총 70평 법당 35평, 요사 35평 복재 인테리어 최고의 설비와 안정된 여건 환경
● 보증금 5,000만원, 월50만(전세가능) 시설비 : 2,000만원
011-307-3473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근교
● 평수 : 목조 20평 요사채 43평
● 땅부지: 550평
● 가액 : 4억 6천만원
● 용왕당, 산신각 모두 되 있음
010-2300-2209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 황토기와집 55평, 창고 10평
● 특징: 집 옆으로 개울이 흐르고 집뒤에 솔 숲.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5억 3천
017-432-3663

사 찰 안 내
●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고속도로 횡성IC, 새말 IC 20분
● 대지 500평(미등기 1,000평) 법당 30평(2층 1층 요사, 2층 법당) 요사채 70평, 산신각
● 가액: 3억(절충가능)
010-7211-50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시-아파트 밀집지역
● 건물 : 지하 1층, 지상 2층 1층은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전세 1억 (절충가능)
● 비구니스님 환영/즉시 법회 가능
011-9503-3442

사찰부지및수목장
(기도원, 연수원, 수목장)
● 위치: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립공원 대둔산 인근, 대전에서30분
● 면적: 7만 3천평
● 가액: 평당 1만원/ 주인직거래
● 이용가치: 사찰부지 및 수목장 최적지 (수목 울창한 청정계곡 . 포장도, 차량진입)
017-405-1554
야간10시 이후 042)522-25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읍 5분거리
● 대지: 560평 법당 24평(목조), 산신각 5평(목조)
● 가액: 3억 1천만원 (절충가능)
031)771-5780
011-9090-1665

사찰(토굴)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 신북면
● 포천시내 5분거리
● 평수 : 등기 200평 (총 400평 하천부지 사용)
● 조립식 법당 20평, 요사 60평 방2개,사랑채15평,방1개,상담실1개
● 서울에서 40분거리. 차량진입가능
● 집기일체 양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9천 7백만원
010-7474-0108
016-254-179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의정부 역 앞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 평수 60평, 법당30평 방3개, 거실, 화장실 샤워장, 옥상 사용
● 가액 : 2,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529-254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소재
● 총평수: 416평 田 88坪
● 건물: 3동 60평
● 가액: 3억 5천 (절충가능)
010-3542-3203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과 상주 국도 중간지점
● 대지 120평, 건평25평 임법당, 삼존불, 각종 탱화 방2칸, 주방1칸, 텃밭, 주차공간
● 가액 : 4천5백만원
010-8675-58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소재 (서울 30분 거리)
● 대지: 175평, 법당 30평
● 요사채 현대식 (2층건물)
● 가액: 3억 2천 만원
● 특징: 산과 도심이 어울리는 전망좋고 교통편리한 곳입니다
016-510-345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 도봉구 방학동
● 건물: 25평
● 삼존불 탱화시설완비
● 가액: 전세 2800만원
●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8-315-0108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
● 평수 : 대지 198평
● 건물 : 임법당 부처님 및 집기일체
● 가액: 5500만원
011-653-7801

암 자 안 내
● 위치: 아산시 대방면 호서대 근처 천안에서 20분거리 온양에서 20분거리
● 산신각 4평, 법당 15평 요사채 50평
● 사용할 수 있는 부지 3백평
● 옷샘, 약물
● 가액: 8천 5백만원
010-2000-5809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시 문산
● 산세수려한 곳
● 법당1, 방3개
● 전세, 매매 가능함
055)761-8998
011-870-649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 대지: 170평, 법당: 25평
● 요사 2동, 산신각, 주차시설 약 10대
● 사용평수: 약 1천평 부전스님 모심
● 가액: 4억원
010-8529-0863

김해,경남,마산지역 사찰 원함
주택 1억 5천짜리 소유, 윗돈 얹어서 3억 미만 사찰 맞교환 원합니다
051)556-4426
011-9233-4426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내
● 대지: 98평
● 건물: 약 200평
● 주차공간 충분함
● 가액: 10억
● 엘리베이터 있는 4층 현대식건물임 포교 · 불교대학 최적지임
010-9550-8793

토굴안내(예경선원)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2동
● 평수: 25평, 3층건물 1층
● 가액: 보증금 4000만원 월 15만원
● 즉시법회가능 몸만 들어 오시면 됩니다
02)304-3447
018-382-3448

포교당(급)안내
서울 강남 도심지 최고의 위치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포교원으로서 주지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합니다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시설: 법당 50평, 방 2개, 주방 1개, 화장실 2
● 삼존불, 후불관세음보살 50분 , 신중산신각, 나한존자 16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
011-9269-8445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근교
● 대지 : 130평
건평 : 1층 요사 55평 2층 법당 30평 산신각 5평
● 교통편리,심야보일러
● 가액: 2억 5천
017-336-752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주말농장및토굴(보림터)
● 가야산 포천계곡 1400M
● 형제봉 1200M(전망좋음)
● 도로, 전기, 거실 완비
● 전답 250평(평단가10만원)
010-9366-8929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
● 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011-9516-536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기장 -임법당
● 평수: 130평
● 법당 20평, 요사채, 방2, 거실, 주방
● 가액: 전세 3천5백만원(달세가능)
● 비품대 2천만원 답사후 절충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경관 좋음
018-575-840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대지. 임야 5,000평
● 법당 20평 산신각1동, 요사채2동
● 주차완비, 도로변
● 가액: 5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1-816-9104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경관수려, 시내에서 걸어서 5분거리
● 대지: 100평 건평 3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1-333-3859
033)244-2534 진황합장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인천 계양 (상가 2층)
● 총평: 40평, 법당: 20평, 요사: 2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방 2개, 입식 화장실, 보일러 10년된 포교원
011-9769-8868

별 장 식 토 굴 안 내
● 위치: 춘천시 강촌 인접
● 구조: 멋과 모양을 갖춘 한옥식 휴식공간
● 건물: 가옥 등비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정원)
● 평수: 130평
● 가액: 6000만원
● 특기사항: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아란야인
010-6312-863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1억9천5백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 부지 430평중 대지 290평
● 법당: 40평, 요사: 60평 지장전 20평
● 가액: 1억 2천 5백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011-9567-530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 대지 : 70평,
● 건물 : 85평 (1, 2층) 작은 정원 및 외곽지역 소나무 대문앞 북악산 자락 도심속의 전원주택 명상, 요가센터, 갤러리 등으로 적합
011-335-9663
011-669-0964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군
● 평수: 406평
● 임법당, 요사 2채 발전가능성이 무한한곳 시설완벽
● 비구니스님에게만 양도가능
● 가액: 2억원
011-9554-5674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가까운 거리
● 목조 23평, 임법당, 황토방
● 대지 100평, 전 305평
● 가액: 1억 5천만원
041)753-8137
010-4202-3699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창원역부근
● 삼존불 및 공양간 등 완벽하게 조성
● 총평수 : 50평
017-578-2815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산시 최고 중심
● 건 물 : 5층 건물에 5층(EV유)
● 평 수 : 80평, 법당 40평, 주지실, 종무실 후원 30평
● 가 액 : 보증금 1000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10-7181-6794

사찰운영같이하실분모심
● 위치: 언양(울산)근교
● 규모: 면적 약 5000평 건물 (사찰)300평
● 참여하실분: 능력 또는 약간의 재력이 있는분 비구. 비구니, 보살 및 처사 사찰운영 관심이 있는분
052)263-514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전남 화순읍 10분거리
● 대지: 90평
● 가옥: 20평(적별돌구조 신축)
● 법당: 8평 (신축)
불상 및 탱화, 인등 및 불구 구봉산 정기가 모인 혈처, 교통 편리 기도, 참선수행, 역학, 기치료의 최고명당
● 가액: 7천 5백만원
061)373-4987
010-4670-6987

가 야 산 별 장 안 내
● 면적: 15000평
● 건물 30평, 집 65평, 집 20평, 창고 겸 50평
● 못 4개, 정자 2개, 인공폭포 1개 (도로인접) 자연폭포 (산 중턱) , 잔디밭 1천평
● 조경이 100% 완벽 - 석등4, 12층탑1, 5층탑 2개 그 외 탑 10여개, 기도처나 절로 적절
● 가액: 20 억
011-829-2957

별 장 안 내
● 위치 : 팔공산 뒤 갓바위쪽
● 대지 200평, 건평 57평
● 웅장한 거실, 큰주방, 욕실 2개, 큰방2개, 보통방2개, 황토구들방 1개
● 좌우 산으로 둘러쌓여있고 정남향집, 못도 있음 한 마을에 4가구
● 가액: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53)853-2464
017-808-254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전주시내 고급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35평 , 3층건물 중 2층 법당, 스님방, 공양간, 사존불, 각단 후불탱화, 지장단, 신중단, 산신단, 영가단, 집기일체 완비,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 절충
063)271-7688
010-3038-6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4평 (목조 · 단청)
● 산신각 3평
● 요사 50평
● 가액 : 5억7천만원 (전,월세 가능)
011-9572-3735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임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술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 (융자 4천 포함)
033)562-7053
011-9793-7052

불 나도 소방차 못가는 사찰 849곳

사적지 등에 소방차 필수 · 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전국 목조문화재 3303개중 소화전 설비 139곳
'화재에 노출된 목조문화재 …' 세미나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복원한다 해도 이전의 진품과는 같을 수 없다.

더욱이 화마에 노출된 목조문화재의 소실은 역사의 흔적마저 잃게 하고 있다. 전국 목조문화재 3303개소 가운데 사찰 건축물은 1960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낙산사 화재사건은 화마에 노출된 목조문화재의 심각한 피해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9월 5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는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목조문화재를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씨피엔문화재방송국이 주관하고 한나라당 정병국의원실이 주최한 '화재에 노출된 목조문화재- 화재 방지 시스템은 없는가' 세미나가 그것이다.

이날 정병국 의원은 "지난해의 낙산사 문화재 소실에 이어 올해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서장대와 창경궁 문정전이 산불과 방화로 소실됐다"며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재 노력이 절실하며 화재 예방활동이 그 어떤 노력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목조문화재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요 문화재가 있는 궁궐이나 사적지에는 작은(1t, 1.5t)소방차와 자체 소방대가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체계적인 화재 진압 훈련과 경보장치와 CCTV 등의 예방시스템 마련, 사찰 주변 소방청의 체계적 훈련지원 및 재난 억제 매뉴얼 제공 등을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황 소장은 현재 사용중인 소화기와 진압방식,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화재 초기 진압시 가장 많이 쓰이는 분말형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화재 진압 후 분말 찌꺼기로 문화재에 2차 훼손을 진행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정소화기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진압방식에 대해서도 높은 압력으로 목조물에 2차 훼손을 가속시킬 수 있는 '직접고압분사' 방식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스프링클러'방식의 화재 진압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황 소장은 "화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전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다른 목조건축물의 화재 대응용 자료를 만드는 연구작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명한 문화재관리를 위해 간접화폐지원방식 등의 새로운 지원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재에 노출된 목조문화재-화재 방지시스템은 없는가' 세미나. 왼쪽부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문화방송 서민수 기자, 강원대 백민호 교수, 문화재청 김상구 건조물과장.

이어서 씨피엔문화재방송국 이재호 국장은 목조문화재 방재 시설 현황에 대해 "사찰 1960개소 가운데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사찰이 849개소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전국 목조문화재 3303개소 가운데 소화전 설비가 된 곳이 139곳에 불과하다"고 밝혀 현재 목조문화재 방재 시설이 얼마나 미비한 지를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봉은사 가람배치 등 연구
한국불교미술사연구소 세미나

한국불교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9월 9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봉은사의 가람배치와 불교미술의 새로운 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광대 김정희 교수는 논문을 통해 "봉은사 불화는 18세기후반~19세기 말의 서울, 경기지역 불화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봉은사 불화에 참여한 화승은 경반 응석 · 영명 천기 · 김곡 영환 등 당대 최고의 화승 70여 명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봉은사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는 14종 17점으로 대웅전과 영산전, 북극보전, 판전 등에 각각 소장돼 있고 시왕도 2폭(1777년 作)은 현재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현왕도(1844년 作)와 지장시왕도, 시왕도(1955년 作)는 2002년 명부전 화재로 모두 소실됐다"고 밝혔다.

이날대회에서는 '봉은사의 불화' 명지대 김홍식 교수의 '봉은사의 가람 배치' 한국전통문화학교 김동현 교수의 '봉은사의 건축'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한국불교미술사연구소는 최근 동국대 문명대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미술사의 작가와 유파 Ⅰ · Ⅱ>를 출간했다. <미술사의 작가와 유파 Ⅰ · Ⅱ>에는 일본 무사시노대 박형국 교수의 '인도 오릿사 지역 팔대보살의 성립과 도상 전개' 등을 비롯해 조각 · 건축 · 공예 · 회화 관련논문 40여편이 실려 있다.

노병철 기자

"진표 · 진묵 스님 '모악산 불심'의 핵심"
정륜 교수, 두 스님의 민중교화 방편 등 집중분석



'후천개벽의 성지' '미륵신앙의 본산' 등으로 일컬어지는 김제 모악산은 우리나라의 종교집합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이곳은 '깨달음'과 '신내림' 등을 염원하는 사람들과 정체불명의 종교들이 모여 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정점에 불교가 있고 그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진표율사(713~?)와 진묵대사(1562~1633)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전북대 철학과 정륜 교수(사진)는 최근 '모악산과 불교-진표율사와 진묵대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미륵신앙을 통한 진표율사와 진묵대사의 교화 방법과 미륵신앙의 사회성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진표의 망신참회는 무아를 체득하기 위한 우선적 방편이었다"며 "여타의 미륵신앙이 경배와 기복을 강요하는 반면 진표의 미륵신앙은 각자의 죄업을 철저히 참회하는 과정을 거친 후 수행을 통해 선정과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진표는 점찰법을 통해 당시의 민중을 참회의 길로 유도했으며 교화의 범위도 모악산, 변산, 속리산, 금강산 등 신라를 벗어나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이 살고 있는 소외된 지역까지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도교와 유가사상을 불교적 색채와 가미시킨 진묵대사의 시 '천금지석'을 예로 들며 진묵대사의 민중 교화를 위한 방편적 접근도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3>

인드라망

산사에서 불자들이 조석으로 드리는 예불문에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이 있다. 마음을 다해서 시공 모두에 가득 찬 부처님께 귀의한다 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제망찰해는 인드라망의 번역이다. 원래 인드라는 인도사람들이 좋아하는 수 많은 신 중의 하나인 제석천왕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가호하는 신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석천궁전에 드리워진 구슬코마다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이 서로 서로를 비추면서 우주 삼라만상을 비추는 모습이다. 이러한 인드라망을 부처님께서는 화엄사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요즈음 말로 번역을 해 보면, 우주 삼라만상(생명, 무생명, 유기물, 무기물에 이르기까지)이 서로 다른 것과 떨어져서 개체성을 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쪽은 서쪽에, 시간은 공간에, 물질은 에너지에, 무생물은 생물에, 유기물은 무기물에. 서로 비추어 빛을 내는 인드라망의 구슬과같이 말이다.

이러한 사상은 20세기 양자역학과 상대성을 발견한 과학자, 그리고 무한을 탐구하는 수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서로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는 태양의 움직임, 아침마다 만나는 지하철의 사람들, 발에 걸리는 돌부리, 가을 들녘의 코스모스에 이르기까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드라망은 가르쳐 주고 있다. 가끔 내가 조그맣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정반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사물을 관찰하는 사람이 그 사물의 존재여부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내가 관찰해야만 관찰하려는 사물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관찰자와 사물이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얽혀있는 것이지, 내가 있든 없든 우주는 존재할것이라는 생각은 양자역학적인 사실과는 대치되는 틀린 상식이라는 점이다.

이는 당시 서양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의 반대편에 서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지만, 지금 많은 관찰과 실험은 양자역학의 세계관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세계관을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관찰하려는 의도가 마음에서 나왔으므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비유하기도 한다.

만물은 개체이면서 전체…서로에게 영향 줘
관찰자와 대상 '따로' 아닌 관계일때 소통 가능

또한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러한 인드라망의 구슬을 하드웨어, 이 구슬이 서로 비치는 방법을 소프트웨어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드라망에 얽힌 하나의 인연법칙을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한다. 개체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본래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벽암록>에서 더위를 피하려면, 더위가 나를 죽이는 곳으로 가야한다는 말이 있다. 더위가 한 풀 꺾인 가을 초입, 가끔은 성장을 멈추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자연과 같이 가만히 인드라망에 얽힌 우주의 인연과 다르지 않은 나를 관찰하도록 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조그만암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성군 논공 100평
● 법당 25평. 종무실. 황토방 7평, 석불, 석탑, 석등, 단청
● 가액: 시설비 3000만원 일년세 150만원
● 사용무제한가능 대구중심 30분 소요
010-2800-4962

암자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약 800평
● 법당 32평, 요사채 2채 큰 창고, 주차시설 완비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 가액: 2억 3천만원
055)883-8846
010-8564-0302

사찰(급)안내
● 위치: 영천 · 건천 IC에서 20분
●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집기비품 등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831-302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 실평수 65평, 법당 특 A시설 방 大3, 공양간(특 A시설)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가액: 전세 2000 만원 월 115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8-632-2009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 부지: 1300평
● 건평 53평, 25평, 17평 세동
● 가액: 3억 8천만원 산세수려한 청정지역
010-3929-1113

사찰안내
●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 총부지 560평 아담한 사찰
● 가액: 1억 6천 8백만원
055)674-8089
011-9232-6424

사찰안내
● 위치: 전남 광주 근교
● 500여평 사용 (무상임대)
● 건물: 법당 1동 20평, 방3개
● 특징: 약 70여년 됨 (임야: 4700여평 매입 수용가능하며 실버타운, 납골당 적지라 생각됨)
● 가액: 9500만원
011-288-6668

사찰안내
● 위치:충북진천 IC에서 10분거리 서울중부고속도로 IC 1시간 거리
● 총평수 : 550평중 종교부지 300평
● 건물 :요사채 겸 법당 40평
● 가액: 2억 3천만원
● 특징: 주차완비. 안정된 곳
010-2333-3638

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삼천포
● 상가건물 3층 3층
● 평수40평
● 법당, 방 2개, 주방
● 보증금 500만원, 월15만원
● 시설비 집기일체 1000만원
010-2655-3494

사찰안내
● 위치: 합천군 상가면
● 대지: 240평
● 법당: 25평
● 요사 3채, 산신각, 용왕전 모셔져 있음
● 가액: 2억
011-9571-1710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석대 도심 속 산사 주위경관 수려
● 지하철역(2007년 완공예정)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 가액: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011-872-2532

멋진밀양사찰안내
● 위치: 부산 대구 신고속도로 밀양 IC에서 6분거리 언양 울산 30분
● 대지: 514평
● 1층 요사채 70평, 2층 법당 20평
● 산신각, 일천관음등 및 연등 법당 잘 꾸며져 있음
● 황토집 2채 20평
● 주차 15대 법당 뒤 대밭 조성되어 있음 대지 전체 돌담되어 있음
● 가액: 3억 8천만원
작은 암자 및 부동산 교환가능
현금 매입시에는 대폭 조절가능
010-5572-1501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일 주 문



고운사 부석사로 성지순례

양양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윤달을 맞아 신도들과 함께 9월 21일 영주 부석사, 의성 고운사, 봉화 각화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33)672-2447~8



청계사 주지에 재임명

前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9월 6일 청계사 주지에 재임명됐다. 성행 스님은 1986년 사미계, 89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광주불교사암련 불교합창제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혜향 스님은 9월 27일 오후 6시30분 5·18공원기념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062)234-0090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

파라미타 광주청소년협회장 광민 스님은 9월 23일 오후 6시 무각사에서 제4회 광주청소년음악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062)949-5404



울산 정토사서 초청 법문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은 9월 15일 오후 7시 울산 정토사 설법전에서 정토사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주최하는 설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홍익소아과 이종린 원장은 9월 22일 오후 7시 다보빌딩 내 대원불교대학 지하강의실에서 화엄경 보현행원품 및 보현행원 수행법을 강의한다.



서울무용제 개막축하공연

한양대 무용과 손관중 교수는 9월 15일~10월 4일 한국무용협회가 개최하는 제27회 서울무용제에서 '적4-허무'를 주제로 개막축하공연을 한다. (02)744-8066

동국대 서울 정각원장에 종호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사진)이 9월 1일자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장에 임명됐다. 1971년 사미계, 88년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86년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석사와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임제선 연구'.

스님은 현재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 동국대 선학과 학과장, 동국대 기숙사 관장, 불교학 연구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 사무실 이전

이전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회장 전제우)는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41-2호 2층으로 이전했다. (02)2266-0302, 2267-6955



조계종 포교원장으로서 5년 임기를 모두 채운 도영 스님(사진 오른쪽)이 9월 4일 퇴임식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종정 표창을 받고 있다.

"주지 인사에 포교실적 반영해야"

도영 포교원장 4일 퇴임식

조계종 제4대 포교원장 도영 스님 퇴임식이 9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다.

퇴임식에는 총무원장 지관·교육원장 청화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 등 군포교 관계자,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포교원 산하단체 임직원 등 많은 대중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5년 임기를 모두 성만한 최초의 포교원장이라는 기록을 남긴 도영 스님은 "포교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인적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씨를 뿌리지 않고서 거둘 수 있는 열매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교 인재양성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며 "주지인사 때 포교실적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수행과 포교"라며 "도영 스님은 포교를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헌신했다"고 격려했다.

퇴임식에서 도영 스님은 임기 중 포교에 헌신한 공로로 종정 법전 스님 표창을 받았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박찬수, 나무새김의 아름다움 프랑스서 '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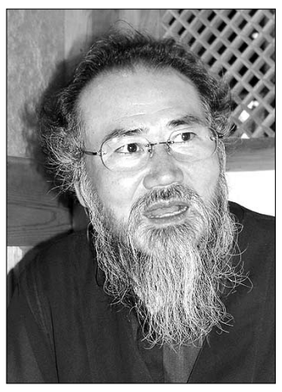
한불수교 120주년 맞아 초청전

"유럽에서는 한번도 전통불교미술이 전시된 적이 없어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전통불교미술의 멋을 유럽에 알리고 싶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관장(목아박물관·사진)이 한불수교 120주년을 맞아 프랑스 에브리시 국립종교미술관에서 초청전시회를 연다.

'박찬수 나무새김의 아름다움' 특별전은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에브리성당에 위치한 국립종교미술관에 한국불교미술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9월 15일~10월 29일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불보살' '나한' '동자' '나무인형' '목조불화' '인물' '한국인의 모습' 등 일곱 주제로 10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박 관장은 "작품 속에 십자가를 차용해도 그 안에서 불교의 기운이 풍겨나온다"고 작품 '나쁜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천당 갑니다'를 소개했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천연염료를 이용해 나무 위에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혔고 또 돌가루, 나뭇가지, 나뭇결 등이 작품을 완성시켰다며 이번 작품에 공을 많이 들였음을 설명했다.

'한국인의 모습'에서 선보이는 '어머니'는 성모마리아를, '한국의 어머니'는 관세음보살을 연상시킨다. 수월관음목각탱, 불모대준제보살목각탱은 그림이 그대로 목조각으로 변신해 천연염색의 옷을 입었다.

박 관장은 이번 전시를 앞두고 이베트 샤페 국립종교미술관장으로부터 "한국 전통불교미술을 전수할 대표작가이자 한국 역사의 유산상속자"라고 극찬을 받기도 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선용 스님 입적 … 법구 의과대에 기증

울산 인성암 주지 무일당 선용 스님(사진)이 9월 4일 오후 8시 40분 입적했다. 세수 84세, 법랍 46세.

1960년 범어사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선용 스님은 61년 비구계, 62년 보살계를 수지하고 금어선원에서 6하안거를 성만했다. 부주지, 미륵암 주지를 역임하며 보제루 보수, 종각 보수, 진입로 공사 등 범어사의 발전과 가람 수호를 위해 헌신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68년 조계종 종정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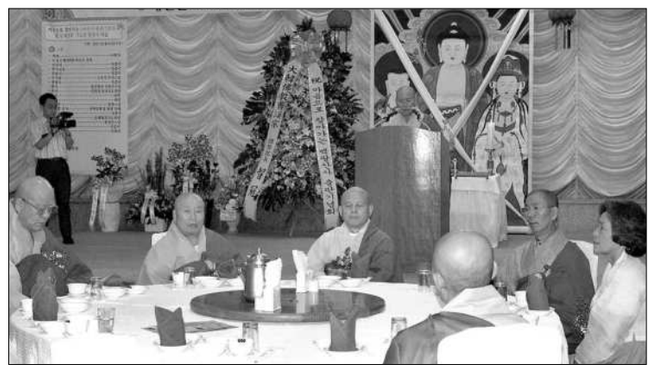
입적전까지도 손수 예불, 기도, 헌공 등의 예의식을 집전하며 수행자다운 면모를 보여온 선용 스님은 특히 형편이 딱한 학생들의 소식을 접하고는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해 후학들의 모범이 됐다. 특히 스님은 현대의학 발전을 위해 법구마저 동국대 의과대학에 기증해 다시 한번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스님의 영결식은 9월 6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범어사 조실 지유, 주지 대성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부산=천미희 기자

1080명이 108산사로 순례 떠나요



삼각산 도선사는 9월 7일 서울 하림각에서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출범시켰다.

'도선사 순례기도회' 출범식

해외성지 순례, 삼사순례가 식상하다고 느끼는 불자, 뭔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싶은 불자라면 귀가 번쩍이는 소식이 있다. 매달 한두 곳의 사찰을 정기적으로 순례하면서 염주 한 알씩을 모아 108사찰의 염주를 완성하는 대장정 삼각산 도선사 '108 사찰 순례 기도회'가 바로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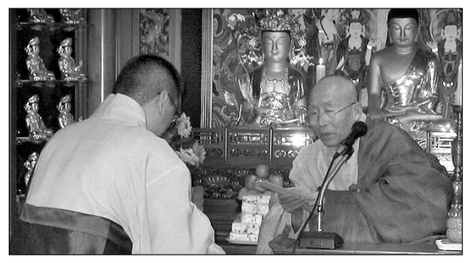
도선사(주지 혜자)는 9월 7일 서울 하림각에서 '108산사 순례기도회' 출범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등, 교육원장 청화,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오영식 열린우리당의원, 한화갑 민주당 대표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동참했다.

혜자 스님은 "108사찰 순례는 5~6년에 걸쳐 108곳의 사찰을 방문하는 대장정"이라며 "모든 동참 대중들이 무사히 회향해 부처님 가피 입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수행과 포교를 위해 우리 불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1080으로 구성된 순례단은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3보사찰 답사를 시작으로 매달 1~2곳씩 직접 방문해 부처님의 가피를 온몸으로 체험한다. 염불과 기도, 108참회, 축원,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발원문을 동참하면 지도법사로 참여하는 혜자 스님이 직접 불자들에게 낙관과 해당사찰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을 보시한다. (02)993-3161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대원정사, 동국역경원에 기금 전달



재단법인 대원정사(이사장 장상건)는 9월 3일 열린 정기법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경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오른쪽)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월운 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이 모인 불사금으로 경전의 한글화 대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영월사 대웅전 부처님 점안식



남원 영월사(주지 수미)는 9월 2일 신축 대웅전에서 부처님 봉불식 및 점안법회를 거행했다. 봉불식은 영월사 회주 지수 스님과 인월면 김재덕 시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지수 스님은 "가람불사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영월사 신도들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매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불자 세상보기

노 익 상
다큐멘터리 사진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살림살이와 그 이야기들을 두루 찾아다니는 일이 직업인 탓에, 남들이 한달에 두어 번 가는 산을 날마다 오른다. 사람에 얽힌 여러 다단한 사연들을 좀 더 헤아리고 이해하는 데 산을 오르는 일이 적잖은 도움이 되어서 버릇처럼 산을 다니게 되었다.

며칠 전, 강원도와 경기도 어름에 있는 여러 봉우리와 그 일대 고을들을 돌아보는 능선 종주를 하면서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났다. 깊은 산속에서 사람 본 것이 반가웠고 그이들도 반색을 하는 눈치여서 뜻하지 않게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다. 자연스레 서로의 처지를 밝히게 됐고 뜻밖에도 두 사람은 겉보기와 달리 칠 순 가까운 노인이었다.

계란말이와 오징어젓갈, 열무김치, 그리고 제육볶음 등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는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이런 산길은 상당한 산행 경험이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깊고 험한 곳이어서 노인이 찾기에는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못 궁금해 했는데 육군 상사로 전역했다는 분이 대답을 들려주었다. 이 달 중순쯤 백두대간 강원도 구간을 종주할 작정이고 이 산행은 그 거사를 대비하기 위한 수개 월에 걸친 훈련이라는 말이었다. 계란말이를 먹다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더 무릎을 쳤다. 여태 군인연금으로 편하게 살다가 배우자와 혼기에 이른 딸이 몇 해 전에 세상을 뜨자 죽을 결심까지 했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본 텔레비전에서 한 장애인이 히말라야를 오르는 장면과 그이들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말을 담담히 들려 준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국인 우주인 선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도전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두 사람도 알고 있었고, 더구나 그들 또래 노인이 이번 체력 시험에 통과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넌지시, 그것은 부유한 처지여서 가능한 일 아니었겠냐며 딴죽을 걸어 보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물론 경제적인 형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재벌가문을 이끌어 오면서도 많았을 법한 유혹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에 고개가 끄덕여지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잠시 흔들렸던 그간의 생각이 다시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덧붙여, 그 노인이 우주인으로 선발 돼 우주공간을 여행하기를 바란다면서, 자신들도 차분하게 준비하여 두타, 청옥, 오대, 점봉, 설악산을 넘어 마침내 향로봉에 이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는 두 사람이 종주에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그 즈음해서 갖게 되었다. 이렇게 단정하듯 결론을 내린 데는, 해거름까지 함께 한 산행에서 자연스레 든 생각이기도 했다.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확인한 것도 뒷받침 되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그 나이가 무색하게 분명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실제로 여러 달에 걸친 훈련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나이와 체력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까지도 이겨내고 있어서였다.

내 책상위에는 지금 그 우주인 선발에 관한 내용과, 86세 된 일본 여배우가 아직도 현역으로 무대에 서고 있다는 기사가 놓여있다. 천천히 읽어내려 가다가, 다음달 즈음해서 이 분단된 국토의 마지막 봉우리 향로봉에 닿아있을 그들을 생각해 본다. 또래 노인이 우주인 선발에 나선 것처럼, 마침내 향로봉에 다다랐을 때, 그것은 본인의 만족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읽히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와 계층, 그리고 이념에서 오는 차별과 내침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값진 일이기도 하다. 대수롭잖게 치부해 버렸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광고 카피가 새삼 떠오르는 순간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좋은 일로 세상에 알려지기는 어렵다. 궂은 일로 알려지는 것은 쉽다. 기사거리의 속성이다.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볼만한 기사다.

안으로 앓으나 겉으로 평정을 보이던 불교계에서 저자의 관심을 끌 일이 발생했다.

순천 선암사에서 불교계를 긴장시킨 내분이 일어난 것이다. 부끄럽고 참혹하다. 내막이야 어떻든 몰매 맞기 가장 좋은 곳이 종교계, 특히 불교계다. 조계종과의 대표적 분규사찰인 선암사에서 태고종 내부의 갈등으로 반목해 경찰병력까지 요청했다니 '분규속의 분규'라 해야 하나?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지않고 진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는 듯하다. 곪은 것은 터트려야 한다는 세간법에 충실하자면 백번 천번 터뜨려야할 사건이 많다.

터트려서 싱싱한 새살이 돋는다면, 썩은 부위 도려내 혁명처럼 새 둥치가 펄펄 살아난다면, 당장 도려낼 일이 부지기수다.

분규사찰에서 '내분'이라니…

불교가 종교로서의 면모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통해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 왔다. 그러나 근현대 들어 잦은 분규를 여과없이 드러내 보임으로써 사회적 지탄을 한 몸에 받은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주로 조계종의 내분이 폭력적으로, 비불교적으로 비쳐지면서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등축제라든가 템플스테이, 각종 대형 법회 등을 통해 빠른 '회복의 능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썩은 것을 도려내는 아픔과 새살을 돋게하는 지혜를 '회통'시키는 일이라 견강부회할지 모르나 어떤 경우에도 분규나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드러내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면 드러내지 않고 고치는 지혜도 있을 것이다.

선암사 사태, 그간 조계종과 긴장관계를 유지해 온 현장에서 종단의 내부갈등에 의해 경찰병력이 동원되었을 때 불자들은 1994년이나 1998년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분규사찰'의 대명사처럼 불린 선암사에서 내분이 일어나다니 될 말인가. 태고종은 하루빨리 내분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보하고 화합해 전통종단의 본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우상(대진대 겸임교수)

이렇게 들었다 공직윤리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 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말라. 특히 공직자는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한다. 〈능엄경〉

대통령상과 훈장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준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은 농림부 일부 공무원들이 9월 5일 경찰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죄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피의자들은 강력히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밝힌 이들의 행각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처구니없다. 이들은 업무과정에서의 단순한 일탈행위 차원을 넘어 수법 자체가 지능적인 조직범죄 형식까지 띠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한 50대 사무관의 경우 2002년 11월 '전통식품 베스트5 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식품업체 대표 2명에게 심사위원 명단과 맛과 디자인 등 심사기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게 해줬다고 한다. 그는 그 대가로 2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하니 공직자로서 포상을 팔아 개인 잇속을 챙긴 추한 행동을 한 것이다.

또있다. 8월 31일에는 2000~2002년 철도청 재직 시절에 경부선 확장공사 도시가스배관 등 이설공사 보상비 29억원을 횡령한 건설교통부 6급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차례 수억원씩의 국고가 별 제어장치 없이 말단 직원의 손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사회질서와 원칙을 준수하며 양심과 윤리에 따라 생활하는 구성원 각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런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파렴치한 공직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인 인과(因果) 법칙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길 권한다. ■김주일(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 조사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한글통일법요집>을 완간했다. 한문으로 된 법요집에 익숙한 불자들이 과연 한글 법요집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까.

현대불교신문 인터넷뉴스사이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는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독자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사찰의 법회가 한글로 진행되는 데 대해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총 참여자 172명 가운데 86%인 148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대는 14%에 해당하는 24명뿐.

한글법요집이 이처럼 지지받은 것은, 독경을 하거나 법회에 임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불자들이 토론글에서 "젊은이들이 오게 하려면 한글화가 필요하다" "초심자가 이해하기 쉽다" "불교 생활화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한글통일법요집>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조사기간 8. 23~9. 5 참여자 172명)

한글통일법요집이 최근 완간됐습니다. 반야심경은 물론 예불 · 천도 · 다비식 등 사찰의 법요의식이 한글로 돼 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사찰의 법회가 한글로 진행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48명(86%) 반대 24명(14%)

보완 절실한 사회복지사 처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아마도 자비일 것이다. '어리석은' 중생을 교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는 자비행은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한국 불교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활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불교는 그와 거리가 멀다.

현대불교신문 594호 4면에서 다뤄진 사회복지사의 암담한 현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버린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기사에 따르면 불교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다고 한다.

주위에 보면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지금까지 양적인 팽창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서비스의 질도 생각해봐야 할 시점 아닌가싶다. 종사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서비스의 질은 자연히 좋아질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불자들을 대신해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손과 발이다. 이들이 방긋방긋 웃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펼칠 때 포교 또한 절로 되지 않을까. 남동수(서울 도봉구 방학동)

승려법 개정 외면에 유감

조계종의 승려법 제5조 '승려의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의 부칙조항인 '이 법 제5조에 정한 사항은 불기2539년(1995년) 이후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2500여 명의 스님이 승랍기산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번 171차 중앙종회가 형평성과 소급입법 문제로 피해를 입은 종도 770여 명의 청원으로 제출한 승려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지 않은 것은 종도들의 여망을 저버린 배신행위다. 종단 개혁으로 법이 바뀌면서 95년 이전 스님들은 출가와 동시에 승랍을 인정받는 반면 그 뒤로 출가한 스님들은 구족계 수지 후부터 승랍이 기산되는 모순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예외 조항으로 단일계단을 이수한 '1995년 이전 출가자는 출가일로부터 기산한다'로 수정하면 간단한 문제 일수 있었다. 종도들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기득권 부리듯 한 13대 중앙종회는 각성해야 한다. 태경(서울 종로구 부암동)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무공 합장
現 卍 신선암 주지
現 참 선공 협회 총재
現 치유명상 협회 총재
現 임상최면 협회 총재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6. 9. 21 (목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예약)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卍 신선암 대한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깨달음의 빛에 물들고 싶어

산으로 간 사람들의 봄·여름·가을·겨울

비워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를 지탱해온 것이라 여겨지던 모든 생각과 기준과 신념. 그러한 것들이 나를 먹여 살렸다는 이제까지의 믿음과는 달리, 그러한 것들이 참나를 가리고 있었다. 비우고 버리면 더 충만해지는데 그걸 못 버리다니. 아니, 버릴 것도 없다. 얻고자 할 것도 없다. 이대로가 그토록 찾던 나임을 알면 될 것 같다. 이 자각이 좀더 깊어지면 무언가 만나게 될까. 본래의 나에 눈뜨고 싶다. 최초의 나를 만나고 싶다. — 본문 중에서

정과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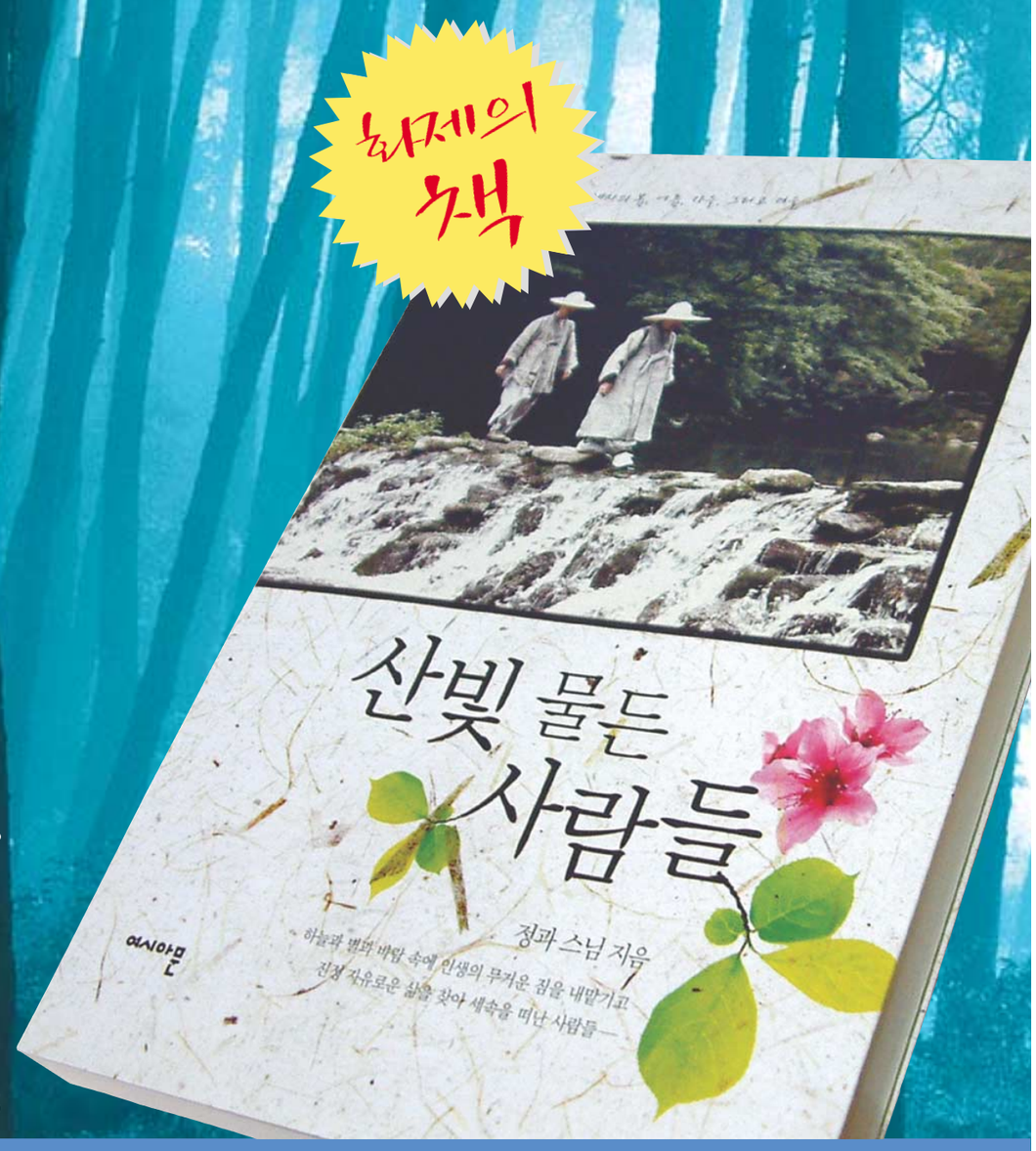
산빛 물든 사람들

신국판 / 302쪽 / 값 10,000원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 :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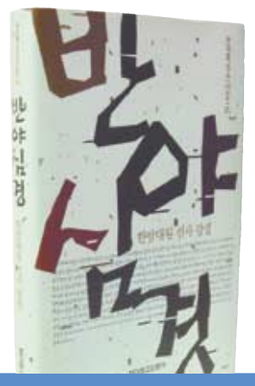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여시아문



학림사 오등선원 대원스님의 명강설

반야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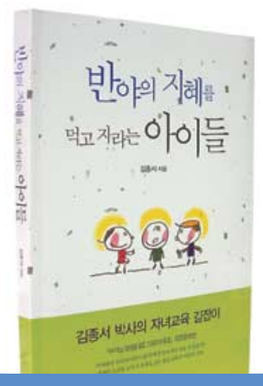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 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선사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 신국판 / 440쪽 / 값 15,000원

● ● ● 김종서 박사의 자녀교육 길잡이 ● ● ●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



어찌해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불성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불교계의 원로 교육학자가 제시하는 불자의 길, 부모의 길, 스승의 길—

김종서 지음 / 신국판 / 232쪽 / 값 9,000원

서울대 출신 지허 스님의 선방 이야기

선방일기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지허 스님 지음 / 46판 / 136쪽 / 값 5,000원

쉼들 때마다 당신의 삶을 받쳐 줄

작대기



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작대기처럼 짚다가 남겨놓고 간 인생의 '깊은 맛'을 속삭이는 이야기들, 68편이 담아져 있다.

글 · 장용철 / 그림 · 고암 정병례 / 46판 / 164쪽 / 값 9,000원

★ ★ 당신을 위한 대행 큰스님의 법문집 ★ ★

삶은 苦가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불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쉽고 명쾌하게 보여준다.

대행 스님 법어 / 혜원 스님 엮음 / 신국판 / 396쪽 / 값 9,000원

중국 불교를 일으켜 세운 허운화상의 스테디셀러

참선요지 參禪要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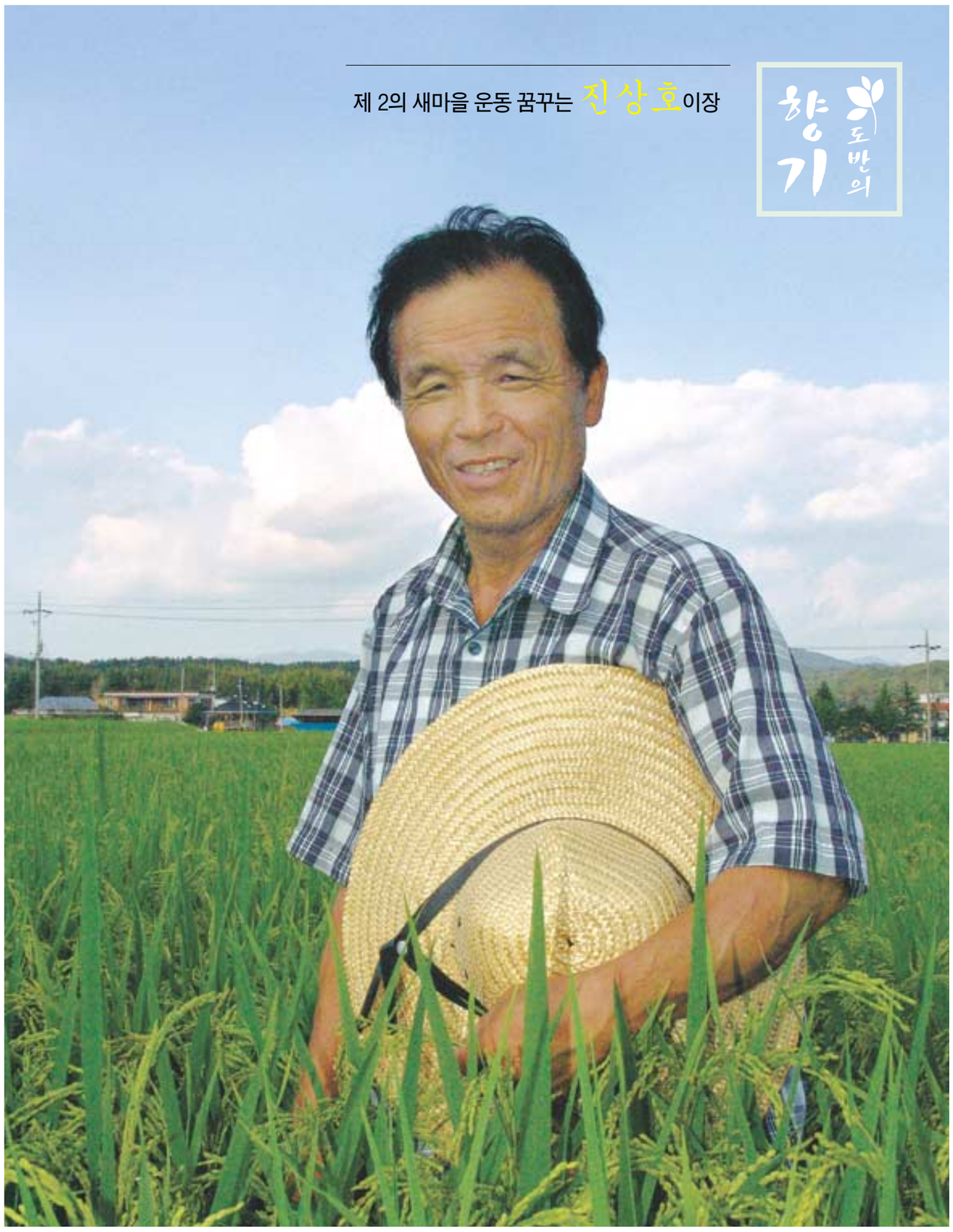
참선 수행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초심자들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 참선수행의 바른 길라잡이.

허운 화상 법어 / 대성 스님 엮음 / 280쪽 / 값 5,500원

제 2의 새마을 운동 꿈꾸는 진상호이장

향기 도반의

어르신들에 효도하며 '나는야! 흙에 살리라'



'나는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 이 유행가 가사보다 진상호 이장의 삶을 더 잘 말해 주는게 또 있을까.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진 이장의 마지막 꿈은 실버타운을 조성해 하루라도 빨리 마을 어르신들을 편히 모시는 것이다

13년째 마을 어르신들 잠자리 펴주고 조석으로 문안
꽃동산 조성 등 아름 다운 농촌 만들기도 앞장
실습장 만들어 도시 아이들에 농사체험 기회제공 '꿈'

혼정신성(昏定晨省: 부모님의 저녁 잠자리를 살피고, 새벽에는 문안인사를 드림). 불과 30년 전만해도 대가족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농촌에서는 혼정신성의 도리를 너나할 것 없이 효도의 기본으로 여겼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농촌의 젊은이들은 도리대신 문명의 길을 택했고 살길을 찾아 하나둘씩 도시로 떠났다. 그렇게 시대는 변해 갔고 이제 우리의 '효문화'도 점점 그 빛을 바래가고 있다.

15년째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이장직을 맡고 있는 진상호씨(68). 진 이장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13년째 '혼정신성'의 도리를 자청해오고 있다. 애초에는 열 한분의 어르신들의 집을 돌며 문안을 드렸지만 그동안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지금은 서순경(93), 정애돌(83), 강정순(76) 세 분의 할머니들에게 조석으로 문안을 여쭌다. 진 이장의 문안인사는 단순히 문안인사로만 그치지 않는다.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면 할머니들 집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은 물론 겨우내 할머니들의 구들장을 따뜻이 덥혀줄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는 것도 진 이장의 몫이다.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하는 땔감은 무려 경운기 20대 분량이다.

"'아파트에 혼자 살던 노인이 사망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오히려 저를 친자식처럼 여겨주시니 제가 더 고맙죠. 따지고 보면 모두 내 부모님 같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진 이장은 세 분의 할머니 중 강정순 할머니에게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5년 전부터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한 강정순 할머니를 부축해 하루에 두 서 너번씩 동구 밖까지 함께 걸으며 '어서 빨리 기운 차리셔서 농사일도 해야죠'라며 할머니의 기운을 돋구어 드리는 일은 이젠 자연스런 일과가 돼버렸다.

이런 진 이장의 봉사에 강정순 할머니는 "자식보단 이장님이 훨씬 고맙구만유. 자식들이야 제 살기 바쁘다 보니 명절에만 얼굴 내 비치니 어디 우리 진 이장님한테 비교허겄시유"라며 눈물을 훔친다.

진 이장의 봉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10년 전 마을 어귀에 '꽃동산'을 만들어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작년에는 사재를 털어 게이트볼 장을 조성해 동네 어르신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교육에 농촌의 미래가 달렸다'는 소신으로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장학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행사'다. 진 이장은 1년에 한번 대산면 출신 대학생 2명과 고등학생 3명에게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농촌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 못지않게 살기 좋은 농촌이 된다면 누가 농촌을 떠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을 도시 못지않은 문화환경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죠. 일부러라도 '꽃동산'이며 '게이트볼장'이며 '장학사업'에 더 투자하고픈 게 제 욕심입니다."

진 이장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400평 규모의 '꽃동산'이 완성되기까지는 사연도 참 많았다. 진 이장을 시기한 사람이 화단을 만들기 위해 사놓은 진흙과 부엽토, 잣나무와 소나무 등을 개울에 버리거나 아예 훔쳐가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1년 동안 묵묵히 꽃동산 조성에 땀 흘리는 진 이장의 모습에 마을사람들도 서서히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도움으로 꽃동산 조성을 위한 공사는 더 빨리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게이트볼 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데도 여간 곤욕을 치루지 않았다. 땅 주인이 땅 값을 턱없이 높게 불러 이득을 보려했기 때문이다. 진 이장이 사재를 털고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얼마의 돈을 모았지만 땅 주인이 요구하는 값에는 훨씬 못 미쳤다.

마을의 발전과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이 기회에 한 몫 잡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땅주인에게 화가 난 진 이장은 여섯달 동안 끈질기게 땅주인을 설득해 결국 지금의 게이트볼 장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 이장은 남원시장 · 대산면장 표창 등을 받았지만 '할 일 한 것 뿐인데 부끄럽다'며 손사래를 친다.

자신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남원에서 뿌리를 내리고 흙을 일구며 살아 온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진상호 이장. 그의 꿈은 역시 흙에서 얻어진 돈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편히 모시는 것이다.

"허허, 푼푼이 모으고 있는 돈이라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작은 규모라도 어르신들 편히 지낼 수 있는 '실버타운' 하나 만드는 게 마지막 소원이자 꿈입니다. 빨리 만들어 놓고 죽어야 할 텐데 큰 일이내요. 큰 일…. (후~)"

진 이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실버타운을 짓기 위해 야산 2300평을 매입해 콩과 고사리를 4년째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진 이장은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중국산 콩과 고사리가 국산의 절반도 안되는 값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래에는 고부가가치 작물인 더덕과 인삼을 심어 콩과 고사리를 대신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농촌체험과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농촌체험실습장'을 만들어 도시인들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촌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식들의 도움 없이 농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전하며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꿈꾸는 농촌 일꾼' 진상호 이장. 알알이 실한 누렇게 익은 가을 들녘 벼이삭만큼이나 그의 꿈도 그렇게 익어가길 기대해 본다.

글 · 사진/남원=노병철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윤달 예수재

예수재는 생전에 사후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서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고 극락왕생 하도록
법의 공덕을 쌓는 불교의식 입니다.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예수재 · 천도법회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봉 至心歸命禮 특별전 축

- 일 시 : 2006. 9. 9(토) - 10. 31(화)
- 장 소 : 수덕사 근역성보관 041)337-2902
- 인 터 넷 : www.jisim.net
- 전시유물 : 중국 요녕성박물관 소장 21점/한국 소장작품 다수
  홍콩 Chris Hall Collection 소장 26점

※ 직물로 표현한 우수한 불교문화재가 전시되오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저렴하게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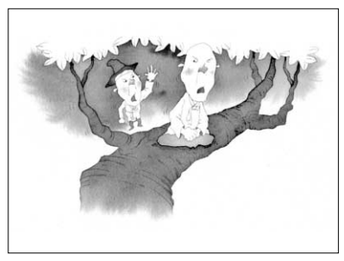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8〉 백낙천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역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이 세상에 부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 게송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최고의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행자 때 사시마지를 올리는 '삼보통청(三寶通請)'이라는 예불문을 배우면서 이 글을 처음 만났다. 뒤에 학인시절 〈치문경훈〉을 보는데 낙천(樂天)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찬불(讚佛)' 속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다.

"시방세계(十方世界)와 천상천하(天上天下)를 아금진지(我今盡知)하니 무여불자(無如佛者)라(시방세계와 천상천하에 내가 지금 모두 알아보니 부처님과 같은 분은 없어라)"



백낙천 거사와 작소도림 선사의 이야기는 법당벽화로도 자주 그려지는 선종의 명장면이기도 하다. 도림선사는, 진망산의 낙락장송이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일산같이 생긴 나무가 있었는데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살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조과(鳥窠:새둥우리) 선사' '작소(鵲巢:까치집) 선사' 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소문을 듣고 그 지역 태수인 백낙천이 그 곳을 찾아갔다. 아니나다를까, 선사가 나무 위에서 그가 오는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백낙천이 나무 위를 쳐다보고는 말했다.

"선사께서 계신 곳이 몹시 위험합니다."

"땅 위에 있는 태수의 위험은 더욱 심하오."

"벼슬이 이렇게 높은데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장작과 불이 서로 사귀는 것과 같이 망상과 망상이 끊어지지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소?"

밖으로는 높은 벼슬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안으로는 가정살이로 인한 번뇌로 심화(心火)가 끊어지지 않으니 비록 단단한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다고는 하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당신이 높은 나무에 있는 나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말이었다. 그건 그렇다손 치고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악을 짓지 말고 선을 쌓으시오."

"그건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말입니다."

"하지만 팔십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소."

'불법이 무엇이냐?' 고 물으면 일반적인 선문답은 '뜰앞에 잣나무' 니 '똥막대기' 니 하면서 기상천외한 답변이 주류를 이루는데 작소도림 선사의 문답은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말을 하는 까닭에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 흔히 칠불통계게(七佛通誡偈)라고 불리는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함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율종과 선종의 또다른 접점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무 위 선사에게 "몹시 위험합니다" 하자
"망상 끊이지 않으니 태수가 더 위험하오"

하지만 〈전등록〉에 나타난 백낙천의 심요를 깨치게한 스승은 불광여만(佛光如滿) 선사이다. 여만은 마조도일의 제자로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거사는 말년에 자기의 봉급을 털어서 용문(龍門)에 향산사(香山寺)를 짓고서 절을 낙성하고는 손수 기문(記文)을 지어서 달았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산거사라고 칭하였다.

그의 간절한 발원문은 오늘까지 전해온다.

"번뇌를 제거하기를 원하며, 열반에 머물기를 원하며, 십지(十地)에 오르기를 원하며, 사생(四生)을 제도하기를 원하며,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할 때에 내가 가까이 함을 얻어 가장 먼저 권청(勸請)하기를 원하며, 부처님이 멸도할 때에 내가 만남을 얻어서 최후에 공양하고 보리의 수기를 받고자 원하옵니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수행점검표 작성
"내가 변했어요"

동화사 '미리 닦는 집중수행' 현장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진행된 '미리 닦는 집중수행'에 참가한 불자들이 참회정진을 하고 있다.

'생전예수재' 하면 대부분의 불자들은 살아있을 때 미리 공덕을 닦는 재 의식 정도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찰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회나 행사를 연다. 하지만 공덕을 닦는 길이 '수행'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전국의 사찰들이 윤 7월을 맞아 생전예수재 법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가 '미리 닦는 집중수행'으로 9월1일부터 7일까지 예수재를 봉행해 눈길을 끌었다.

▷일주일간의 '자기 점검'

9월 4일 오전 동화사 통일대불전. 500여 불자들이 예불을 마치고 일제히 참법정진에 들어갔다. 108 참회정진을 하고 있는 불자들 옆에는 노트보다 조금 긴 크기의 옅은 황토색 팸플릿이 나란히 놓여져 있다. 참법발원문이 봉독되고, 주지 허운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법회가 진행되는 도중 몇몇 불자들이 뒤늦게 통일대불전으로 들어왔다. 그 중 한 보살이 반으로 접힌 팸플릿을 편다. 오른쪽에 '수행점검표'라는 표가 그려져 있다. 그 보살의 시선이 표 안에 적혀 있는 '참법정진 예수재에 참여하도록 권한다'는 글귀에 머문다.

동화사는 생전예수재를 수행기간으로 정하고 일주일동안 불자들이 수행에 몰두하면서 스스로 수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배포했다.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은 7일간 이 표를 지니고 다녀야 했다.

법회를 마친 불자들 적지 않은 수가 점심공양을 한 뒤 다시 통일대불전에서 가부좌를 틀었다. 일부는 부처님 명호를 외거나 다라니를 독송했고, 일부는 좌선에 들었다. 또 한 무리는 경전을 읽고, 다른 한 무리는 절을 했다. 4일 통일대불전의 오후는 그렇게 수행하는 불자들의 열기로 채워졌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아바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배고픈 한사람 구제하기 등 15개 실천 항목 7일간 체크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게 살아온 과거 참회 · 발심

▷수행점검표에는 어떤 내용이…

수행점검표는 15개의 항목을 7일 동안 매일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15개의 항목은 △참법정진기도수행 △한 권의 경전독송 △참회의 108배 △다라니독송 △불보살 명호 천 번 염송 △한 사람의 착한 일을 칭찬하기 △한사람이 나쁜 일을 못하도록 저지하기 △한사람의 배고픈 것을 구제하기 △남을 제도하도록 권하는 글을 나눠주기 △남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위로하기 △의롭지 못한 재물을 취하지 않기 △육식을 하는 사람이 하루 동안 육식 않고 재계하기 △한 생명을 구해서 살려주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기 △낙태를 못하게 하기 등이다.

참가자들은 일주일간의 집중수행 동안에는 동화사에서의 법회시간은 물론이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위의 15개 항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 회향날인 7일에는 이 점검표를 부처님 전에 공양하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반성한다.

▷집중수행 해보니

신성자(58 · 동구 지묘동) 보살은 오후에 참법정진을 했다. 신 보살은 수행점검표 '남을 제도하도록 권하는 글을 나눠 주기' 항목에 '참법정진 예수재에 참여하도록 권한다'는 글을 써넣었던 주인공.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차 안에서 다라니를 독송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왔어요. 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연속임을 깨달은 것이 이번 법회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입니다."

대천 거사는 "며칠 되지 않았지만 수행점검표 항목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다"며 뿌듯해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보살은 "생전예수재 집중수행을 하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길을 가다 예쁜 호박이 있어 무심코 땄던 일이 떠올라 참회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순옥(58 · 대구 동구 신서동)보살은 모든 가족이름으로 집중수행 등록을 하고 가족들에게 점검표와 자비수참 책을 가져다주면서 수행에 동참할 것을 권했다.

"시간이 없어 모든 가족이 매일 법회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학교 다니는 3남매가 각자 점검표에 동그라미를 치며 스스로의 생활을 살피고 있다"면서 "가족과 함께 수행을 할 수 있어 발심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며 웃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경건해졌다는 신 보살은 예수재의 진정한 의미가 수행에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공무원으로 퇴임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대천(65) 거사는 "집중수행기간 동안 수행점검표에 있는 항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불교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살았는지를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글 · 사진/동화사=배지선 기자

interview

"인과 깨닫는 수행 많이 해야"

'집중수행 예수재' 봉행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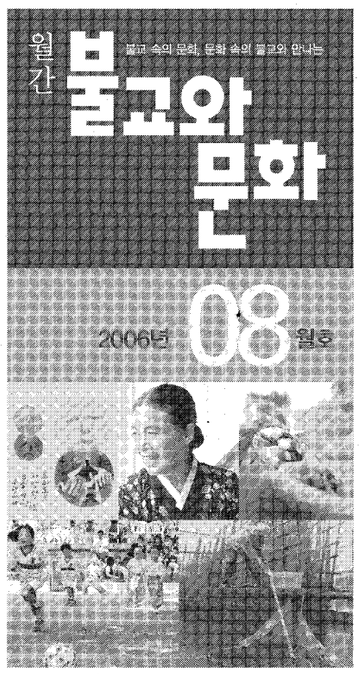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나 결과를 생각지 않고, 중생은 원인은 생각지 않고 결과만 집착하며, 이것이 보살과 중생의 차이"라는 허운 스님은 "인과를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생전예수재를 집중수행으로 봉행한 의미를 설명했다.

허운 스님은 또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발원을 하는 것이 참법기도의 목적이며, 불자들이 쉽게 참회수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수행점검표를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동불상제작전문 성화불교전시관
서울 성남터미널 금관교회 재일은행 원커힐호텔 망우고개 중구청 덕소 팔당 도농삼거리 양평 마지터널 1Km 성화불교미술원(공장)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문화잡지
『불교와 문화』 2006년 8월호 발간!

월간 불교와 문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2006년 08월호
현암사 형난옥 주간의 내 기억 속의 절밥 | 일지암의 절밥
현장르포 | 칭짱철도 개통 현장을 가다
티베트로 달려가는 칭짱철도와 티베트불교의 미래
문화포커스 | 스포츠와 불교 특성화된 불교스포츠 상품을 개발하자
연속기획 |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 1 – 생(生)
생(生)이란 무엇인가
불교는 이 생(牛)의 한가운데에 있다, 버리며 살기 – 생(生)에 대한 일반의 시선,
수행자라면 태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아이들의 불교태교,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네 아이와 살아가는 이유, 인권(人權)출산이란 무엇인가
종범 스님의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10 | 한국불교의 3대 신앙 (2)
응용불교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4
억불시대 수행열전 | 붓다의 제자 반복을 낳은 묘신(妙信)의 수행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 불교를 통해 나와 세상을 행복하게 하자
집중인터뷰 2 | 국악계의 프리마 돈나 안숙선 명창
한호흡 쉬고 떠나는 여행 | 경남 남해군 지족리마을 죽방렴 하는 부부 이야기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Nada Yoga」
작은 박물관을 찾아서 | 칠곡생활사박물관
오래된 향기 | 생활 속의 불교설화(우란의 고통과 효의 길)
시로 지은 절 | 복효근 作 「쌍계사에서」
현장 속으로 | 제3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 또로록, 똑! "마음이 뽕 뚫려요"
2006 테마기획 |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먹는 여름 사찰 별식 3선
건강 에세이 | 호흡과 명상은 피부건강의 지름길
독자들 세상 | 1 칭찬합니다 2 독자의 시(詩)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마여행 5 | 서울의 옛집
광고 및 구독문의 : 02-706-1570(『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

"한국불교가 가야할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직력을 갖춘 불교대학 동문회는 지역 포교와 사회활동에 가장 적합한 형태며, 우리는 그것을 입증해냈습니다."

김상길(영남불교대학 총동문신도회장)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49명의 조계종 포교사 대부분이 원주불교대학 출신입니다. 지역의 각종 불교행사 사회와 집전도 우리 동문들이 맡고 있죠. 우리를 주시하는 눈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두환(원주불교대학 총동문회장)

"2~3년 안에 우리 대학 동문들이 충북지역 신행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충북불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그럴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철호(충북불교대학 총동문회 사무국장)

불교대 동문회 지역신행 '핵심 동력'

불교대학 동문회(이하 동문회)가 지역 신행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문회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는 동문회가 지역 불교를 좌우한다. 3~4년 된 동문회는 지역 불교의 중심 세력으로 떠올랐고, 일부 불교대학은 최근 동문회를 결성하고 신행과 사회활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본지가 전국의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열여섯 곳과 비인가대학 한 곳 등 모두 열일곱 곳을 조사한 결과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특히 각 불교대학들이 매년 100~200여명의 졸업생들을 배출, 해마다 동문수가 늘기 때문에 활동인원과 범위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동문회가 지역불교의 신행흐름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경북불교대학 동문회 '불광축구단'은 대구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축구를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불교대학

탄탄한 지식과 왕성한 의욕
조직력 · 인맥 활용이 '큰 밑천'
신행단체와 연계 · 조직화 등 과제

▷ 동문회 '힘'의 원천은?

동문회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이들은 2년 동안 체계적으로 공부한 불자들이라는 점이다. 탄탄한 불교지식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췄다는 얘기다.

각 지역 불교대학이 배출하는 조계종 포교사들이 동문회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동문회 활동 폭과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체계적인 조직력도 장점이다. 각 기수별로 모임이 조직돼 있고, 이들이 총동문회를 구성해 활동한다. 일사불란하면서도 포교복지 등 각 분야별로 조직적인 활동을 펼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뿌리 내린 터줏대감이 많고, 이들이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도 동문회 활동이 갖는 큰 장점이다. 일례로 해남불교대학의 경우 해남의 각급 기관장들이 동문회에 속해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하나,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동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사찰 신도회가 주지 스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경우가 많지만 동문회는 그런 제한이 없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큰 것이다.

▷ 어떤 활동을 하나?

대부분의 불교대학 동문회는 신행 · 교육 · 포교 ·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행의 경우는 정기법회나 성지순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전공부반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 또 거의 모든 불교대학이 예외없이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군부대나, 어린이 · 학생법회 등을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활동 외에 각 불교대학 동문회는 지역 여건과 동문회 정서에 맞춰 나름대로 특징을 살린 활동을 하고 있다.

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남불교대학은 졸업생 기수별로 6개 구역(팀)의 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기수별 회장단이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이들 98개의 기수별 조직이 총동문회를 이루는 체계화된 조직을 자랑한다.

영남불교대학 동문회와 함께 대구불교 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경북불교대학과 대구불교대학 동문회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린 활동으로 지역에서 신망이 높다.

경북불교대학 동문회는 '불광축구회'를 통해 지역민들과 교류하고 있고, 대구불교대학은 교도소와 소년원 포교에 나서고 있는 포교사모임 동아리 활동이 눈에 띈다.

부산의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동문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108참회와 다라니 수행을 하는 '동문기도법회'를 통해 수행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고, 울산 정토불교대학 동문회는 1년에 2~3차례 초청법회를 통해, 해남불교대학은 '유명인사 초청 특강'을 열어 지역에 불교바람을 일으켰다.

전주의 전북불교대학 동문회는 '문화재답사팀'을 두고 정기적으로 사찰 문화재를 돌아보며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고, 광주불교대학과 전주 화엄불교대학 동문회는 불교산악회와 성지순례 활동이 활발하다.

청주 충북불교대학 동문회는 곧 동문회 소식지 '바라밀'을 발간해 지역에 불교를 알릴 준비 중에 있으며, 천안 각원사불교대학 동문회는 거사 중심의 산행부와 독거노인 목욕봉사 활동으로 불교 이미지를 높였다. 또 대전 백제불교문화대학 동문회는 지역 신행단체 협의체인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지역불자들 간의 화합에 주력하고 있다.

원주불교대학 동문회는 지난 8월 수재의 연금을 모금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에 적극적이고, 동해불교대학 동문회는 국화재배 동아리와 동문회 부속 도서관이 자랑거리다. 인천불교대학 동문회는 염불봉사 활동이 활발하며, 제주 서귀포불교대학 동문회는 월 1회 산행을 하는 '산상법회'로 지역불심을 다진다.

지난 8월 결성된 조계사불교대학 동문회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조계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통해 사회활동을 펼치는 한편, 기도정진법회를 병행하면서 한국불교 1번지 불교대학 동문회의 위상을 갖춰나가겠다는 각오다.

▷ 동문회에 거는 기대

동해불교대학 최종옥 교무처장은 "지역불자교육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추고 있는데다, 앞으로 동문수가 계속해 늘게 되면 더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불교대학 동문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도 있다. 우선 규모가 계속해 확대되는 것에 맞춰 더 효율적으로 동문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또 지역의 다른 신행단체 또는 사찰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와 함께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도 필수적이다.

나아가서는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주불교대학 동문회는 지역환경과 복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지역과 함께하는 동문회 이미지를 심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일터가 도량입니다

'구도'의 신호등 언제나 파란불

서울메트로 **최우영** 신호분소장

지난 8월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신호기 장애가 발생해 이 구간을 운행하던 열차들이 잇따라 정체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뉴스를 본 최우영 서울메트로 신호분소장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한두 번 접하는 뉴스는 아니지만 신호기 고장에 따라 열차지연 불만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호등.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하철도 신호에 의해 출발하고 멈춘다. 하지만 신호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앞선 열차는 멈추어야 하고, 열차 정체는 꼬리를 물게 된다.

염주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긴장을 완화하는데 염주를 손에 드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고 최 분소장은 말한다.

집에서는 20~30분간 꼭 예불을 올리고, 사무실에서는 오가는 직원들에게 간단한 부처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 최 분소장의 빠뜨릴 수 없는 일과다.

최 분소장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은 20여 명. 이들은 수시로 신호기가 있는 현장과 사무실을 오간다. 이들을 지휘하고 있는 최 분소장은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구로디지털역 직원치고 최 분소장이 불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최우영 분소장이 지하철 신호기 현장에 나가 있는 부하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이 때 이상 신호기를 수리하기 위한 인력이 곧바로 투입되는데, 최우영 서울메트로 신호분소장은 바로 지하철 2호선 방배~당산 구간의 신호기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다. 최 분소장은 1974년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33년 간 이 분야에서 근무한 베테랑. 하지만 직장생활 처음이나 지금이나 늘 긴장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집에 가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호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신호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 되지 않지만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 없다.

그래서 최 분소장은 집에서나 구로디지털역에 있는 사무실에서나 항상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저만 알고 있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한 다 해야죠. 저는 이게 낙이에요."

최 분소장은 지난 2000년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에 가입해 신행을 하면서 조계사 불교대학을 마치고 조계종 포교사가 됐다. 그리고 지금은 조계사 신행 안내부 일요 팀장을 맡아 일요일마다 조계사에서 초심자들에게 조계사와 불교를 알리고 있으며, 서울 · 경기 포교사단 군12팀장으로 군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그냥 좋아요. 부처님 일을 한다는 게 말이죠. 제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입니다. 죽을 때까지 머무르지 않을 생각입니다." 글 · 사진=한명우 기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금물]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0

전화주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배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동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제작방법	재질(성분)	원단가공손질	원사생산	판매가격(25%할인가)
안동포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경북안동	3,800,000
1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중국(산동)	1,250,000
2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경남 남해	중국(사천)	835,000
3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중국	중국	475,000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 금물 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 02)2279-7450, 02)2275-8075, 02)747-1761 / FAX : 02)2272-6715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8> 계율 없이 하는 참선은 마도일 뿐

36장에서 신해수증(信解修證)을 언급하며 36장까지는 신해(信解)이고 37장부터 수증(修證)을 말한다고 하였다. 신해는 부처님의 법을 기꺼이 믿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며, 수증은 부처님의 삶을 실천 수행하여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아는[信解-頓悟] 그 자리에서 바로 깨쳐[修證-頓修] 더 이상 공부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돈오돈수이다. 그러나 돈오점수는 선지식의 도움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안 듯하지만[信解-解悟] 확실한 자기 체험이 없기에 수행을 통하여 깨쳐나가는 과정[修證-漸修]이 필요하다. 따라서 돈오점수를 해오점수(解悟漸修)라고 말하기도 한다. 38장에서는 참선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帶婬 修禪 如蒸沙作飯 帶殺修禪 如塞耳叫聲 帶偸修禪 如漏巵 求滿 帶妄修禪 如刻糞爲香 縱有多智 皆成魔道.

다른 사람들과 좋지 않은 어두운 관계를 맺으면서 참선을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서 참선을 하는 것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으며, 남의 소유물을 몰래 훔치면서 참선을 하는 것은 깨진 그릇에 가득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고, 거짓말을 하면서 참선을 하는 것은 냄새나는 똥으로 향기로운 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도 같다. 이런 참선은 설령 지혜가 있더라도 모두 마도(魔道)를 이룰 뿐이다.

원문의 '대음(帶婬)'은 음행(婬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좋지 않은 어두운 관계를 맺는 것이고, '대살(帶殺)'은 살생(殺生)으로서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며, '대투(帶偸)'는 도둑질로서 남의 소유물을 몰래 훔치는 것이다. '대망(帶妄)'은 거짓말로서 특히 여기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참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도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거짓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엄청난 거짓말'을 말한다. 이 네 가지 계율을 잘 지켜야 마음이 고요한 선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으며, 마음이 고요해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는 하나의 몸과 같아서 같이 배워 나가야 하므로 삼학(三學)이라고 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계율 선정 지혜는 하나
계 지키면 늘 고요하고
부처님 향기 뿜어 나와**

此明 修行軌則 三無漏學也. 小乘 稟法爲戒 粗治其末 大乘 攝心爲戒 細絶其本 然則法戒 無身犯 心戒無思犯也. 淫者斷淸淨 殺者斷慈悲 盜者斷福德 妄者斷眞實也. 能成智慧 縱得六神通 如不斷殺盜淫妄則 必落魔道 永失菩提正路矣. 此四戒 百戒之根故 別明之 使無思犯也. 無憶曰戒 無念曰定 莫妄曰慧. 又 戒爲捉賊 定爲縛賊 慧爲殺賊.又 戒器完固 定水澄淸 慧月方現. 此三學者 實爲萬法之源故 特明之 使無諸漏也. 靈山會上 豈有無行佛 少林門下 豈有妄語祖.

이 단락은 수행의 본보기로서 '번뇌를 없애는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밝힌다.

소승은 눈에 보이는 법만 받아 계율로 삼아서 대충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다스리지만 대승은 잘못 쓰는 마음을 거두는 것을 계율로 삼아서 세밀하게 그 잘못의 근원을 끊어버린다. 그러니 겉으로 나타난 법으로 지키는 계율은 몸으로 어기는 일이 없겠지만, 마음으로 지키는 계율은 생각조차 범하는 일이 없다.

사람들과 어두운 관계를 맺는 것이란 맑고 깨끗한 성품을 끊는 일이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없애는 것이다.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은 복덕을 없애는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실을 끊는 행위이다. 지혜를 완성하여 육신통을 얻을지라도 네 가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마도(魔道)에 떨어져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 이 네 가지 계율이 온갖 계율의 근본이 되므로 따로 분명하게 드러내 생각조차 범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한 것이다.

마음 바탕에 분별이 일어날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을 계율이라 하고, 헛된 생각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 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계율이란 그릇이 올곧고 굳세어서 선정이라는 물이 점차 맑고 깨끗해져야 지혜라는 둥근 달이 비로소 나타난다. 이 계정혜 삼학이 진실로 온갖 법의 근원이 되므로 특별히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어 모든 번뇌를 없애게 한다.

육신통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여섯 가지 신통력을 말한다. 첫번째 신족통은 자유자재하게 원하는 곳에 몸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두번째 천안통은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이 생사에서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걸림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세번째 천이통은 육도 중생이 말하는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네번째 타심통은 육도 중생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다. 다섯번째 숙명통은 자신과 육도 중생들의 많고 많은 전생 일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다. 여섯번째 누진통은 중생계의 모든 번뇌를 끊었으므로 다시 삼계의 고통을 받지 않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통을 갖추었을지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뿐더러 부처되는 길조차 영원히 끊기는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다비(茶毘)

중국 사람들은 임종하기 직전에 이 한 마디를 던지고 떠납니다. '짜이찌엔!(再見).' '다시 만나자'는 짧은 인사말만을 남기지요. '유산은 어떻게 하고, 세상살이는 이렇게 하고, 이것저것 조심하고….' 자질구레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메시지가 강렬한 이 말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의 장례식인 다비(茶毘)도 마찬가지입니다. 터 좋은 곳에 묻을 필요도, 성대하게 장례를 치를 수고 없이, 그냥 시신을 태워버리는 화장(火葬)을 하기 때문이죠. 허물어진 육신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다는 무집착의 의미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간결하고 명징하게 불자들에게 전달되는 대목입니다. 하긴 부처님은 인도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 때 "생사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이치를 자유자재하게 쓰고 떠나신 것이지요.

다비는 팔리어 '쟈피타(jhapita)'의 한자 표기입니다. 의미는 '태우다'로, 화장을 가리킵니다. 다비의 영향은 인도문화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자 제자들이 논의해 화장을 한 데에서 유래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9강 장엄정토분 제10

누가 불국토를 장엄하는가

10장에서 다시 이야기는 변주된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다른 장면, 다른 무대를 설정하고, 문답이 계속되지만, 메시지는 앞에서 거듭거듭 강조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다.

경문 전체를 우선 제시하고, 각 구절에 붙인 혜능의 구결을 붙여주었다. 구결의 원문은 이번에는 좀 격식을 달리하여, 전통적 현토를 골랐다. 번역과 대조해보면 어디가 같고 다른지 출입(出入)을 짐작할 것이다.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 경문 번역

- 佛告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昔在然燈佛所, 於法有所得不. 不也, 世尊, 如來在然燈佛所, 於法實無所得.

부처가 수보리에게 일렀다. "네 생각에 어떠냐, 여래가 연등불의 거소에서, 진리를 얻은 바가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불의 거소에서, 진리를 실제로는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 須菩提, 於意云何. 菩薩莊嚴佛土不. 不也, 世尊. 何以故. 莊嚴佛土者, 卽非莊嚴, 是名莊嚴.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 장엄은 실제로는 장엄이라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장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 是故,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生淸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而生其心.

"그래서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은 그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형태'에 끄달리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접촉', 그리고 '편견'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어떤 토대에도 의존함이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 須菩提. 譬如有人, 身如須彌山王, 於意云何, 是身爲大不. 須菩提言, 甚大, 世尊. 何以故. 佛說非身, 是名大身.

"수보리야, 예컨대, 허우대가 수미산만한 사람이 있다 하자. 이 사람의 몸은 크다고 해야겠지." 수보리가 말했다. "아주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몸은 실제 크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조건 하에서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혜능의 구결 (1): 연등불의 수기

- 佛告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昔在然燈佛所, 於法有所得不. 不也, 世尊, 如來在然燈佛所, 於法實無所得.

[혜능] 부처께서는 수보리가 혹 '법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몰라, 확인 차 물어보았다. 수보리는 이 뜻을 알고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연등불은 석가모니 당신께 수기(授記)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수보리에게 묻기를, "내가 스승의 처소에서 법을 들으매, 획득한 법이 있다고 보느냐"고 했더니, 수보리의 대답이 "진리(法)는 스승으로 하여 열었으되, 실제 획득한 바는 없습니다"였다. 그가 다만 깨달은 것은 자성이 본래 청정하며 본래 번뇌 장애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적이상조(寂而常照)가 곧 자성불(自成佛)이라는 이치 하나이다. 잊지 말라. 세존이 연등불의 거소에서, 법에 실로 얻은 바가 없다는 것을... 여래법은 비추는 해와 같아 천지 가이 비추지만, 그것을 취할 수는 없나니라.

[六祖] 佛이, 恐須菩提가 有得法之心일가 하사, 爲遣此疑故로, 問之어시늘, 須菩提가 知法無所得하사, 而白佛言하사대, 不也라 하시니라. 然燈佛은 是釋迦牟尼佛의 授記之師라, 故로 問須菩提하사대, 我於師處聽法에 有法可得不아 하야시늘, 須菩提가 卽謂法卽因師開示나, 而實無所得이라 하시니, 但悟自性이 本來淸淨하며, 本無塵勞하야 寂而常照하면, 卽自成佛이니, 當知世尊이 在然燈佛所하사, 於法에 實無所得也라, 如來法者는 譬如日光이 明照하야, 無有邊際나 而不可取니라.

혜능의 구결 (2): 불국토의 장엄

- 須菩提, 於意云何. 菩薩莊嚴佛土不. 不也, 世尊. 何以故. 莊嚴佛土者, 卽非莊嚴, 是名莊嚴.

[혜능] 불국토는 청정하여 이미지도 형태도 없으니, 어떤 물건으로 능히 장엄(莊嚴)하리오. 다만 이 정혜(定慧)의 보물로 임시로 장엄이라 일컫느니라. 장엄에 셋이 있으니 제1은 '세간의 불토(世間佛土)'를 장엄함이니, 절을 짓고 경을 베끼며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이 이것이요, 제2는 '몸의 불토(身佛土)'를 장엄함이니, 모든 사람을 보되 널리 공경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요, 제3은 '마음의 불토(心佛土)'를 장엄함이니, 마음이 깨끗하면 곧 불토가 깨끗해지기에, 념념(念念)이 언제나 무소득심(無所得心)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다.



[六祖] 佛土淸淨하야, 無相無形하니, 何物이 而能莊嚴耶아, 唯以定慧之寶로, 假名莊嚴이라, 莊嚴이 有三하니, 第一莊嚴은 世間佛土니, 造寺寫經과 布施供養이 是也요, 第二莊嚴은 身佛土니, 見一切人에 普行恭敬이 是也요, 第三莊嚴은 心佛土니, 心淨하면 卽佛土淨이라, 念念常行無所得心이 是也니라.

혜능의 구결 (3): 청정심, 토대 없는 마음

- 是故,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生淸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而生其心.

[혜능] 수행인은 다른 사람을 시비해선 안 되며, 또 자신이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까불며 공부를 않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다. 자성(自性)이 늘 지혜를 발하며, 평등한 자비를 행하며, 하심(下心)하여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수행인의 청정심이다. 만약 스스로 그 마음을 정결히 하지 않고, 청정한 장소를 애착하여, 마음에 토대(住)를 가진다면, 이는 법상(法相)에 집착하는 것이다. 색(色)을 보고 그에 접착하여 그 토대로 마음을 내게 되면 '헤매는 사람(迷人)'이요, 색을 보되 색을 떠나 거기 토대치 않고 마음을 내면 '깨달은 사람(悟人)'이다. 색에 토대하여 마음을 내는 것은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것과 같고, 색에 토대치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하늘에 구름이 없어 일월(日月)이 길게 비치는 것과 같다. 색에 토대해서 내는 마음은 망념(妄念)이고, 색에 토대치 않고 내는 마음은 진지(眞智)이다. 망념이 나면 즉 어둠에 덮이고, 진지가 비추면 즉 천지가 밝아진다. 밝으면 번뇌가 생기지 않는데, 어두우면 육진(六塵)이 우르르 일어난다.

[六祖] 諸修行人이 不應說他是非니, 自言我能我解라 하야, 心輕未學이면, 此非淸淨心也니, 自性에 常生智慧하야, 行平等慈하야 下心恭敬一切衆生이, 是修行人의 淸淨心也니라. 若不自淨其心하고, 愛著淸淨處하야 心有所住하면, 卽是著法相이라. 見色著色하야 住色生心은 卽是迷人이요, 見色離色하야 不住色生心은 卽是悟人이니, 住色生心은 如雲蔽天이요, 不住色生心은 如空無雲하야, 日月이 長照며, 住色生心은 卽是妄念이요, 不住色生心은 卽是眞智니, 妄念이 生하면 卽暗이요, 眞智가 照하면 卽明이라, 明하면 卽煩惱가 不生이요, 暗하면 卽六塵이 競起니라. (未學之未字는 恐當作末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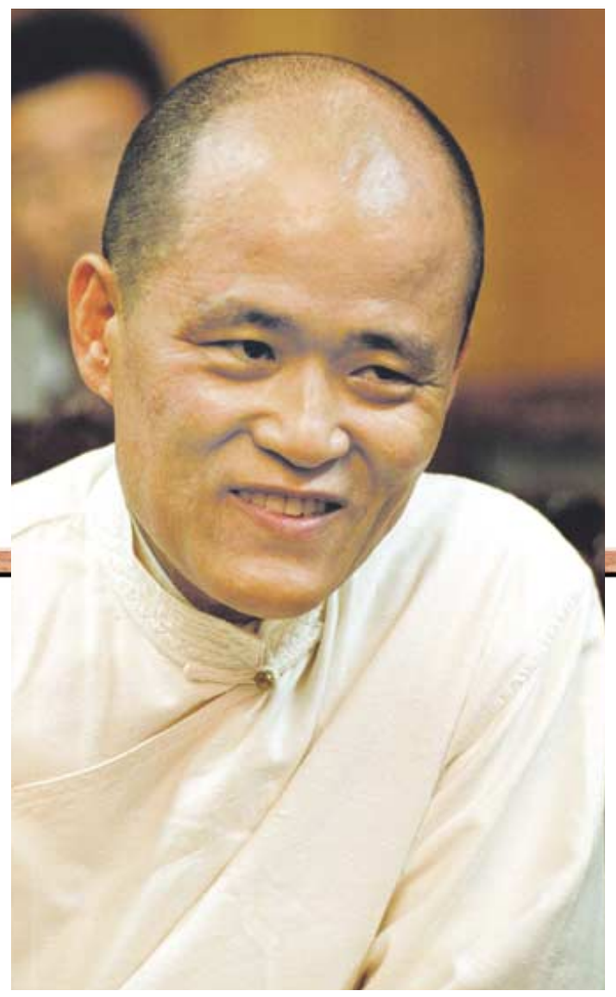
혜능의 구결 (4): 위대한 몸이란

- 須菩提. 譬如有人, 身如須彌山王, 於意云何, 是身爲大不. 須菩提言, 甚大, 世尊. 何以故. 佛說非身, 是名大身.

[혜능] 육신이 비록 커도, 마음이 쪼잔하면 '큰 몸'이라 할 수 없고, 안 마음의 국량이 우주처럼 넓어야 비로소 '큰 몸'이라 할 수 있다. 이 몸뚱이는 수미산만큼 커도 마침내 '크다'고 하기 어렵다.

[六祖] 色身이 雖大나, 內心量小하면 不名大身이요, 內心量大하야 等虛空界하야사 方名大身이니, 色身은 縱如須彌라도 終不爲大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올 김용옥씨

철학과 만난 논술 깊고 풍부해졌네

도올 선생이 들려주는 '논술에 힘을 주는 철학'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의미의 논술은 개인의 의사를 글로써 개진해 이성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한다.



논술과 철학강의1 · 2
김용옥 지음
통나무 | 각권 8500원

도올 김용옥씨는 논술의 일차적이고 상식적인 의미가 '합리적 소통'이라고 말한다. 논술은 우리사회에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말한다. 상식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언어는 이미 논리적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는 이러한 합리적인 소통의 이면에는 '폭력의 거부'라는 우리 인간사의 중요한 명제가 깔려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20세기를 되돌아보면 불행히도 인간 이성이 차지할 여지가 없었던 억압과 폭력의 역사였다.

그는 논술의 본질적 문제의식이 폭력에 대한 항거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21세기를 논술의 세기로 규정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을 배제하고 누구하고든지 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논술을 통해야 한다는 것.

<논술과 철학강의> 1권 첫째 대목에서는 '논술과 폭력'의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박정희 前 대통령을 예로 든다. 그는 논술이라는 주제에서 박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폭력성'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특이한 해석속으로 들어가 보자.

박정희는 4 · 19학생혁명의 성공을 보면서 미국이 혁명에 의한 정권교체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즉 그의 군사쿠데타 결심은 4 · 19혁명 와중에 이미 섰다는 뜻이다.

보통학교교사, 일본군장교, 조선경비대 장교, 남로당 당원, 동료배신, 하극상 쿠데타로 이어지는 박정희의 삶에 대해 저자는 끊임없는 배신과 변신의 여로였다고 단정한다.

유신체제의 경제발전이 야당지도자들이나, 시인들, 사상가, 민중지도자들을 향해 가한 그의 모든 폭력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오직 저항만이 있을 뿐이기에 70~80년대에는 합리적 의사소통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졌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지적 흐름이 오늘날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둘째 대목 '논술과 철학의 문제'는 철학적 사유가 논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철학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철학을 쉽게 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만 정확히 알아도 된다' '철학자의 권위를 인정치 말라' '종교적 신앙은 사유의 단절이다' '핵심적 개념만 집중적으로 이해하라' '좋은 선생님께 물어라' 등을 주문한다.

첫째 대목과 둘째 대목의 내용은 저자 도올 김용옥이 EBS논술강의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교실' 50강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중 · 고등학교 교육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광범한 논술주제를 압축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논술주제는 '폭력의 거부' '일본의 만행' '인도주의와 교조주의' '독립의 의미' '친일과 항일' '6 · 25전쟁은 8 · 15해방에서 이미 시작' '김일성' '북한사회와 남한사회' '박정희의 생애' '4 · 3 제주민중항쟁' '4 · 19와 5 · 16' '록크의 관용론' '인도철학' '한국철학' '청소년의 종교교육' '서양철학사를 묶고 있는 종교의 사슬' 등이다.

이어 셋째 마당 '논술문장론'은 학생들의 문장을 교정해가면서 구체적으로 문장을 어떻게 구성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원론을 밝힌 것이다. 논술은 말이 아닌 글이므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구어를 기준으로 삼기는 하지만, 기나긴 문어적 전통을 수용하여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명료하게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문장론의 핵심은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그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의 대상층 기준, 글씨 잘 쓰기, 의미의 면적이 좁은 단어를 선택, 머릿속에서 먼저 대강을 구성, 명사적 구성법보다는 동사적 구성, 교정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논술과 철학강의> 2권은 1986년에 지은 <중고생을 위한 도올선생의 철학강의>를 20년만에 완전히 다시 쓰다시피 보완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동 · 서철학사의 제문제가 아주 절절한 우리 일상적 체험의 실례를 통해 평이하게 서술되고 있다. 그래서 철학의 주요개념을 파악한 학생들은 모든 논술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루는 주제는 '철학과 역사의 차이' '철학은 무규정적이며 동.서가 없다' '철학은 무전제의 사고' '베이컨의 우상론' '아름다움이란?' '교와 선' '돈오와 점수' '돈오없는 점수는 공허하고 점수없는 돈오는 맹목적' '기하학적 점' '원이란?' 등이 실렸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네티즌 강추

숨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하다



산에서 살다 최성현 지음, 조화로운삶

산을 오르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산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 날 산 정상의 산장에서 사시는 분을 보고 참 좋으시겠다 했지만 정작 내가 산에서 산다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리라.

"최성현의 '산에서 살다'를 읽었다.

후쿠오까 마사노부의 영향을 받아 자연농법을 실천하며 산에서 산다고 한다. 도시에서 문명의 혜택을 잔뜩 받고 사는 내가 전기도 없이 산속에서 살아가는 저자의 속 깊은 뜻과 삶의 방식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그의 삶의 방식을 글을 통해 접하면서 처음에 '글쎄' 그러다가 '아! 그렇구나' 하다가 "참 깨어 있는 맑은 삶을 산속에서 일구어 내고 있구나" 하고 감탄을 하게 되었다.

글 구석구석에 그의 맑은 삶의 실험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엿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산 속의 생활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고수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런 책을 읽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맑아짐을 느끼게 된다.

숨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하기에 충분했다. 나머지는 모두 욕심이었다. (새내, aladdin.co.kr/blog/mypaper/940649)

안흥 산골로 내려간 박도 선생의 정겨운 인생 이야기



그 마을에서 살고 싶다 박도 지음, 바보새

<그 마을에서 살고 싶다>는 도시 생활을 접고 안흥 산골에 내려가 지내는 얘기를 담은 수필집이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사표를 쓴 뒤 찐빵으로 유명한 안흥 산골로 내려간 그. 오십이 훌쩍 넘은 나이에 장작을 패 땔감으로 쓰고 농약 하나 안 쓰는 유기농법을 하며 시골 생활을 시작한 그의 모습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전하는 산골 얘기는 우울한 모습도 많고 즐거운 얘기도 있다. 아이들이 다 떠나버려 폐교되는 학교들, 유기농으로 하면 수확량이 너무 적어 농약과 제초제를 뿌릴 수 밖에 없는 농업 현실, 그렇게 피땀 흘리며 농사를 지어도 조합 빚에 허덕이는 농사꾼들. 이런 현실을 소상히 전해 주는 글은 그 일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책은 산골 이야기와 더불어 자신이 살아 온 과거 경험담들도 재미나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재물과 권력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옛말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니었던가. 박도 선생이 안흥 산골에서 전하는 얘기들은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말해 주는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을 울린다. (지니, blog.yes24.com/thecure8/216149)

책속의 밑줄긋기



○…도자기는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며 종교이고 수행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이야기에 도자기는 우리의 삶과 너무도 닮은 점이 많다고 내가 거들었다.

흙을 고르고 빚고 무늬를 새기고 말리고 굽는 도예의 과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거친다.

어려운 고비를 거치고 나서야 하나의 온전한 작품이 태어난다.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인간들의 삶과 닮았다.

사람도 이 생을 하직한 후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매일 매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에 따라 다음생이 결정되는 것은 도자기와 같다.

우주의 생성과정은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으로 설명된다. 도자기 역시 흙에 물을 넣고 반죽한 것을 공의 경지인 무심으로 빚어 무늬를 넣고 불로 구워낼 때에는 공기의 조절로 색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우주생성 원리와 같다.

-<흙에서 빛으로> 16쪽에서, 이순이 지음, 종이거울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절 수행 삼매 체험 건강비법 노하우 완전공개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할 때 흡흡호 호흡법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가장 완벽한 비법으로, 절하고 일어설 때 마다 가슴차크라가 열리고 단전이 뚫리면서 가슴 막혔던 지독한 업장덩어리의 팔자가 고쳐지고, 병고액난의 병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일들을 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에서 땀이 나며, 냄새 지독한 노폐물의 병독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며 두한족열이 되어지는 진짜 건강법의 절로, 머리는 얼음처럼 시원하고 몸은100% 따뜻해짐
⊙ 팔다리 가슴에 털이 많거나, 손가락 발가락마디, 무릎, 허리, 목이 까맣거나, 등허리 피부가 검고 지저분한 반점에서 병고액난의 많은 노폐물과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며 맑고 깨끗한 몸이 됩니다.
⊙ 붉은 얼굴, 여드름, 아토피, 대머리, 백발, 고혈압, 당뇨, 심장병, 화병, 상기병, 만성피로, 혼침, 졸음, 골치 아픔, 가슴 답답함을 일으켰던 성냄의 화독이 입과 코와 온몸에서 빠져나가며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고,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은 언제 환희심 삼매를 체험합니다.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7:30
부산 금정법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2시
준비물 : 기도포, 수건, 두꺼운 면양말, 법복바지
불교신행단체에서 수행비용 일체를 후원해줍니다.
※ 절 하는 법 교육받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특별수련시간을 조율 받으십시오.
※ 절을 잘하시는 분의 99.999%는 흡흡호 호흡법의 비법테크닉을 배우고 전수받은 수행자입니다.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청견스님 011-9088-9449
서울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금정법당 051)583-7886
http:///cafe daum.net/sorisan(절하는 법 동영상 참고)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처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물리학자와 불교학자 반야심경 풀다


이화여대 물리학과 김성구 명예교수(사진 왼쪽)와 동국대 불교학과 조용길 교수가 동국대 교정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최배문



현대물리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김성구 · 조용길 지음
불광출판부 | 9000원

반야부 경전 가운데서 가장 간명하고 반야의 핵심을 담은 요전인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불교의 근본 사상인 연기설을 공(空) 사상의 관점에서 서술하여 '나는 누구인가, 우주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화두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본 진리중 핵심만 골라 압축한 경전이라고 한다.

반면에 물리학은 오관으로 인식하고 분별지로 판단하는 보통사람들이 물질계를 탐구하여 이룩한 학문이다. 그러니 고전적인 물리학으로 경전을 말하는 세계를 설한다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대물리학이 발전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불교의 진리에 조금이나마 가깝게 다가서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 책 <현대물리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은 이화여대 물리학과 김성구 명예교수와 조용길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공동 집필한 것이다.

물리학자와 불교학자의 만남은 반야심경의 내용을 현대 물리학적으로 해설하여 일반인이 불교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랜선지 동양사상을 현대물리학적으로 조명한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보다 한차원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이다.

예를들면 반야심경의 핵심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설명할 때 현대물리학적으로 색 곧 공은 논리적으로 상반되어 보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자연은 이율배반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자연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이중성이 본질이라면 반야심경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이중성을 하나의 원리로 정리한 것이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에 의하면 '물질은 없다'고 인식하는 순간 '물질로 가득찬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실이 실험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 책의 상당 부분은 1996년에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책은 '관자재보살의 논리' '공(空)의 불교적 의미' '고전물리학:결정론적 인과율' '현대물리학' '현대물리학과 반야심경' '상대성이론'등 반야심경을 물리학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김성구 명예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워싱톤(Washington)대학에서 이론 물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남대,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로서 경남 함양에 약천사를 건립, 뜻있는 불자들이 모여 공부하고 수행하며 토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용길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BK21 불교문화사상교육연구단 단장과 동국대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반논리학 관점서 본 중관학



중관사상
김성철 지음
민족사 | 1만2000원

'중도에 대한 관찰'로 해석되는 중관(中觀).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는 흑백논리의 양 극단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중관학은 대승불교를 세운 인도의 용수(BC 150~250)에 의해 창안된 대승불교의 정수인 '공(空)'을 치밀한 논리로 논증하고, 생각과 분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에서기 '공의 논리학' '해탈의 논리학' '열반의 논리학'이라고 부른다.

또 개념, 판단, 추론에 의해 작동되는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모두 비판한다는 점에서 '반(反)논리학'이라고 명명한다.

동국대 김성철 교수가 발간한 <중관사상>은 불교학 가운데 가장 난해하다는 중관학에 대한 개론서이다.

이 책은 '논리학'과 상반되는 '반논리학'의 관점에서 중관학에 대해 접근한다는 데 있다. 또 일반논리학의 3대 주제인 '개념론', '판단론', '추리론'에 차례대로 대비시켜서, '개념의 실체성 비판', '판단의 사실성 비판', '추론의 타당성 비판'이라는 제목을 달아 중관학의 반논리학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저자는 책 후반부에서 인도와 티베트,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문문화권에서 발달한 중관학 각각을 '주석학', '계보학' '삼론학'이라고 규정한 후 그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또 중관학 관련 자료와 현대의 중관학 연구서, 그리고 연구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김성철 교수는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승가대 강사를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불교의 중심철학> <회쟁론>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난해한 유식론 쉽게 해설



현직 법관이 가장 난해한 불경으로 꼽히는 <성유식론>을 편역한 <주석성유식론>을 펴냈다.

그 동안 <육조단경읽기> <반야심경 · 금강경읽기>등의 불경 주해서를 펴낸 바 있는 파주시법원 김윤수(55 · 사진) 판사가 주인공.

불교 유식론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오직(唯) 의식(識) 내부의 대상을 인식할 뿐이지 그 인식되는 것에 상응하는 외부대상은 없다고 설명한다. 이 불교 유식론을 가장 체계적인 방법으로 서술한 논저가 당나라 시대 현장 스님이 주석들을 취합해 한문으로 옮긴 <성유식론>이다.

원문은 5세기경 북인도 출신 학승 바수반두(世親)가 유식의 뼈대를 30수의 게송으로 노래한 '유식 삼십송'을 당나라 시대 난타 안혜 호법등 10대 논사들이 주석한 것. 김 판사는 현장 스님의 논서를 또다시 주해한 자은 규기 스님의 <성유식론술기>를 발췌하여 우리말로 번역하고 각주를 붙였다.

우리말로 나온 <성유식론>은 지금까지 동국역경원에서 나온 한글대장경에 포함된 한 종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번역은 원본의 축약적인 서술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자세한 해설과 주석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김 판사는 유식을 공부하고픈 사람들에게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어려운 글의 흐름을 쉽게 정리하고 자세한 풀이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윤수 판사는 1976년 사법고시(제18회)에 합격한 후 1981~2000년 판사, 변호사를 거쳐 2001년 부장판사로 재임용돼 2004년 이후 파주시법원에 재직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주석 성유식론
김윤수 편역| 한산암| 4만원

독도는 우리땅♪♬

영유권 문제로 조용할 날 없는 독도. 7년전 본적지를 독도로 이전해 독도사랑을 실천해 온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상임대표)이 독도에 관한 서적 <겨레의 섬 독도>와 <한국령 독도>를 발간했다.

재미 사회학자인 차종환 미주한인재단 이사장과 북한측 독도 연구 일인자인 김동인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와 함께 저술했다.

<겨레의 섬 독도>는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한일 양국의 역사적 기록,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근현세사의 독도 역사를 서술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부록으로 독도 관계 연표와 일본의 '독도 망언' 역사 등을 담아 자료적 가치도 크다.

<한국령 독도>는 독도 영유권 논쟁을 중심에 두고 독도를 지켜온 선인들의 일화, 독도 명칭의 변화, 독도문제의 대책 등을 담았다. **박봉영 기자**



'한국령독도' '겨레의섬 독도'
법타 스님 · 차종환 · 김동인 공저
해조음 | 각 1만5천원

의전상식 ABC 생생한 경험에 담아



"글로벌시대를 맞아 각종 행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의전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국경일 경축행사, 국빈영접 환영식등 10년 넘게 국가 중요행사 의전 업무를 하며 겪은 생생한 경험담과 의전상식을 담은 책을 펴낸 정현규 서기관(53 · 행정자치부 행정공유추진단 기획총괄팀장 · 사진).

<글로벌 시대의 의전행사 성공전략>에는 '각종 의전행사 장면' '의전에 대한 기본이해' '현대의 국가적 의전행사 현황' '국내의 일반 의전행사' '재미있는 의전 상식' '행사별 식순 사례' '알고 있어야 할 33가지 의전상식'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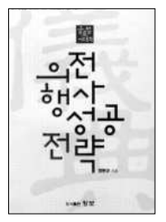
특히 옛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공항 환영행사 등 각종 행사와 관련된 에피소드와 예포(禮砲)를 발사할 때 대통령이나 국왕 등 국가원수에게는 21발을, 부통령이나 국무총리급 · 우리나라의 3부요인 · 국무위원급은 19발을, 각 부처의 차관이나 중장은 17발을 발사한다고 설명등이 이채롭다.

행정자치부 불심회 회원이기도 한 정 서기관은 "원래 국가 의전행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전 지침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책을 펴냈지만 꼭 국가적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교계행사에 참가해보면 조금 어색한 의전이나 진행으로 전체적인 모임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종종 봐왔다"고 말하는 정 서기관.

정 서기관은 "의전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행사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난 뒤 당일 날씨와 기후변화, 참석자들의 눈높이를 감안한 의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필요하다면 종단 행사에 자문과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힌 정현규 서기관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25년전 부산교도소에서 교정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정 서기관은 이후 경남 합천군청 7급 공무원을 거쳐 국가고시(7급)에 합격, 총무처와 행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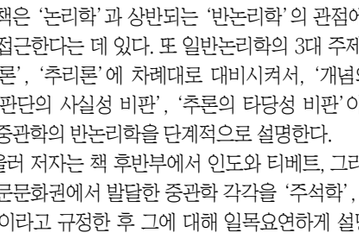
의전행사 성공 전략
정현규 지음 | 창보 | 98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방거사어록 강설	불광출판부, 혜담 지상 스님, 1만5000원
· 만화 성철큰스님1 · 2	열린박물관, 원택 스님, 각9800원
· 오늘부처의일기를써라	은행나무, 원혜 스님, 1만4000원
· 와온 바다에서 茶를 마시다	예문, 한승원 외, 9800원
·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화남, 선묵 혜자 스님, 2만원

도서주문 (02)2004-8219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부처님 가르침대로 키우면 자녀교육 성공한다!



현직 교사인 저자가 교육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교육이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넘나들며 쓴, 불자들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치게 되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들을 뽑아, 그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수십 년간 교육현장에 몸담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딪치고 부대낀 풍부한 현장경험에 각종 교육이론으로 무장하고 거기에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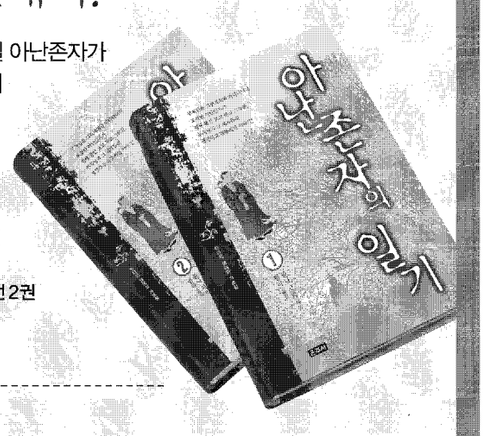
민병직 지음 | 국판 | 288쪽 | 9,800원 www.buddhabook.co.kr
*모든 불자 가정에 한 권씩! 선물용 ·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온주사



천만 불자의 가슴에 감동을 전해 줄
아주 특별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셨던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평생 동안 보고 듣고 기록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아난존자의 일기 ① ② 전2권
원나 시리 지음, 범라 스님 옮김
국판양장 | 각 702, 710쪽 | 각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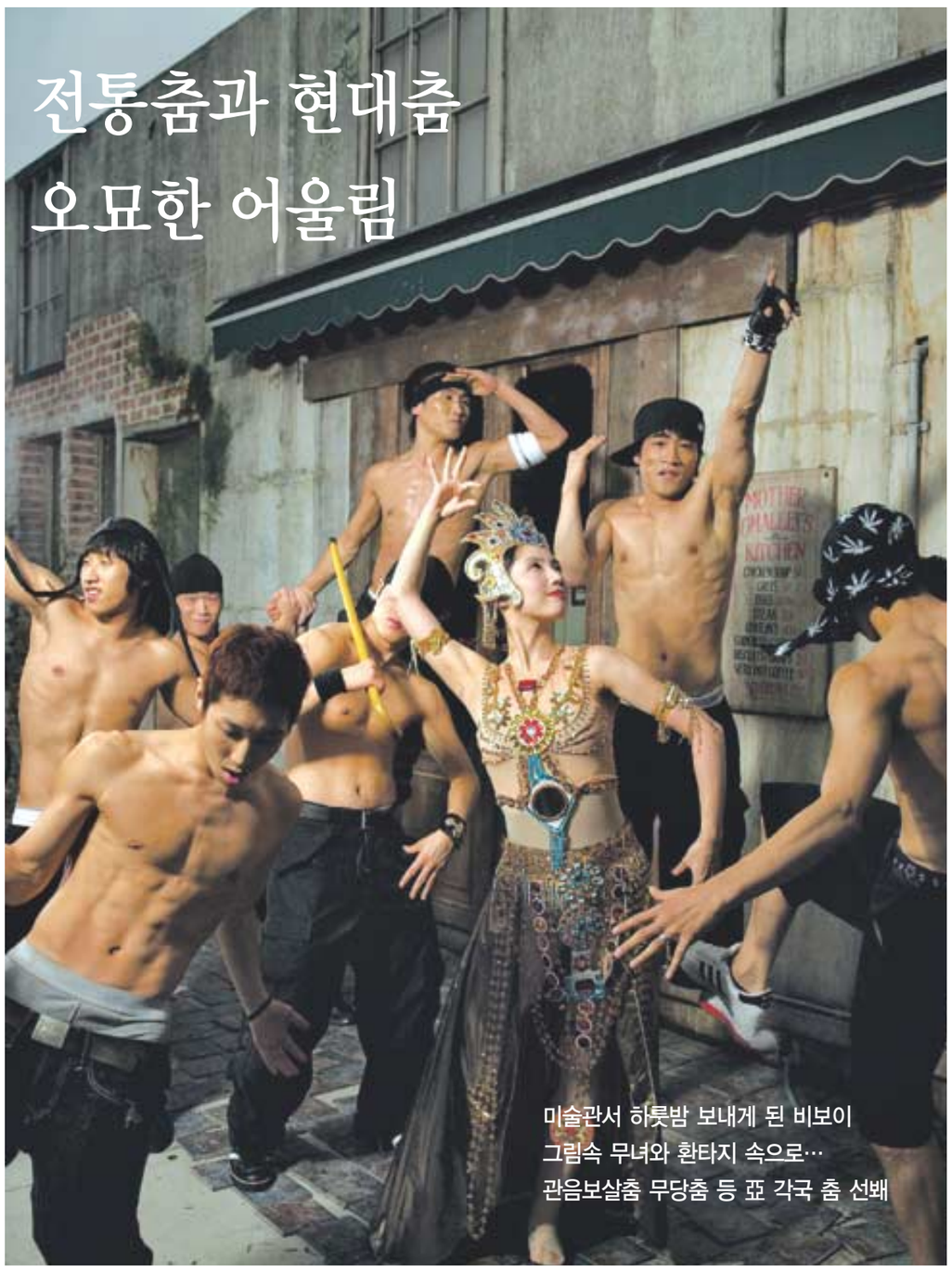
달마선

달마선은 선종의 뿌리이고 근본이며 정통선이다.
따라서 선불교는 달마선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능가경』과 초기 선종 어록들을 근거로 선종의 근본을 찾아가고 있는 책으로,
선종의 주요 개념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선의 근본을 깨닫고,
이를 통해 올바른 선수행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박건주 저 | 국판양장 | 272쪽 |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926-8362



‘보살무’ 백향주, 비보이와 한무대에

댄스퍼포먼스 ‘더 코드’ …백암아트홀 9월 14~30일



음악 춤 퍼포먼스의 만남. 아시아춤 민족춤 보급을 위해 노력해온 무용가 백향주씨가 비보이와 함께 이색적인 춤판을 벌인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원력이 담긴 보살춤은 현대 춤판의 최고 춤꾼 비보이(B-boy,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이란 뜻으로 남자댄서를 지칭)들과 만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일구어낸다.

서울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9월 14~30일 만나는 댄스퍼포먼스 ‘더 코드(the CODE)’. ‘최승희의 재래’로 주목받아 온 무용가 백향주와 영국 UK챔피언쉽 · 프랑스 배틀 디 매쉬 우승에 빛나는 비보이 그룹 T.I.P(Teamwork Is Perfect)의 춤꾼 12명이 꾸미는 무대다.

‘잠꼬대 춤’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제목의 춤으로 시작되는 무대는 관음보살무, 천수보살무로 제1장을 장식한다. 2장부터는 비보이들의 춤과 무녀의 춤이 한바탕 화합의 몸짓을 보여준다. 비보이의 팝핀춤과 무녀의 단단단춤 · 몽골족춤, 격투신춤과 고구려 · 티베트가 만난 장삼춤이 어우러진다. 4장에서 경찰춤 새춤 등을 선사한 후 비보이 솔로 무대로 ‘더 코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라이벌격인 두 무리의 비보이가 만나 싸움판이 벌어진다. 경찰을 피해 미술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비보이들은 전시된 그림속 무녀와 만나 환타지 속으로 빠져든다. 이색적인 손가락 동작이 눈에 띄는 관음보살춤, 빠른 발동작이 매력적인 몽골춤, 신을 부르는 무당춤을 추는 화보집 속 무녀에게 매료되는 춤꾼들. 비보이들의 열망은 벽화 속 무녀를 현실로 끌어내 같이 춤을 추게 만든다.

최승희를 계승한 보살춤을 비롯해 고구려춤에 영향을 준 티베트춤, 몽골춤, 태국춤 등이, 비보이들과 만나 어떤 환상의 무대를 맛보여줄지 백암아트홀에서 만나 보자. (02)459-6937 강지연 기자

“동아시아춤 현대적 변용 보여줄 것”



interview 무용가 백향주

전통춤과 현대춤의 만남을 시도한 무용가 백향주씨의 이력은 독특하다.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성장한 그녀는 러시아국립볼쇼이발레학교, 국립평양음악무용학부, 중국 국립중앙민족대학무용대학을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세에 도쿄 메르파크홀에서 첫 솔로 리사이틀 이후 독무공연만 300여회에 이른다.

“처음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두 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발레 무용수여서 저도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죠. 8살 때부터 22살이 될 때까지 평양을 드나들며 최승희 춤을 배웠습니다.”

군무 중심인 북한 무용계에서 독무를 배우기란 쉽지 않았다. 일본과 북한을 오고가며 필사적으로 배웠다. 그후 5년 동안 중국에서 실크로드 인근의 동아시아 소수민족들의 춤을 파고 들었다. 그녀가 주창한 동아시아춤은 여기에 한국전통무용을 더해 완성됐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일 춤은 최승희춤의 계승자라고만 알려졌던 일부였던 제가 아닌 동아시아춤꾼인 제 춤을 알릴 예정입니다. 최승희춤은 제 안에서 일부분이기에 최승희춤 외에도 제가 개척해나가는 동아시아춤의 현대적 변용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대에 오르는 고구려춤은 최승희의 마지막 작품을 개작해 고구려춤의 원류인 티베트춤과 접목시킨 춤이다. 비보이와 함께 천수보살춤도 춘다. 세계 초연이다. 백향주씨는 “현대춤을 추는 비보이들이 천수보살춤을 추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라고 말한다.

몽고춤을 기반으로한 비보이들의 격렬한 댄스배틀도 벌어진다. 베트남 국경지역에 사는 소수민족 타이족이 전승해온 공작새춤을 새로 개발한 ‘새춤’은 독무에서 시작해 20여분간 비보이들과 함께 군무로 선보인다.

“구속에서 탈피해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심정을 새춤에 담았어요. 재일교포 2~3세로 경계인으로 살아온 제 환경에서 나오는 절실한 저의 욕망이자 자유에 대한 갈망이 들어있죠.”

마지막은 무당춤 후에 비보이와 백향주씨의 부채춤이 현란하게 무대를 장식하며 하나로 화합하는 감동을 선사한다.

“나와 비보이의 춤을 서로 녹여내 새로운 춤의 세계를 보여드리겠다”며 자신의 춤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백향주씨는 관세음보살 앞에만 서면 눈물이 난다고 한다. 공연을 위해 다닌 아시아지역에서는 소승 대승 가리지 않고 사찰을 찾아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그녀에게 춤은 곧 무아의 경지요, 한순간이라도 무심이 되서 부처님 세계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다. “춤은 육체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합쳐졌을 때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백향주씨. 31살, 젊다면 젊은 나이이지만 자신만의 춤세계에 완전히 빠져 ‘백향주 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녀는 진정한 일인자였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日서 태어나 러-北-中서 춤 배워
19세이후 독무공연만 300여회
‘최승희춤 계승자’란 명성 나의 일부
관세음보살 앞에 서면 늘 눈물이…

‘우주’ ‘인간’ 그리고 ‘일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展

서울 경운동 ‘미술관 가는 길’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4인의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9월 12일~10월 3일 열리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4인의 작가 오경환, 오원배, 황주리, 최석운 화백을 초대해 그들의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삼라만상 우주를 독창적인 시각언어로 재해석하는 오경환 화백, 현대인의 고독한 실존과 소외를 힘찬 필치로 표현해온 오원배 화백, 독특한 도시적 상상력으로 현대인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하는 황주리 화백, 우리의 일상을 웃음을 자아내는 우화적 세계로 재창조하는 최석운 화백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전시는 이들의 70~80년대 대표작과 그들이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 가보는 소중한 자리이다. 작가들마다 테마도 다르다. 오경환 화백은 ‘우주’를, 오원배 화백은 ‘인간’을, 황주리 화백은 ‘자화상’을, 최석운 화백은 ‘일상’을 담아낸다. (02)738-9199



오원배 화백의 ‘무제’.

강지연 기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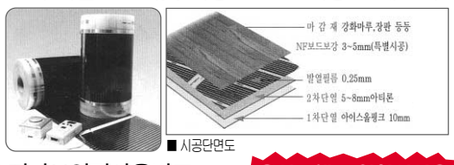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시공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서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천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천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도문 스님은 아침공양을 늘 대중과 함께 발우공양으로 한다.



용성 스님 영정 앞에서 예를 올리는 도문 스님.



죽림정사를 찾아온 충북 제천 통도사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도문 스님 (장수 죽림정사 조실)

"나는 용성 스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도문 스님의 첫마디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용성 스님의 열 가지 유훈을 어느 정도 이루셨느냐고 묻자 "그저 흉내나 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신다. 곁에 있던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박상록 사무국장이 "스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도 늘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신다"며 웃는다.

도문 스님은 40년 가까이 용성 스님의 열 가지 유훈을 실현하고, 용성 스님의 교화지침인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지성화를 위해 일심으로 매진해왔다. 그 결과 열 가지 유훈 실현사업이 완료됐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

용성 스님(1864~1940)은 독립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을 펼친 선교(禪敎)를 겸비한 근대의 고승으로 도문 스님에게는 '할아버지 스님'이 된다. 도문 스님의 은사인 동헌 스님이 용성 스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3 · 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의 대표자로 참가해 구국운동에 헌신했다. 또 불교 대중화를 위해 <화엄경> 80권을 한글로 번역, 불교 역경에 획기적인 업적을 이뤘으며, 선사상 홍보와 사원자립경제를 위해 선농일치(禪農一致)운동을 전개했다.

도문 스님은 용성 스님의 3대 교화지침에 따라 공무원불자회와 논산훈련소 수계법회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포교에 몰두, 불경과 조사어록을 100만권 넘게 배포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계를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외부 법문과 용성 스님 저서와 경전을 쉽게 번역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죽림정사 사부대중은 발우공양 때 천장에 붙여놓은 천수다라니 밑에 천수물을 떠놓고 천수다라니가 천수물에 비치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것을 발원한다.

불경·조사어록 100만권 배포…100만 여명에 수계
방에 들어온 파리 잠자리채로 잡아 밖에 놓아줘

"아침 발우공양을 하고 나서 원고 쓰고, 점심공양하고 원고 쓰고, 저녁공양하고 원고 쓰지요. 공양 뒤마다 참선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원고 쓰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의사와 제자들이 무리하게 원고 쓰는 것을 극구 만류하지만 스님은 "용성 스님 일에 게으를 수 없다"며 고집을 꺾지 않는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도중 방 한 켠에 세워둔 잠자리채가 눈에 들어왔다. 용도를 여쭈었다.

"잠자리채가 아니라 파리채입니다. 파리가 방에 들어오면 죽일 수 없으니 파리채로 잡아서, 몸뚱이 닦아서 사람으로 다시 오라고 얘기하며 놓아줍니다."

이렇듯 계율에 철저한 도문 스님이 제자들을 엄하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종회의원 학담 스님, 前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이 도문 스님의 제자다.

그렇지만 신도들에게는 자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한다. 법문을 가서 법문이 없다. 인연 따라 왔으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짓는 것이라 생각에서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대화로서 궁금증을 풀어주고,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 불사 수행 중 근기에 맞춰 교화한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이를 일러 '감응수기(感應隨機)'의 교화방법이라고 말한다. 불자들에게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고 묻자 도문 스님은 "기자님이 계신 곳이 진리지요" 하신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디서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력을 다하면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한낮의 따가운 햇살을 머금은 죽림정사는 가을 문턱을 두드리고 있었다. 대웅전 왼쪽 뒤편으로 용성 스님의 생가가 보이고 오른쪽 절 옆으로는 냇물이 흐른다. 인근 마을과 경계는 없다. 절이 마을이고 마을이 절이다. 여유롭고 평화롭다. 도문 스님의 모습도 그랬다.

글=한명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제자들에게 도문 스님(가운데)은 엄한 스승이다. 도문 스님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올곧은 수행자가 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한다.

40년 가까이 용성 스님 유훈 실현위해 전법 활동

도문 스님은 도문 스님에게는 '용성 스님'과 '전법'이라는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도문 스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용성 스님이 남긴 10가지 유훈을 실현하는 전법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문 스님은 전법활동을 하기 전까지 20년 넘게 선수행에 몰두했던 수행자다. 40년 동안 도문 스님을 모셔 온 원일화 보살(78)은 도문 스님을 이렇게 말한다.

"한 번 문을 잠그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누군가 문을 열어야만 살아계시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은사이신 동헌 스님께서 주장자를 들고 들어가셔서 쥐 파먹는다고 야단을 치셨을까요. 앉아서 죽으면 쥐가 발바닥을 파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무섭게 수행하셨지요."

1935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도문 스님은 46년 장성 백양사에서 동헌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0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남원 실상사, 의성 고운사, 공주 마곡사,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 서울 대각사 주지와 조계종 감찰원 감찰국장, 총무원 교무부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장성 죽림정사에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경주 천룡사 · 서울 대성사 · 네팔 대성석가사 조실을 맡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봉 행

정구 보현사 명부전 · 정토원(납골당)
낙성법회 및 산사음악회

부처님의 가피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그동안의 불사가 원만 회향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참석하시어 기쁜마음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현사 주지 원봉 합장



◆ 일 시 : 2006년 9월21일 (음, 윤7월29일) 11시
◆ 내 용 : 1부 낙성법회 / 10시부터
2부 영산재 시연 / 오후2시 - 5시까지
3부 산사음악회 / 오후6시 - 오후8시30분까지
보현사 대웅전 앞
◆ 문의 : 보현사 043)259-4926

제4회 대성사
산사음악회 및 선남선녀 템플스테이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인연을 확인하고 그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 시 : 2006년 9월23일 오후 6시 ~24일 오전 10 까지
◆ 일 정 : 1. 산사음악회 / 23일 18시30분-
2. 선남선녀 인연맺기 템플스테이
23일 22시00분 ~ 9월24일 10시
◆ 출 연 : · 티벳스님 전통불교 의식 (8명의 티벳 스님 뿌자 공연)
· 가수 박정식 (천년바위) · 가수 최은혜 (전국 유명 노래강사)
· 가수 고무밴드 (유명 기~타 리스트)
· 가수 이성원 (소쪽새 우는밤)
· 불교 합창단. 전국 선남선녀 회원의 장기자랑
※ 청주불교방송 제작 혜철스님 법문집 테이프.CD 전국 불교서점 판매
◆ 문 의 : 대성사 043)732-5560 혜철스님

봉 행

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

호국불교효예종 석문사는 청원군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아래의 내용으로 경로잔치를 봉행합니다. 오늘의 행복한 사회을 이루기위해 평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석문사 주지 혜전 합장



◆ 행사명 : 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
◆ 예상 인원 : 관내 어르신 1천여명
◆ 일 시 : 2006년 9월16일 오전 10시
◆ 장 소 : 청원군 남이면 사무소 광장
◆ 내 용 : 봉행식 / 위안잔치 - 사물놀이, 국악마당,
노래공연, 북공연, 경로노래자랑 등
◆ 문의 : 석문사 043)264-3008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내가 제일’이란 집착 버리세요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2>



도문 스님의 가르침

용성조사께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다섯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 불사 수행을 해야만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즉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 위없는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에는 소승선(小乘禪) 대승선(大乘禪) 최상승선(最上乘禪) 등이 있습니다.

소승선은 관법수행이라고도 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캐보면 근본도, 당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이라는 놈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면 나온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쉬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고요해지는데, 고요함이 극치에 이르면 밝아집니다.

대승선은 나도 원래 비고, 일체 만법도 다 비었다는 아공(我空), 법공(法空)을 믿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나온 것이며, 이것을 알고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대승선입니다. 그리고 간화선을 최상승선인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조계종에서는 간화선 수행을 합니다. 간화선의 3대 요건은 대분지(大憤志) 대신근(大信根) 대의정(大疑情)입니다. ‘대분지’란 생사대사(生死大事)를 한 번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대신근’이란 자신에게도 부처님과 똑같은 진실본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대의정’이란 대분지와 대신근을 바탕으로 공안을 참구하는 가운데 큰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선수행은 이런 마음을 일으켜 자기의 본성을 보는 수행입니다. 자기본성을 보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염불수행을 해야 합니다. 삼매란 올바른 마음으로 수행에 들어간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에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염불(念佛), 부처님의 교법을 생각하는 염법(念法),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수행하고 교화하는 스님들의 공덕을 생각하는 염중(念衆), 계를 지켜 도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염계(念戒),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는 염시(念施), 하늘나라의 과보가 청정하다고 생각하는 염천(念天), 고요한 곳에서 도를 닦겠다고 생각하는 염휴식(念休息), 망상을 제거하는 데에만 생각을 두는 염안반(念安般), 이 몸이 진실하고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염신(念身),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염사(念死) 이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수행하면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간경은 글자 그대로 경을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은 현상만 보게 되지만 수행을 하게 되면 현상 이외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경전과 조사어록을 보아야만 지혜의 눈을 얻어 법안(法眼)을 뜰 수 있으며, 지혜의 눈을 얻지 못하고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주력수행을 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생에 지은 죄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금생에 이르도록 다생다겁으로 지은 업장을 소멸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력수행을 해야 합니다.

주력수행은 다라니수행이라고도 하는데, 다라니(陀羅尼)는 지혜 혹은 삼매, 또는 진언을 말합니다. 다라니의 힘은 네 가지가 있으니, 부처님의 교법을 듣고 잘 기억해 잊지 않고 지니는 법(法)다라니, 모든 법의 한량없는 뜻을 모두 지녀서 잊지 않는 의(義)다라니, 선정(禪定)에 의해 발한 말로써 신묘한 영험이 있는 작용을 하는 주(呪)다라니,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달은 경지에 안주하는 인(忍)다라니가 있어요. 이처럼 다라니는 무량무변한 뜻을 지니고 있어 모든 악한 법을 버리고 한량없는 좋은 법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선수행은 마음 일으켜 본성 보는 것
경전 · 조사어록 보며 지혜의 눈 얻어야



불사(佛事)는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짓는 일이니, 불사수행이란 이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덕과 지혜인데, 불사는 반드시 복(福)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복전(福田)을 알아야 합니다.

복전은 경전(敬田) · 은전(恩田) · 비전(悲田) 이렇게 삼복전(三福田)이 있는데, ‘경전’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며 예배하고 찬탄하여 참회발원하는 것을 말하며, ‘은전’은 부모와 국가와 중생의 은혜를 모두 갚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비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의지할 데 없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 불사 수행을 하면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최고의 수행덕목입니다. 계율은 깨끗한 그릇과 같으며, 번뇌망상이 다 끊어진 선정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야만 지혜의 달이 비칩니다. 계정혜 삼학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가르침이자 곧 부처님 가르침이며, 삼학을 닦는 것은 곧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 · 번뇌 · 망상 등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를 서원하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에 얽혀 있는 것을 풀거나 끊어야 하고, 자기가 제일이라는 관념도 벗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소를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 소가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앞 못 보는 어느 청년 이야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다섯 살 때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는데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어떻게든 시력을 되찾게 하려고 그의 어머니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번 다시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하루하루를 절망에 빠져 보내던 청년은 아주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큰스님이 법회를 여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스님을 친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운명을 탓하며 사람다운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니 어떻게든 덕이 높은 스님을 뵙고 그 분의 법문 한 자락이라도 들어보고 죽는 것이 그나마 보람 있는 일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그들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여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스님이 법문을 여는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지 청년은 직감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큰스님의 손을 한 번 잡아보거나 가사라도 한 번 만져본다면 그 고되고 긴 여행은 의미가 있을 성 싶어 청년과 어머니는 인파를 헤치고 가장 앞줄로 나아갔습니다.

스님은 사람들 틈 속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아왔는지,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를 세심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청년의 딱한 사정을 들은 스님은 자신의 주치의에게 이 청년을 한번 검진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의사는 믿기 어려운 희소식을 하나 가지고 청년을 찾아 왔습니다.

어떤 젊은 스님이 자신의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한 자의 안구기증도 아니고 젊디젊은 스님이 제 눈을 떼어서 주겠다는 제안인 것입니다.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거나 환호성을 지를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청년은 무덤덤하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가만히 앞을 응시하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젊은 스님은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와 안구를 기증하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는 처음에는 하늘을 날아오를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그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해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로 인해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스님의 안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바라며 어머니와 함께 가재도구를 다 팔아서 떠나온 순례 길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청년 앞에 벌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청년은 손을 내밀어 제 몫의 행운을 움켜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을 사양하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사람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 · 비 · 희 · 사’

이것은 내가 내 이웃과 낯선 사람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 품어야 할 네 가지 마음가짐입니다. 흔히 ‘자비심’ 또는 ‘자비’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나로 인해 고통 겪는 사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자비심 아닐까요

자(慈)는 다른 사람을 벗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정 어린 마음으로 가깝거나 낯선 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비(悲)는 나의 벗에게 슬프거나 고통스런 일이 생기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참 안됐구나!”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게 일어난 일처럼 여겨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희(喜)는 나의 벗에게 생긴 기쁜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捨)는 담담한 마음입니다. 맘껏 아파하고 맘껏 기뻐하지만 감정에 이끌려서 자신을 놓쳐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톡톡 털어 순례 길에 나선 앞 못 보는 청년은 누가 보아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구호와 자비의 손길에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안구기증을 제안한 젊은 스님을 염려하는 그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자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아픈데 다른 이까지 아프게 할 수 없고, 다른 이가 아플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자비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청년의 이야기는 〈용서〉(달라이 라마 · 빅터 챈 지음, 류시화 옮김, 오래된 미래, pp.185~190)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불교계최초의온라인광고사이트 애드붓다피아 http://ad.buddhapia.com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도문 스님은 아침공양을 늘 대중과 함께 발우공양으로 한다.



용성 스님 영정 앞에서 예를 올리는 도문 스님.



죽림정사를 찾아온 충북 제천 통도사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도문 스님 (장수 죽림정사 조실)

"나는 용성 스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도문 스님의 첫마디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용성 스님의 열 가지 유훈을 어느 정도 이루셨느냐고 묻자 "그저 흉내나 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신다. 곁에 있던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박상록 사무국장이 "스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도 늘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신다"며 웃는다.

도문 스님은 40년 가까이 용성 스님의 열 가지 유훈을 실현하고, 용성 스님의 교화지침인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지성화를 위해 일심으로 매진해왔다. 그 결과 열 가지 유훈 실현사업이 완료됐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

용성 스님(1864~1940)은 독립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을 펼친 선교(禪敎)를 겸비한 근대의 고승으로 도문 스님에게는 '할아버지 스님'이 된다. 도문 스님의 은사인 동헌 스님이 용성 스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3 · 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의 대표자로 참가해 구국운동에 헌신했다. 또 불교 대중화를 위해 <화엄경> 80권을 한글로 번역, 불교 역경에 획기적인 업적을 이뤘으며, 선사상 홍보와 사원자립경제를 위해 선농일치(禪農一致)운동을 전개했다.

도문 스님은 용성 스님의 3대 교화지침에 따라 공무원불자회와 논산훈련소 수계법회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포교에 몰두, 불경과 조사어록을 100만권 넘게 배포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계를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외부 법문과 용성 스님 저서와 경전을 쉽게 번역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죽림정사 사부대중은 발우공양 때 천장에 붙여놓은 천수다라니 밑에 천수물을 떠놓고 천수다라니가 천수물에 비치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것을 발원한다.

불경·조사어록 100만권 배포…100만 여명에 수계
방에 들어온 파리 잠자리채로 잡아 밖에 놓아줘

"아침 발우공양을 하고 나서 원고 쓰고, 점심공양하고 원고 쓰고, 저녁공양하고 원고 쓰지요. 공양 뒤마다 참선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원고 쓰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의사와 제자들이 무리하게 원고 쓰는 것을 극구 만류하지만 스님은 "용성 스님 일에 게으를 수 없다"며 고집을 꺾지 않는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도중 방 한 켠에 세워둔 잠자리채가 눈에 들어왔다. 용도를 여쭈었다.

"잠자리채가 아니라 파리채입니다. 파리가 방에 들어오면 죽일 수 없으니 파리채로 잡아서, 몸뚱이 닦아서 사람으로 다시 오라고 얘기하며 놓아줍니다."

이렇듯 계율에 철저한 도문 스님이 제자들을 엄하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종회의원 학담 스님, 前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이 도문 스님의 제자다.

그렇지만 신도들에게는 자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한다. 법문을 가서 법문이 없다. 인연 따라 왔으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짓는 것이라 생각에서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대화로서 궁금증을 풀어주고,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 불사 수행 중 근기에 맞춰 교화한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이를 일러 '감응수기(感應隨機)'의 교화방법이라고 말한다. 불자들에게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고 묻자 도문 스님은 "기자님이 계신 곳이 진리지요" 하신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디서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력을 다하면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한낮의 따가운 햇살을 머금은 죽림정사는 가을 문턱을 두드리고 있었다. 대웅전 왼쪽 뒤편으로 용성 스님의 생가가 보이고 오른쪽 절 옆으로는 냇물이 흐른다. 인근 마을과 경계는 없다. 절이 마을이고 마을이 절이다. 여유롭고 평화롭다. 도문 스님의 모습도 그랬다.

글=한명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제자들에게 도문 스님(가운데)은 엄한 스승이다. 도문 스님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올곧은 수행자가 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한다.

40년 가까이 용성 스님 유훈 실현위해 전법 활동

도문 스님은 도문 스님에게는 '용성 스님'과 '전법'이라는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도문 스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용성 스님이 남긴 10가지 유훈을 실현하는 전법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문 스님은 전법활동을 하기 전까지 20년 넘게 선수행에 몰두했던 수행자다. 40년 동안 도문 스님을 모셔 온 원일화 보살(78)은 도문 스님을 이렇게 말한다.

"한 번 문을 잠그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누군가 문을 열어야만 살아계시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은사이신 동헌 스님께서 주장자를 들고 들어가셔서 쥐 파먹는다고 야단을 치셨을까요. 앉아서 죽으면 쥐가 발바닥을 파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무섭게 수행하셨지요."

1935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도문 스님은 46년 장성 백양사에서 동헌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0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남원 실상사, 의성 고운사, 공주 마곡사,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 서울 대각사 주지와 조계종 감찰원 감찰국장, 총무원 교무부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장성 죽림정사에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경주 천룡사 · 서울 대성사 · 네팔 대성석가사 조실을 맡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봉 행

정구 보현사 명부전 · 정토원(납골당)
낙성법회 및 산사음악회

부처님의 가피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그동안의 불사가 원만 회향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참석하시어 기쁜마음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현사 주지 원봉 합장



◆ 일 시 : 2006년 9월21일 (음, 윤7월29일) 11시
◆ 내 용 : 1부 낙성법회 / 10시부터
2부 영산재 시연 / 오후2시 - 5시까지
3부 산사음악회 / 오후6시 - 오후8시30분까지
보현사 대웅전 앞
◆ 문의 : 보현사 043)259-4926

제4회 대성사
산사음악회 및 선남선녀 템플스테이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인연을 확인하고 그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 시 : 2006년 9월23일 오후 6시 ~24일 오전 10 까지
◆ 일 정 : 1. 산사음악회 / 23일 18시30분-
2. 선남선녀 인연맺기 템플스테이
23일 22시00분 ~ 9월24일 10시
◆ 출 연 : · 티벳스님 전통불교 의식 (8명의 티벳 스님 뿌자 공연)
· 가수 박정식 (천년바위) · 가수 최은혜 (전국 유명 노래강사)
· 가수 고무밴드 (유명 기~타 리스트)
· 가수 이성원 (소쪽새 우는밤)
· 불교 합창단. 전국 선남선녀 회원의 장기자랑
※ 청주불교방송 제작 혜철스님 법문집 테이프.CD 전국 불교서점 판매
◆ 문 의 : 대성사 043)732-5560 혜철스님

봉 행

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

호국불교효예종 석문사는 청원군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아래의 내용으로 경로잔치를 봉행합니다. 오늘의 행복한 사회을 이루기위해 평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석문사 주지 혜전 합장



◆ 행사명 : 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
◆ 예상 인원 : 관내 어르신 1천여명
◆ 일 시 : 2006년 9월16일 오전 10시
◆ 장 소 : 청원군 남이면 사무소 광장
◆ 내 용 : 봉행식 / 위안잔치 - 사물놀이, 국악마당,
노래공연, 북공연, 경로노래자랑 등
◆ 문의 : 석문사 043)264-3008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내가 제일’이란 집착 버리세요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2>



도문 스님의 가르침

용성조사께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다섯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 불사 수행을 해야만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즉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 위없는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에는 소승선(小乘禪) 대승선(大乘禪) 최상승선(最上乘禪) 등이 있습니다.

소승선은 관법수행이라고도 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캐보면 근본도, 당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이라는 놈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면 나온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쉬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고요해지는데, 고요함이 극치에 이르면 밝아집니다.

대승선은 나도 원래 비고, 일체 만법도 다 비었다는 아공(我空), 법공(法空)을 믿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나온 것이며, 이것을 알고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대승선입니다. 그리고 간화선을 최상승선인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조계종에서는 간화선 수행을 합니다. 간화선의 3대 요건은 대분지(大憤志) 대신근(大信根) 대의정(大疑情)입니다. ‘대분지’란 생사대사(生死大事)를 한 번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대신근’이란 자신에게도 부처님과 똑같은 진실본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대의정’이란 대분지와 대신근을 바탕으로 공안을 참구하는 가운데 큰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선수행은 이런 마음을 일으켜 자기의 본성을 보는 수행입니다. 자기본성을 보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염불수행을 해야 합니다. 삼매란 올바른 마음으로 수행에 들어간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에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염불(念佛), 부처님의 교법을 생각하는 염법(念法),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수행하고 교화하는 스님들의 공덕을 생각하는 염중(念衆), 계를 지켜 도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염계(念戒),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는 염시(念施), 하늘나라의 과보가 청정하다고 생각하는 염천(念天), 고요한 곳에서 도를 닦겠다고 생각하는 염휴식(念休息), 망상을 제거하는 데에만 생각을 두는 염안반(念安般), 이 몸이 진실하고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염신(念身),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염사(念死) 이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수행하면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간경은 글자 그대로 경을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은 현상만 보게 되지만 수행을 하게 되면 현상 이외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경전과 조사어록을 보아야만 지혜의 눈을 얻어 법안(法眼)을 뜰 수 있으며, 지혜의 눈을 얻지 못하고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주력수행을 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생에 지은 죄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금생에 이르도록 다생다겁으로 지은 업장을 소멸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력수행을 해야 합니다.

주력수행은 다라니수행이라고도 하는데, 다라니(陀羅尼)는 지혜 혹은 삼매, 또는 진언을 말합니다. 다라니의 힘은 네 가지가 있으니, 부처님의 교법을 듣고 잘 기억해 잊지 않고 지니는 법(法)다라니, 모든 법의 한량없는 뜻을 모두 지녀서 잊지 않는 의(義)다라니, 선정(禪定)에 의해 발한 말로써 신묘한 영험이 있는 작용을 하는 주(呪)다라니,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달은 경지에 안주하는 인(忍)다라니가 있어요. 이처럼 다라니는 무량무변한 뜻을 지니고 있어 모든 악한 법을 버리고 한량없는 좋은 법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선수행은 마음 일으켜 본성 보는 것
경전 · 조사어록 보며 지혜의 눈 얻어야



불사(佛事)는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짓는 일이니, 불사수행이란 이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덕과 지혜인데, 불사는 반드시 복(福)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복전(福田)을 알아야 합니다.

복전은 경전(敬田) · 은전(恩田) · 비전(悲田) 이렇게 삼복전(三福田)이 있는데, ‘경전’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며 예배하고 찬탄하여 참회발원하는 것을 말하며, ‘은전’은 부모와 국가와 중생의 은혜를 모두 갚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비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의지할 데 없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 불사 수행을 하면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최고의 수행덕목입니다. 계율은 깨끗한 그릇과 같으며, 번뇌망상이 다 끊어진 선정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야만 지혜의 달이 비칩니다. 계정혜 삼학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가르침이자 곧 부처님 가르침이며, 삼학을 닦는 것은 곧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 · 번뇌 · 망상 등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를 서원하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에 얽혀 있는 것을 풀거나 끊어야 하고, 자기가 제일이라는 관념도 벗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소를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 소가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앞 못 보는 어느 청년 이야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다섯 살 때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는데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어떻게든 시력을 되찾게 하려고 그의 어머니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번 다시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하루하루를 절망에 빠져 보내던 청년은 아주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큰스님이 법회를 여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스님을 친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운명을 탓하며 사람다운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니 어떻게든 덕이 높은 스님을 뵙고 그 분의 법문 한 자락이라도 들어보고 죽는 것이 그나마 보람 있는 일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그들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여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스님이 법문을 여는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지 청년은 직감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큰스님의 손을 한 번 잡아보거나 가사라도 한 번 만져본다면 그 고되고 긴 여행은 의미가 있을 성 싶어 청년과 어머니는 인파를 헤치고 가장 앞줄로 나아갔습니다.

스님은 사람들 틈 속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아왔는지,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를 세심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청년의 딱한 사정을 들은 스님은 자신의 주치의에게 이 청년을 한번 검진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의사는 믿기 어려운 희소식을 하나 가지고 청년을 찾아 왔습니다.

어떤 젊은 스님이 자신의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한 자의 안구기증도 아니고 젊디젊은 스님이 제 눈을 떼어서 주겠다는 제안인 것입니다.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거나 환호성을 지를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청년은 무덤덤하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가만히 앞을 응시하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젊은 스님은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와 안구를 기증하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는 처음에는 하늘을 날아오를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그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해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로 인해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스님의 안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바라며 어머니와 함께 가재도구를 다 팔아서 떠나온 순례 길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청년 앞에 벌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청년은 손을 내밀어 제 몫의 행운을 움켜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을 사양하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사람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 · 비 · 희 · 사’

이것은 내가 내 이웃과 낯선 사람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 품어야 할 네 가지 마음가짐입니다. 흔히 ‘자비심’ 또는 ‘자비’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나로 인해 고통 겪는 사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자비심 아닐까요

자(慈)는 다른 사람을 벗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정 어린 마음으로 가깝거나 낯선 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비(悲)는 나의 벗에게 슬프거나 고통스런 일이 생기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참 안됐구나!”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게 일어난 일처럼 여겨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희(喜)는 나의 벗에게 생긴 기쁜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捨)는 담담한 마음입니다. 맘껏 아파하고 맘껏 기뻐하지만 감정에 이끌려서 자신을 놓쳐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톡톡 털어 순례 길에 나선 앞 못 보는 청년은 누가 보아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구호와 자비의 손길에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안구기증을 제안한 젊은 스님을 염려하는 그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자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아픈데 다른 이까지 아프게 할 수 없고, 다른 이가 아플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자비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청년의 이야기는 〈용서〉(달라이 라마 · 빅터 챈 지음, 류시화 옮김, 오래된 미래, pp.185~190)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불교계최초의온라인광고사이트 애드붓다피아 http://ad.buddhapia.com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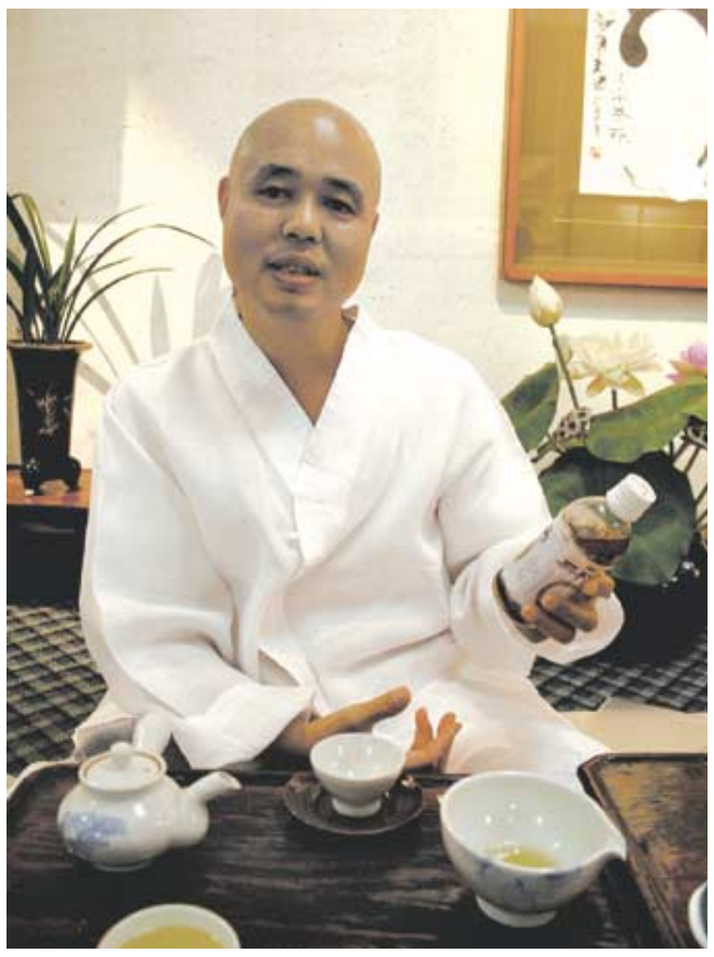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좋은 제품은 포교에도 큰 힘”

구선 스님, 茶 전문회사 ‘청심연’ 설립



“불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차를 공급하는 일,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5월, 차 전문회사 ‘청심연’을 설립한 구선 스님(연화사 주지 · 사진).

9월 5일 조계사에서 만난 스님은 차 제품 개발과 유통을 통해 불자의 건강 길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수행에 매진해야 할 스님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은 바로 생업을 제쳐두고 절에 머물며 수행하는 젊은이들 때문이다. 경북 영양 연화사에서 ‘관(觀) 수련회’를 이끌던 스님은 한두 명씩 찾아오던 수련생이 40~50명을 넘어서자 이들과 같이 일할 터전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수행 · 생활공동체’를 일구자는 것이다.



다양한 유통회사를 구상하던 스님은 우연한 기회에 베트남산 보이차 10톤을 수입하게 됐고, 이를 이용한 차 음료 개발에 나섰다. 3년에 걸쳐 공장을 설립하고 보이차 엑기스 ‘제국의 아침’, 보이차 PT음료 ‘무소유’ 등을 개발한 후 지난 5월 ‘청심연’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보이차의 진위 여부와 제품의 청결도 등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시점에 관련 제품을 내놓는 일이 쉽지 않았다.

식약청 검사 마쳐 위생 문제없어
대형 할인매장 통한 유통망 확보
보이차 ‘무소유’ 대학가 시음회 인기

“일반인들에게는 보이차가 아직 낯선 존재고 불자와 차인들 사이에선 ‘알아도 속는 것이 보이차’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지요. 무엇보다 청결한 위생 상태를 확보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품질보증을 위해 베트남 국영기업에서 ‘야생차 증명서’를 발급받고 국내에 수입한 후 식약청에서 불순물과 잔류농약 검출 검사도 마쳤다.

제품이 출시되자 젊은 세대를 위해 대학가에서 시음회를 열고 등산객들에게 차를 나눠주며 보이차 알리기에 나섰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의 대형할인매장을 통한 유통망 확보에도 나섰다.

하지만 정작 걸림돌이 된 것은 ‘종교색’이었다. 시음회에서 “무소유라는 제품명과 경전 문구가 너무 불교적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 한 매장에선 기독교인이 “왜 이런 종교 상품을 판매하느냐”며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삼육두유의 경우 성경 문구가 적혀 있어도 소비자들은 거부감 없이 구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심연에서 만드는 제품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제품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자연스레 전하는 포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사업 초창기라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스님은 “앞으로 좋은 차를 공급하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고집스럽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ww.chungsy.com (02)964-8151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제다인 양성은 차 문화 초석 다지는 일”

목포과학대, 제다학과 신설

국내 최초로 전문 제다인을 양성하는 학과가 신설된다. 목포과학대학(학장 이호균 · 사진)은 2007학년도부터 2년 과정의 ‘제다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김억섭 겸임교수는 “21세기 웰빙 문화 사회에서 차는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다 기술과 마케팅 방법을 보다 체계적인 학문으로 수립하고,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전문 제다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학과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제대로 된 차를 만드는 제다인을 양성하는 것은 바로 차 문화의 초석을 튼튼히 쌓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학과 커리큘럼 또한 차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차 산업 창업 지원 및 경영 능력 지도 마케팅 전략 연구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과 과정을 통해 재학 중 제다기능사 자격증 · 제품관리사 · 품종개량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졸업 후 제다업체를 창업하거나 차 제품 관리사 · 차 품종 개량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타 지역 학생에게는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되며 성인반은 매 학기 100여만원 가량의 장학금도 지원된다. (061)270-2541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인류 문화속의 茶

8. 신비의 음료

⑦ 커피의 상품화

각성과 지적음료로 인식되었던 커피에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세기 즈음이다. 커피 플랜테이션에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커피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 자유로운 음료가 됐다. 커피가 지식인이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마시던 사치품을 넘어 대중성을 갖추면서 노역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활력을 주는 음료가 된 것이다. 또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부상하면서 밀수꾼과 수입업자, 투기꾼에게 커피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매력적인 곳으로 변하게 된다. 수입업자들은 커피가 배고픔을 없애 주는 영양식품이라고 선전하면서 정부에게 관세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했다.

가격 높이기 위해 펄 · 모카커피 등 상표 붙이기도
혼합커피는 산업 촉진 · 이윤 추구에 효자 품목



19세기에 유행하던 다양한 종류의 드립 포트.

초기의 커피 가격은 주로 런던의 커피하우스에서 경매를 통해 결정됐다. 경매소에서 거래된 커피는 그 해의 작황이나 공급량과는 상관없이 풍문이나 투기꾼의 입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됐다. 그것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또한 커피 상인들은 높은 가격을 받기위해 ‘펄(pearl) 커피’ ‘모카커피’ 등 커피에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상표를 붙이기도 했다.

소매업자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커피에 다른 것을 혼합하여 판매했는데, 그 결과 혼합된 형태의 커피가 생겨났다. 이를 계기로 커피 블렌딩이 그 당시 유행을 이끌었다. 그것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커피 생산을 가능케 했으며 커피 산업이 촉진되는 바탕이 되었다.

한편 룽게는 연구 끝에 1820년경 최초로 커피에서 각성성분을 추출하고 그것을 카페인(Caffeine)이라 명명했다. 몇 년 후인 1827년 영국인 오드리(Oudry)는 차(茶)에서 같은 물질을 추출하고 이를 테인(Theine)이라고 명했으나 이것은 커피의 카페인과 동일한 성분으로 판명됐다. 커피와 차에 동일하게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은 인간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인류의 삶에 활력소가 되었다.

그러나 카페인이 불면증과 신경쇠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지면서 커피는 부정적인 음료로 인식되었고 마시는 것을 삼가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다. 괴테는 커피를 즐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불면증을 카페인 탓으로 지적하고 아내에게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때문에 맛과 향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을 위해 아버지가 커피 감별사였던 브레멘의 커피상인 로젤리우스는 오랜 연구 끝에 커피의 풍미를 해치지 않고 커피콩에서 카페인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다. 1906년 부레멘의 한 공장에서 디 카페인 커피가 만들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길 수 있었다.

반면에 19세기의 커피가 단순히 양적증가나 상품화 같이 이윤추구 모습만을 보인 것은 아니었으며 커피하우스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비엔나식 커피문화는 초승달 모양의 크로아상과 웨이터가 따라준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커피하우스 안에서 그들의 호칭은 부유한 손님에게는 귀족적인 호칭인 폰(von)으로, 지식인은 교수님이나 박사로 호칭하는 등 신분이 격상되었다. 단골들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명예훈장을 받는 커피하우스 주인들도 있었다. 커피하우스는 주택에 딸린 부속 건물처럼 블록 마다 있었고, 관청 옆에는 어김없이 있었다. 공적인 업무는 관청에서 이루어졌지만 일반적인 사교나 교류는 커피하우스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커피 문화는 수년을 걸쳐 이어져 오늘날까지 그들의 삶속에 남아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www.webtbm.com
www.금강.net
할인에 서비스까지!! 지금이 기회
[TBM 병술년 추석맞이 할인행사]
051)505-2434
사찰신도관리 이제 손으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2000여 사찰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금강장사를 사용해 보십시요.
가족중 한분의 이름만 알아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며 연말기부금증명서 출력은 물론 위패, 봉투, 등표, 인등표등 각종 양식이 인쇄가 되며 사찰에서 사용하는 각종회계장부를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기능은 축원관리, 인등관리, 불사관리, 행사관리, 재무관리, 생일관리, 49제기타 설법자료보관, 일정관리, 명함관리, 신수보기(토정비결), 우편물관리, 자체신도증발급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종무행정의 최고봉 금강장사 할인 최고 30% !!
◆ 행사기간 : 2006. 8. 15 ~ 2006. 9. 30
※ 이번 행사는 TBM 3주년 행사입니다.
행사기획처인 TBM에서만 적용되는 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강장사 사용자에 한해 행사 기간중 사주대전 풀버전을 10% 할인 합니다.
◆ 행사내용 (서비스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 30% 할인 (서비스없음)
※ 우편 판매 가능함 : 요청에 의해 1회 방문 가능
2. 10% 할인시 제공서비스
① 축원자료입력
②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③ 용지 3종세트
◆ 정상 구입시 제공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1. KM1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주역 등) ② 축원자료입력
③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④ 용지 3종세트
2. KM9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명리 등) ② 축원자료입력
③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④ 용지 3종세트
금강장사 대한민국 최고봉 TBM
TBM 금강장사 051)505-243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효승 오피스텔 303호



좋은 책, 향기로운 삶
茶道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문의전화 | 02)722-7777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세제없이 싹싹~ 친환경 수세미 만들어 쓰세요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릴사 수세미'랍니다. 흔히 '환경수세미'라고도 불려요. 저만 있으면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릇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들 사이에서 제 인기가 최고랍니다.

저는 100% 아크릴사를 코바늘로 떠서 만든 것입니다. '아크릴사'란 용어가 생소하시다구요? 아크릴사는 일본 모토히로사가 개발한 화학섬유랍니다. '화학섬유'라고 해서 환경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세균도 거의 번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름을 흡수 · 분해하는 성질 때문에 세제 없이도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줘 '친환경 재료'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접시나 그릇 등을 닦는 설거지에는 물론 물때가 낀 주방 싱크대나 타일, 욕실 세면대나 욕조의 찌든 때를 닦는 데도 쓰인답니다.

경단체에서도 제 친구들을 만들어 팔고 있답니다. 1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 너무 경제적이에요. 불교환경연대(02-720-1654)나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02-741-4696)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답니다. 코바늘 뜨는 법은 동네 수예점이나 십자수전문점에서 10분 정도면 배울 수 있으니 직접 도전해 봐도 좋겠죠?

자, 이제 제가 본격적인 활동을 할 차례네요.

우선 저를 미지근한 물에 담가 주세요. 그리곤 그릇을 닦아보세요. 세제를 쓰지 않아도 잘 닦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제를 쓰지 않으면 오물이 잘 닦이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써 보시면 알거에요. 제가 얼마나 세척력이 뛰어난지. 단 동물성 기름이 묻은 그릇일 경우에는 휴지로 기름을 한 번 닦고 세제를 아주 조금만 써서 닦으면 된답니다.

저렴한 100% 아크릴사 사용
세균 번식 거의 없고 기름 분해
찌든 때도 쉽게…반영구적

코바늘 뜨기 10분이면 배워
꽃잎 · 동물 모양 등 도안 다양
고리 만들어 사용후 잘 말려야

어떠세요? 만능 살림꾼인 저를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살짝 노하우를 알려 드릴게요.

우선, 색색의 아크릴사와 코바늘을 준비하세요. 아크릴사는 50g 한 뭉치에 1000~1500원, 코바늘은 크기에 따라 500~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50g 실 한 뭉치면 수세미 3~4개는 너끈히 만들 수 있답니다.

요즘은 다양한 도안이 나와서 꽃잎 모양이나 동물, 과일 모양 수세미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너무 예뻐서 부엌이나 욕실에 걸어놓으면 장식도 된답니다.

코바늘뜨기가 서툴다면 그냥 동그라미나 네모 모양으로 떠도 좋아요. 수세미는 조금 성글게 짜야 손에 쏙 쥐어지고 음식물 찌꺼기도 끼지 않아요. 참! 고리 만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용 후 물기가 잘 빠지도록 걸어서 말려야 하거든요.

코바늘뜨기를 못 하신다고요? 요즘은 동네 수예품점이나 환

그릇을 닦을 땐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로 그릇을 헹궈내면 효과는 두 배죠. 컵이나 유리잔을 닦는 용, 밥그릇 · 국그릇 닦는 용, 냄비나 프라이팬 등을 닦는 용으로 따로 마련해두고 써도 좋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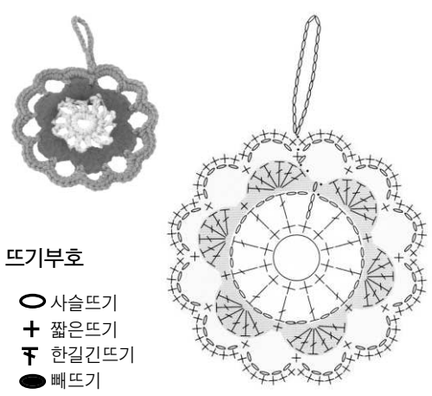
다 쓰고 나서는 물기를 꼭 짜서 싱크대 수도꼭지나 고리에 걸어서 잘 말려주세요. 제가 많이 더러워졌다면 소량의 주방세제나 비누로 빨아서 햇빛에 말려주세요. 표백제에 담그시면 제가 탈색돼서 보기 싫답니다.

아주 오래 아껴주신 덕분에 제가 많이 낡거나 헤졌다면 현관 신발장 옆에 걸어두었다가 구두를 닦는 용도로 쓰세요. 거실 유리창이나 현관 바닥의 더러움도 깨끗이 제거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전 불자 가정 곳곳으로 찾아가렵니다.

주방에서 곧 만나요~!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원형 꽃수세미 뜨기 도안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33〉

우엉 표고버섯밥과 우엉 영양죽





'사찰음식'하면 먼저 생각나는 재료가 두부와 콩, 나물 등일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연근과 우엉을 보태고 싶습니다. 보통 연근과 우엉은 조림이나 우엉이 들어간 김밥 정도로 밖에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우엉과 연근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세요?

전 요즘 이 '우엉'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엉은 손질하기도 힘들고 모양이 예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은 우엉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저 역시 어릴 적엔 우엉을 먹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가리는 음식이 많았던 제가 어떻게 요리연구가가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를 아는 한 보살님은 저에게 "그 조그만 체격으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그런 음식 맛을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 요리를 하기엔 체격도 작고 건강한 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사찰음식을 공부하며 온 정열을 쏟아 부은 후부턴 예전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제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사찰음식을 만드느라 각양각색의 재료를 먹고 본연의 맛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우엉의 깊은 맛에 빠지게 된 것이죠.

흙이 잔뜩 묻고 생긴 것도 예쁘진 않지만 얼마나 맛있는 음식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우엉입니다. 사물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음식 속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흙 묻은 재료를 손질해 맛있는 한 그릇의 음식으로 만들어 식탁에 올리는 뿌듯함과 그것을 먹는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부처님이 제게 주신 가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만드는 법



〈우엉 표고버섯밥〉 재료: 우엉 1줄기(15cm), 표고버섯 2장, 쌀 1/2컵, 참기름 약간, 식초 약간, 양념장(국간장 3큰술, 다진 청고추 1큰술, 다진 홍고추 1큰술, 다진 양파 1큰술, 통깨 약간, 참기름)

① 쌀은 미리 세척해 불려놓는다. ② 우엉은 곱게 채 썬 후 식초 물에 살짝 담가 놓는다. 표고버섯은 채 썬다. ③ 우엉과 표고버섯은 참기름에 볶아준 후 불려놓은 쌀과 섞어 밥을 짓는다. ④ 완성되면 양념장과 함께 낸다.



〈우엉 영양죽〉 재료: 우엉 1/4뿌리, 두유 1컵, 양송이버섯 2개, 채수 1컵, 참기름, 식초, 검정깨 약간

① 우엉은 깨끗이 문질러 씻은 뒤 껍질을 벗겨 어슷하게 썰고, 찬물에 식초를 약간 넣어 담가두었다 물기를 뺀다. ② 냄비에 참기름을 약간 두르고 우엉과 납작하게 썬 양송이버섯을 볶는다. ③ ②에 물을 붓고 끓인다. 우엉이 무르도록 끓인 후 한 김 식혀 믹서에 곱게 간다. ④ 마지막에 두유를 넣어주고 그릇에 담은 후 검정깨를 고명으로 올려 완성한다.

▶다음 주에는 도토리묵과 도토리오가리 무침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교육과정

1. 49재 및 천도재 의식 (6개월 과정)
- 천수바라 • 사다라니바라
- 도량게 • 다게작법

2. 예수재 의식 (1년과정)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송강 범음·범패 전문강원
• 원장 : 오송강(중요무형문화재 준 보유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
011-258-0314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 · 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요사채 신축
석가래 교체
기 와 교체
전 지붕 공사 일체
기와공장 천안
011-9820-0112
041-554-0112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잔뿔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 (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숲길이 아름다운 사찰

길은 만남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만남,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길. 사찰로 가는 숲길은 사람과 사찰을 연결해주는 무량한 교감의 다리가 되기도 한다. 일주문 앞길은 속세의 걱정 근심에 찌든 사람들로 하여금 피안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시킨다. 그 길을 여유있게 걸노라면 '내가 바로 부처'라는 일깨움도 얻을 것 같다. 초가을 산사를 찾아가는 숲길을 걸으며 어지러운 마음을 가다듬어보면 어떨까? 가을을 밟고 가는 길 끝에 산사가 있으니….


선운사 도솔천길.


내소사 전나무 숲길.

아, 가을~ 길 끝에 절 있으니…

변산 내소사 전나무 숲길
500 그루 전나무 오백나한 연상


내소사 대웅보전.

부안 내소사 일주문 앞에는 수령 500년이 넘은 느티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있다. 시골 마을 어귀에 서있는 장승처럼 여기부터 피안의 세계임을 알려주는 것 같다. 일주문을 지나면 곧바로 아름다운 전나무 숲이 펼쳐진다. 80~200년생의 아름드리 전나무 500여 그루가 침엽수 특유의 향을 뿜으며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았다.

선선한 날씨에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은 단풍나무, 산딸나무, 벚나무가 잘 자라 전나무와 터널을 이뤄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중생을 안내한다.

천왕문까지 600미터 남짓 펼쳐진 평탄한 길, 녹음이 우거진 이 길을 걸으면 웬지 마음이 차분해지며 엄숙한 기운이 내소사에 이르는 동안 세속의 번잡함을 씻어준다.

전나무 숲길 중간 중간에는 잠시 앉아 쉬어갈 만한 벤치들이 있어 산새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변산반도의 야생화인 참나리, 산자고, 복수초, 구슬봉이 등도 간간히 볼 수 있어 가을 숲길의 맛을 더한다.

전나무 숲길이 끝날 즈음 좌측의 조그만한 연못과 부도밭이 발걸음을 잡는다. 연못앞의 안내판은 이곳이 MBC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였음을 알리고 있다. 그 앞으로 단풍나무와 황벚나무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길을 지나면 천왕문이 나온다. 사천왕의 부릅뜬 눈과 내리칠 듯한 주먹이 아직까지 마음을 바로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책이 되고 있다.

사천왕문을 지나면 내소사 경내가 한눈에 펼쳐진다. 대웅보전(보물 제291호)과 3층 석탑(전북 유형문화재 제124호), 설선당과 요사(전북 유형문화재 제125호)가 단아한 모습으로 천년의 숨결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내소사 경내에 있는 천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찾아가는 길 : 서해안 고속도로 → 부안 나들목 → 고창 방면 23번 국도 → 영전삼거리(우회전) → 30번 국도 → 내소사

고창 선운사 도솔천 길
붉은 낙엽, 냇물마저 붉게 흐르고


선운사 동백나무숲.

고창 선운사는 동백이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봄 벚꽃과 가을 꽃무릇(상사화)도 볼만한 구경꺼리다. 선운사 입구 진입로에 일렬로 줄을 선 벚꽃나무와 단풍나무. 아직은 빨갛게 물들지 않았지만 초가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옷을 바꿔 입고 있는 단풍이 산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다. 그 옆으로는 선운사 계곡이 졸졸졸 노래를 한다.

선운사 일주문에서부터 계곡과 함께 펼쳐지는 선운사, 자연의 집, 참당 앞 사거리를 지나 도솔암에 이르는 길을 사하촌 주민들은 도솔천 길이라고 부른다.

일주문을 지나면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단풍나무, 화백나무들이 좌우로 늘어선 숲길이 나온다. 그 초입에 우측으로 부도밭이 있는데 추사 김정희가 쓴 벽파 스님의 비석이 볼만하다. 숲길 옆으로 흐르는 계곡은 도솔천이다. 도솔천은 계곡이지만 주변으로 꽃이 좋고 낙엽이 떨어지는 풍광이 기가 막힌 곳이다. 물고기들이 한가히 노니는 모습도 정겹다.

숲길을 조금 걷다보면 선운사 담벼락이 숲길과 나란히 한다. 잠시 길에서 나와 선운사에 들러 대웅전, 만세루, 범종 등을 참배하면 경내의 백일홍이 붉은 웃음을 짓는다. 대웅전 뒷편 5000여평의 동백은 평균 수령이 500년으로 매년 4월말이면 절집을 온통 태울 듯 붉은 색으로 장관을 이룬다.

선운사를 지나면 좌우로 차밭이 나타난다. 크지는 않지만 제법 규모가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진흥굴 앞의 장사송을 지나면 저 멀리 새로 지은 전통찻집이 돌산봉우리와 겹쳐져 멋진 장면을 연출한다. 어느새 도솔암이 눈앞에 나타난다. 도솔암은 그저 평범한 암자에 불과하다. 풍광도 뛰어나지 않고 유명한 성보문화재도 없다. 그러나 도솔암 뒤편의 커다란 석불과 봉우리 위에 있는 내원궁을 보면 바로 여기가 극락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찾아가는 길 :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사 IC → 22번 국도 → 선운사

아산 봉곡사 소나무길
천년고찰 소나무 온갖 자태 뽐내


봉곡사 소나무길.

만공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오도송을 읊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봉곡사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사찰이다. 산이 봉의 머리 같다고 해서 봉수산 봉곡사라고도 불린다. 송림으로 울창한 봉곡사 진입로는 구불구불한 산길과 온갖 자태를 뽐내고 있는 소나무가 일품이다.

찾아가는 길 : 경부고속국도 천안 IC → 국도 21호 → 온양온천 → 국도 39호 → 송남휴게소 → 봉곡사

글=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 지금 주문하시면 5일후에 도착합니다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正宇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595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9월 13일(음력 윤 7월 21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나도 공했는데 더 뭐가 있으랴!

물질을 축적하는 마음 자세

문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겹게 벌더라도 아름답게 쓰라고 옛 조상님들께서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내 멋대로 편하게 쓰자는 뜻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물질을 축적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옛날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지방의 원님으로 갔는데 원이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아 가지고선 그저 돈을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들이 모으고, 또 지금으로 치면 취직을 시켜 주고 돈을 받고 장리를 줘 가지고 이익금 남는 걸 또 받고 넣어서는, 하여튼 큰 항아리에다가 잔뜩 넣어 놓고선 고만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 줄도 모르게 그만 그냥 객사를 했지요.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그 마을이 도대체 밤이면 집집마다 그냥 셋이 되기도 하고 아홉이 되기도 하고 열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소복 입은 하얀 여자도 됐다가 신장도 됐다가 또 꺼멓게 옷을 입었다가, 이러면서 집집마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살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더 많았고, 또 그 동네 일판이 다 이사를 가게 됐죠. 그래 그 흉가 때문에 그렇게 나라의 원이 살던 그 고을이 그만 쑥대밭이 돼 버리고 말았죠. 그랬는데 그 나라의 고을에 자꾸 원님을 내려 보내려 해도 그런 일이 있어서 자꾸 죽어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부임을 시키질 못하고 있는 처지였죠.

그래서 풀이 산더미처럼 나고 그랬는데, 어느 때에 어느 도승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을에 부임하는 팔대조 할아버지가 원님으로 부임을 해서 참 아주 정직하고 그랬으나 두 나전들이, 얼른 쉽게 말해서 나전들은 심부름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먹고 자꾸 일을 거슬려 놨으니깐 그 할아버지도 모함을 받아서 고만 귀향을 가서 죽었거든요. 그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인연으로 자기가 거기에 당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치로 그 마을을 다스리지 못해서, 안팎을 다 다스리지 못한 죄상으로 자기가 팔대조의 할아버지 인연으로 여기를 왔다는 생각이 무뜩 들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서 거기를 왔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해결을 해 줘야겠구나.' 하고 그 중 옷을 다시 잠깐이라도 벗고선 부임을 하게끔 했습니다. 거기는 누가 간다고 하기만 하면 부임을 시키니까요, 나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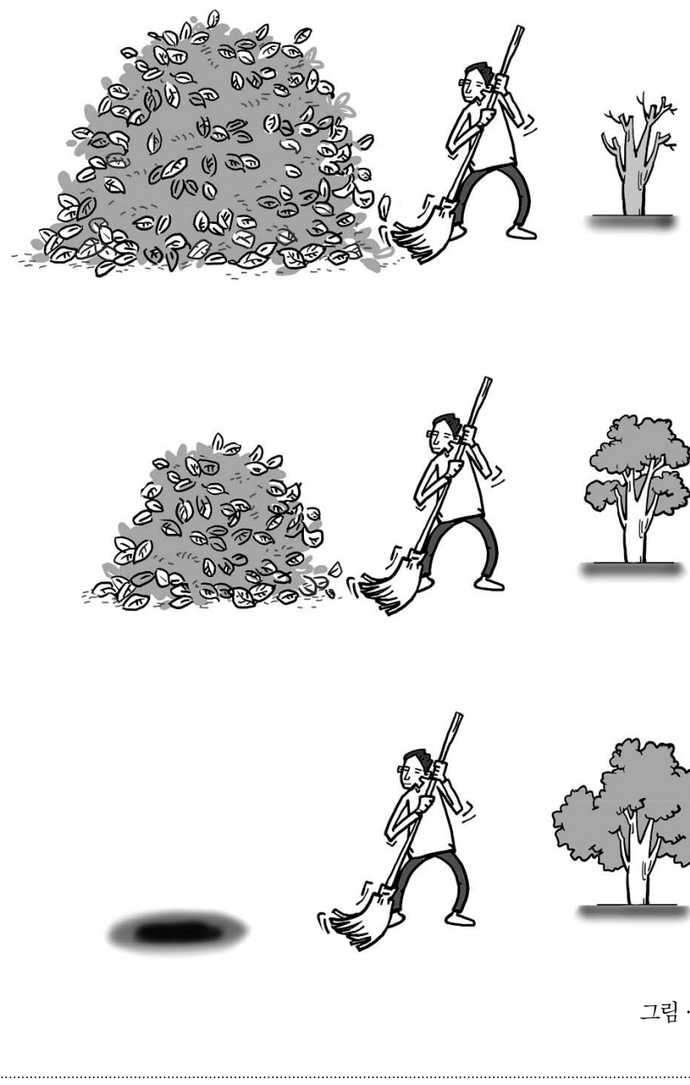
그래서 간다고 해서 그 고을의 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밤이면 온통 그냥 천장에서 내려오고 또 문도 열리면서 그냥 들어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분은 벌써 아시고선 큰 화로에다가 불을 한 화로를 해 놨답니다. 그런데 옛날 집은 벽장이 큰 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벽장문이 스르륵 열리더니만 거기에서 큰 누런 손이 나오고 검은 손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올 적마다 거기에다가 인두를 꽂아 놓고서는 한바탕씩 이렇게 질렀답니다. 그렇게 해리만 하면 될 걸,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내 주인 거지 나는 관리인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다면, 이리 찢고 저리 찢고…, 그게 사(邪)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여러분이 땅을 사고 집이 있고 돈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사가 돼서, 그 돈이 '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사가 돼서 모든 게, 내가 행하는 게 모두 사로 돌아가요. 그러니 되는 노릇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으로 지어서 마음으로 해결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끄달리고 또는 사무치고 아프고 그렇게 만드니까 여간 사람 살기가 고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복을 떠나서 우리 자성을 깨치면서 '나도 공했는데 뭐가 있으랴. 나는 관리인일 뿐이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종합해서 '아! 주인공이시여!' 하면 그건 전체에 들리는 건데, 따로 나를 이렇게 찾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나를 찾을 때는 꼭 '내 주인공!'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일체 신이 거기 주인공에 다 들어 있다는 걸 그대로 믿고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찾고, 관하고, 감사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자기 은혜를 모르고 자기는 그렇게 산발하게 다니니까 모든 게 사(邪)죠. 사가 돼서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돈이 사가 되는 것도 그런 마음의 까닭이요, 돈이 쓸모 있게 쓰여지는 것도 마음 탓이요, 내 몸이 근중하게 되는 것도 마음 탓이요, 내 몸이 걸레가 되는 것도 마음 탓이란 얘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러니 모든 일체 만법의 만물이 다 마음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그러는 거지, 악도 그 한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한마음에서 나오는 걸로 말미암아 세세생생을 끄달릴 테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한마음도 '자신(自神)'이 돼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나와서 행을 할 수 있죠. 그 '자신(自神)'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졌답니다. 또 그 반면에 '자악신'은 무궁무진하게 악을 범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냐 저거냐 그럴 때, 이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 저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두 개를 다 놔야 되죠. 그래서 그 한 구멍으로, 한 구멍에서 두 개가 나왔던 것을, 두 개를 한 구멍에 다 다 집어넣으면 바로 올바른 이치가 되죠. 그래서 신수는 '색즉색'이 됐고, 또 육조는 '공즉공'이 됐거든요. 그러니 어떤 것이 맞느냐는 얘깁니다. '공즉공' 이렇게 한 사람이 옳으냐, '색즉색' 이렇게 한 것이 옳으냐 할 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림 · 최주현

윤회하는 인연에서 벗어나려면

문 할아버지가 죽어서 그 집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되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한번 가족으로 엮어진 인연의 고리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요?

답 이런 얘기 해 드리기도 하지만 전설의 고향에서도 가끔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금방 부모가 됐다가 금방 그 부모가 죽어서 그 대에 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손자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남의 집의 아들도 될 수 있고 남의 집 손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억겁을 거쳐서 미생물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인간이 되기까지도 이렇게 쫓기고 쫓으면서 어렵게 왔는데, 피땀을 흘리면서 이날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렵니까?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 몸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도리를 알고 자유롭게 몸을 벗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위로 부모 조상들이나 아래로 내 자녀들을 다 이끌어 줄 수 있는 바탕이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손자가 태어나도 그렇고 손녀가 태어나도 그렇고 다, 그 대에 사람 노릇을 못하고 기둥을 붙잡고 모로 서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식도 손자도 윗조상도 전부 남입니다. 그 남을 위해서, 아니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지만요.

항상 하는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예전에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산에다가 그냥 내다 놨기 때문에 뼈다귀 무더기가 많았답니다. 석존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모퉁이를 도시다가 그 뼈 무더기에 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어찌 그런 하찮은 뼈다귀에다가 절을 하십니까?"라고 했겠죠. "이 뼈다귀가 전자의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제자들이 "미처 이런 뜻을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고개를 땅에다 대고 흐느껴 가면서 울었답니다. 전자에 있었던 옛날 얘기로 듣지 마세요. 지금 현재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그 한 찰나 한 찰나를 모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꺼비가 뱀이 되고 뱀이 두꺼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치도 있습니다. 뱀이 두꺼비가 됐을 때는 자기가 전자에 뱀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또 뱀이 자기가 앞으로 두꺼비가 될 줄 모르거든요. 자기가 하는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두꺼비는 욕심이 많아서 때에 따라서는 구렁이한테 가서 일부러 먹히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요. 그러한 그 욕심 탐착! 많이 낳으면 뭘 합니까, 글쎄. 하나가 인연이 돼서 붙들리면 그렇게 고가 많아요. 고가 더 많죠. 그렇듯이 굼벵이가 매미가 되고 매미가 굼벵이가 되고 이랬을 때도 그렇고 모두가…, 소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소가 되고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없죠? 그런데도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 이겁니다. 그런 윤회에 항상 끄달리고 얽매이느냐, 귀신으로 사느냐, 저런 짐승으로, 개로 사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사느냐, 아니면 참 멋진 사람이 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죠.

악으로써 모은 돈은 악의 장난을 하게 되고

선으로써 모은 돈은 선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병원이 더 무서워요!

문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병원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는 MRSA라는 세균이 약물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한 항균제를 써야만 겨우 사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은 병원에서 쓰는 물건이나 의사의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잘못되면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스님 법문에도 의사나 병원에 의지하지 말고 내 안의 힘을 길러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병원이 더 무서운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이 마음의 도리를 알고 내 마음의 힘을 길러서 어떠한 세균이 침범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야만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다시 한 번 세균성의 문제에 대해서 일러 주시면 내 몸을 내가 지키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한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세상이라면 좀 더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원 불생불멸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불심을 좀 더 돈독하게 가지시고 진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부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써 삼 배를 올릴 때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몸이 내 몸이요 바로 부처님의 그 무한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도 할 터인즉, 내가 아프다면 바로 내 지극한 마음속에서 바로 의사가 나올 것이고, 바로 지극한 마음에서 가난을 물리칠 것이고, 지극한 마음속에서 유생 무생(有生無生)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의 그 능력의 빛이 바로 세균의, 보이지 않는 세균의 모든 것을 뿌리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빛에 의해서 녹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녹아 버리는가 하면 피해서 그것이 다시 몸이 화(化)해서 다른 걸로 창조가 되기도 하니 죽이는 게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게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미물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억겁 전년서부터 우리는 이 몸뚱이를 사람의 몸뚱이로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뱀의 몸뚱이나 거북의 몸뚱이나 소의 몸뚱이, 어떤 벌레의 몸뚱이, 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 몸뚱이 저 몸뚱이로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또 인간으로서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데 합쳐서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거쳐 온 거를 생각할 때에 나 아님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모두가 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이렇게 큰 덩어리의 사람이 저까짓 것 미생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미생물로 인해서, 그 세균으로 인해서 우글우글하는 거를 마음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지금 탈을 쓰고 갑니다. 인간 탈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건 탈바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조그만 탈바가지고 큰 탈바가지죠.

그래서 옛날부터 난 이런 말도 잘했습니다. "자신을 아십시오. 자신을 아신다면 전체의 근원이 그 자신의 근원이 될 겁니다. 천지의 근원도 바로 마음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 우주의 근원도 바로 마음의 근원이 될 것이니 그 어찌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요. 그럼으로써 내 몸을 내가 끌고 다니는데도 유유히 끌고 다닐 거라고요.

물론 죽을 것도 영 죽지 않게 살릴 수 있겠느냐 한다면 그건 아니 됩니다. 탈을 썼다가 버릴 때가 오면 버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아 가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못하고, 그냥 애를 쓰면서 고통을 받는 거는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세상에 한생각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이 벌집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세균이 벌집처럼 일어나는 걸 내 한마음에 집어넣어서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음에서 벌집처럼 일어나게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다섯 가지의 오신통이라고 할까요? 그걸 수레바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본을 아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거기에서 그 수레바퀴는 어디에든 쓸모가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말입니다, 병균을 집어내기는 했는데 이 병균이 어디서 온 걸 모릅니다. 그러면 요거 한 가질 연구해 냈다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만든다 하면 다른 생명이 죽습니다. 그런다면 이 연구는 하나마나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하나 하는데 인체의 다른 생명들에게, 세포에나 모든 것에 지장이 없이 하나만 죽이는 연구에 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더하고 덜함이 없으면서도 내 주인공의 한마음의 베어링은 스스로 굴러가면서 그냥 여지없이, 무슨 부작용이 없이 말입니다. 파워를 일으키려 해도 일으킬 수 있고, 일으켜서 그쪽 부분을 좋게 하려면 좋게 하고 이쪽 부분을 좋게 하려면 좋게 하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원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부처님 법이라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이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비유해서 보겠어요. 왜 세균이 나쁜 역할도 하고 좋은 역할도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 우리 인체 안에서도, 내 몸 안에서도 생명체들이, 지금 세균들이 있다고 봅시다. 이름을 세균이라 하지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의 분신인 생명이 여기에 있는

☞30면으로 계속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하나 맡겨 놓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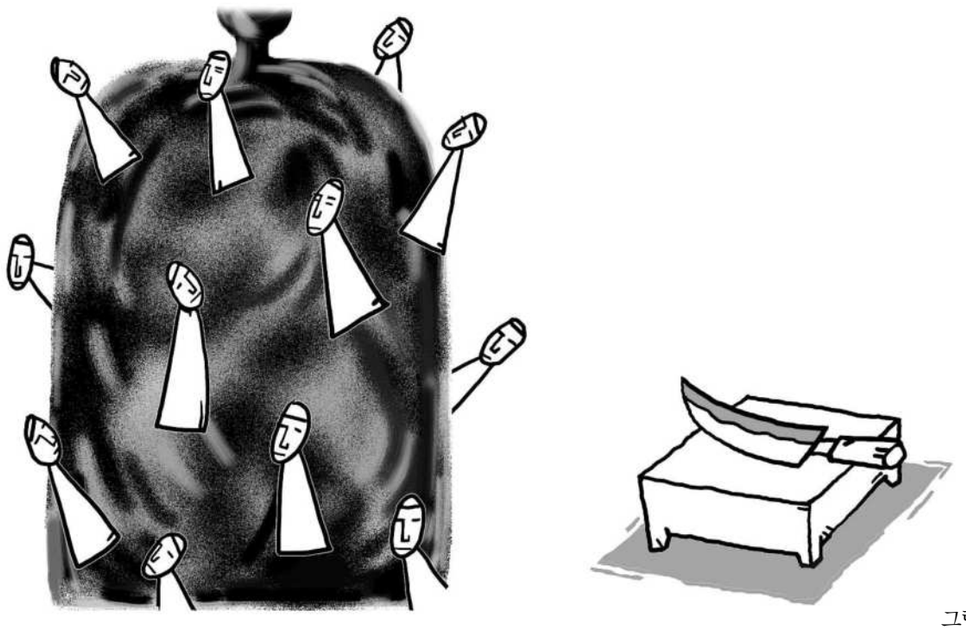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데 만약에 타의에서 유전자가 들어왔다면 세균입니다. 자의에 있는 생명은 세균이 아닙니다. 나를 나쁘게, 인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 세균이지 인체를 이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잘못 돌아가면, 이 혹성의 사장이, 여러분이 다 혹성의 사장입니다. 사장이 잘못 생각을 한다면 이 인체의 유전자, 즉 말하자면 인체에 있는 생명들의 유전자들이 다 겉으로 노는 거예요. 그 사장이 잘못 생각하는 대로 파워를 일으키고 분단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타의에서 세균이 침입을 해서 들어올 때 막아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몸뚱이는 여기저기 병이 들고, 파워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해서 집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이 없다면 빈집이니깐 들어와서 모든 세포의 눈을 통하고 귀를 통하고 몸을 통해서 갖은 병, 갖은 악취스런 냄새가, 거미줄도 치고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몸뚱이가 한 몸뚱이가 아닙니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했듯이, 하화중생 하면 상구보리, 상구보리 하면 하화중생이듯이 내 몸속에 지금 수십억 마리의 중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화중생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몸뚱이 하나로 비유해서 세상에 탁 나왔을 때는 그 많은 중생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라도 선장님들은 배를 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모든 배 밑에는 수레바퀴가 달려서 지금 팔방으로 고정됨이 없이 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뚱이가 배고, 발은 배 밑의 바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 평발이죠.

여러분은 '나 아닌 나'가 그렇게 많은 숫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습 없는 나'가 그렇게 많아서 나고 든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모습 없는, 바로 타인의 모습 없는 세균이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들어오면 그냥 하나가 돼 버려야 탄로가 나지 않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둘이 돼 버린다 말입니다.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이 몸뚱이를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 타인이 하나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 뱃속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꼭 주인공에서 나오는 건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주인공에서 어떤 세균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다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보이지 않게 해결을 하고, 보이는 데선 보이는 대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역력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합니까?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가지고 있고 또 광대무변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에 탈이 생겨서 말이 잘 안 나온다면 목을 자기가 스스로 수술을 하고 또 간이나 심장도 그렇고,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체는 타인도, 그 타인도 주인공은 둘이 아니라서 내 전화통과 그 전화통과 벨이 같이 울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꼭 안다. 저 사람은 참 안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건져야지.' 하는 생각만 하면은 언젠가는 건져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떡하면 이 도리를 알아서 유체나 유령이나 악령이나 유전이나 또는 생사열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옷을 벗을 때에도 벗고 싶을 때에 벗고, 입고 싶을 때에 입고 그렇게 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심과 공에 빠진 상태의 차이

문 스님의 말씀 중에 공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무심의 상태하고 공에 빠진 상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무기공에 빠지지 않고 멈춤이 없이 바르게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이끌어 주세요.

답 무심은 그냥 일을 하면서도 무심이지마는 공에 빠진 상태는 바로 이 내면세계의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목석이죠. 그러니 그런 공에 빠지면 그게 사람입니까, 어디? 이것이 그래서 길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도 속지 말고 바깥에도 속지 마라 하는 것은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를 발견했다 하면 둘이 아닌 도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타의에서도 나를 괜히 으르릉거리고 못 먹겠다고 그냥 그냥 그렇게 되고요, 또 자의에서 괜히 화가 나고요, 괜히 하나를 보기만 해도 신경질이 나고 그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하, 거기서 이것이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거기다 다시 뭉쳐 놔야 될 텐데, 바깥으로 '에그, 저것이 그냥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떠니 저떠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길길이 뛰게 되죠, 아주. 분하게 되고 이거는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으로는 그렇고, 바깥으로 또 끄달려서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만 그냥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무기공에 빠진다 이 소리죠. 그 사람들은 움죽거리고 살면서 생활에서 그냥 그게 참선인 줄 모르고 아주 생활까지도 버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건 바로 무기공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생활 하나하나 하는 게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게 그대로 좌선이며, 좌선은 모든 걸 말기고 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을 좌선이라 하고, 바로 뛰고 앉고 서고 자고 하는 게 전부 참선이라 합니다. 그러니 둘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 말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재주가 훌륭해서 여러분의 그 재료를 내가 가지고선 다 이걸 해결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애고(哀苦), 그 괴로움 이런 거를 가지고 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하시면서 지극한 정성과, 즉 말하자면 보이는 데서도 정성, 안 보이는 데서도 내 마음으로 정성, 항상 거기 놓고 그렇게 가고 그러면은 훌륭한 자기 자력이 되고 또 식구들의 제삼자 하나하나가 바로 같이 들어갑니다. 모든 업과 모든 병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 어떤 때는 그럽니다. 함께 공부해 나가는 도반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다 함께 나누는 그런 분들을 보거나 이끌어 주는 스님들을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채소라도 깨끗이 해서 올리고 그럴 때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정성입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런 정성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하나가 남 주는 게 아니고 꽃 한 송이 갖다 꽂아 놓는 것도 남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해 놓는 데에 자기가 그 백분지일이 없어지고, 또 하나 하는 데 또 없어지고, 하나 하는 데 또 떨어지고, 이렇게 왜 봄이 되면 고드름 쪼끔쪼끔 떨어지는 것 있죠? 그렇듯이 아주 얼어붙은 게 쪼끔쪼끔 떨어져서 녹아요. 그렇게 봄이 올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거는 장담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점이요.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경계를

공부하는 재료로 알고 뭉쳐놓으세요!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화상(火傷)에서 얻은 지혜 (하)

조대근 (부산 수영구 광안4동)



그림 · 문병성

상처 낫는 과정 디카로 찍으며 '생로병사' 관찰
치료 잘됐다는 의사 말에 붕대 감고 출근
화상 경험후 더 하심하고 타인 배려하게 돼

모든 모습 있는 것들은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있겠지만, 화상 입었던 내 피부들도 생로병사를 빠르게 겪고 있었다. 덕분에 나는 생로병사를 깊이있고 생동감 넘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매일 시간이 나면 디지털 카메라를 들이대고 상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찍었다. 그러다보니 피부의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피부를 보면서 '혹시나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들었다. 공부하는데 병마구니가 가장 큰 마구니라고 배웠지만 나에게 이번 화상은 병마구니라기보다는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지혜의 실험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2년 전, 부산에서 처음으로 새말귀선원장 춘당 이황우 선생님의 법문을 듣고 금요법회와 토요정진에 이따금씩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때 참선요지라는 테이프와 다른 테이프를 구입했다.

1년 정도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 생활할 즈음 무척 괴로운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춘당 선생님의 참선요지 설법 테이프를 길을 걸을 때나,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나 가리지 않고 들었다.

좋은 내용은 따로 메모를 해서 그 글귀를 가슴 앞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괴로운 생각이 들 때마다 읽었다. 그리고 백봉 선생님이 지으신 회심곡과 성도가를 프린트하여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꺼내 읽어보곤 하였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무렵, 피부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는지 문드러져서 조금만 닿아도 찢어지고 그 밑으로 뻘건 피부가 드러났다. 혹 염증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도 되고 불안하였던 순간이었다.

화상을 침으로 치료하겠다고 했을 때 양방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감염이 무섭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침을 놓으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을 때 담당의사는 "침을 놓으려면 퇴원하세요!" 라며 불쾌한 표정을 보였다.

피부를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침 치료를 해왔는데, 찢어질까봐 섬세하게 다루어왔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허물어지듯이 벗겨지는 피부를 보니 겁이 나기도 했다.

그래도 침을 맞은 상태에서 핀셋으로 상한 피부를 하나하나 걷어내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 아는 의사선생님 소개로 외과에 들렀다. 제대로 치료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외과의사는 상처를 보더니 아주 잘 치료되었다면서 소독을 해주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고 붕대로 감아주었다. 그렇게 며칠간 하였다. 붕대로 감으니까 좋은 점이 있었다. 그냥 붕대 없이 지낼 때는 화상상태가 그대로 보여서 조심스러운데 붕대를 감으니까 활동하기가 편해 조금 더 활동성이 보장되었다.

7월 21일 오전. 한의원 개원한지 꼭 10주년이 되는 날. 용맹정진 10여일 전인 그날부터 나는 보름간 그렇게 꼬박 누워서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계속 누워있는 경험도 한 다음 다른 곳에 집중하다보면 어느새 좋아져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일 년이 지난 지금, 그 화상부위는 전혀 표시가 없지는 않지만 정상피부와 다름없이 털도 나고 땀도 난다. 종종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가 붉어지지만 그것도 점점 없어질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 피부는 거의 원상태를 회복할 것이다.

화상, 예기치 못한 사고였지만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첫째,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나에게도 생기는구나!'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길 가다가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안전사고도 당할 수 있고 등등. 어떤 일이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실감하니 자연히 나를 낮추게 된다.

둘째는 화급한 일이 닥쳤을 때 이리할까 저리할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지혜를 길러 놓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환자를 내 몸같이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화상을 입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화상을 입고 나서야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넷째는 "의사는 모름지기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다. 참으로 아픈 사람은 치맛바람 한 자락도 몸에 닿으면 소름이 끼친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

화상을 경험한 이후에는 환자의 발을 수건으로 덮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다. 환자가 추워하는지 더워하는 지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쓴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은 내가 느낀 만큼 유지될 것이다.

내가 입은 화상은 고통과 불행보다는 오히려 편안함과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아마도 화상을 입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너그럽고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보왕삼매경론(寶王三昧經論)>의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교만해 지나니, 병으로써 양약을 삼으라"는 부처님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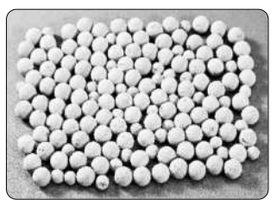
화상이란 병고(病苦)를 이겨내면서 많은 배움을 얻게 된 데에는 춘당 선생님과 도반들, 가족의 도움이 컸다. 찜통더위 속에서 고생을 함께 했던 아내 원경과 아들 하연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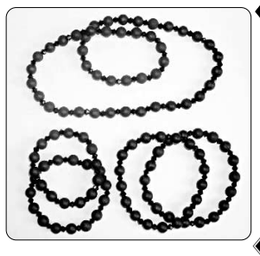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청룡사
- 주 지 : 혜성(장수한)
- 주 소 : 경북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33번지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2006년 9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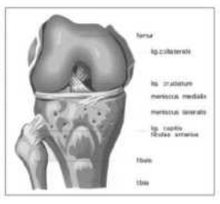
대한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부처님 정통 수행법 Sati 수행 Workshop

올바른 부처님 수행법의 정립이
요청되는 이즈음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과 전문가
(교수 · 대학원생 · 불교단체임원 등)를 위한
수행 workshop을 갖습니다.

- 장 소 : 다보산 반냐라마(부산)
- 대 상 : 스님 및 전문가
- 참가비 : 10만원, 학생4만원
- 준비물 : 가사, 일반인 수행복 지급
- 지도법사 : 붇ㄷ하빠-라(本願)스님
- 시작과 마침 : 17시 시작 ~ 15시 마침
- 내용 및 일정

일시 및 회차	내 용
9회 9월 22일 ~ 24일	· 마음구조와 마음작용 · Sati수행의 이론과 실기 · 간화선 · 묵조선의 이론과 실기 · 의학, 상담학, 심리학, 뇌과학, Sati수행 비교 · 요가와 불교수행 차이점 비교 · 부처님과 프로이드 마음이해비교 · 수행 프로그램 개발 (수련회, 템플스테이, 법회등)

문의 및 접수 www.satischool.net 011-1700-2841, 055)331-2841 Sati School

참다운 진리의 기쁨 마음껏 맛보게 하리라

불화 속의 명장면 (15)

파주 보광사 '감로탱' (상)



그림3 : 보광사 감로탱의 부분, 칠여래와 차려지는 시식단

감로는 '신의 음료'로 불교에서는 열반 자체를 의미
성반이 등장하며 의례 시작하려는 설레임 광경 표현
생중계 보는듯한 활력감…19세기 경기지역서 유행

"먹어야겠다."

싯타르타가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은 것은, 다름 아닌 '먹어야겠다'였습니다.

도무지 깨달음(열반)과는 점점 멀어지는 듯해서 조바심이 난 싯타르타는, 최후의 수행 방법으로 극단적 고행을 택했습니다. 장기간의 단식을 하고, 일부러 험한 바위에 앉아 참선을 하며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는 무거운 판석을 올려놓기까지 했답니다. 온갖 육체적 욕구에 반하는 금욕적 또는 자기 학대적 수행으로, 그는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내 손과 발은 풀과 같이 가늘어져 힘이 없고, 척추뼈의 울퉁불퉁한 굴곡이 다 드러났으며, 황폐한 집의 서까래가 썩어 내려앉듯 내 갈비뼈는 부수어져버렸다. 눈은 움푹 꺼져버려 마치 어두운 우물 속의 바닥과 같다. 몸을 스치기라도 하면 체모가 썩은 뿌리와 함께 산산이 흩어 떨어진다."

득도의 빛이 보이기는커녕,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극심한 암흑 속 절망입니다.

이 고행의 숲을 나온 싯타르타는 내란쟈라강에서 몸을 씻고, 강을 건너 저편을 가려 했습니다. 허약해진 그는 온 힘을 다했으나, 몇 번이고 미끄러 넘어져 강물에 휩쓸리면서 생명의 위협마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석가의 무릎에도 못미치는 물이었다지요. 스스로를 참으로 한심하게 느낀 그는 "이 얕은 개울을 건널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쪽 언덕(피안)으로 건네 줄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구할 힘도 없으면서 그 누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제 먹기로 합니다. 당시 인도 수행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단식수행을 버리기로 합니다. 바로 그때 싯타르타 앞에 나타나 따뜻한 우유죽을 보시한 사람이, 가장 처음 석가에게 귀의한 여성으로 일컬어지는 수쟈타입니다. 우유죽을 받아먹은 싯타르타의 몸엔 다시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하고, 메마른 육체에 불이 지펴지면서 그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겠지요. 이를 먹고 체력을 회복한 석가는 보리수 아래에서 정진, 그가 그렇게 열망하던 생로병사를 초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허기졌던 그는 이 우유죽에서 다름 아닌 바로 '감로(甘露)'의 맛을 보았겠지요. 이렇게 내 속의 영혼을 일깨우는, 자성(自性)을 일깨우는, 또는 죽은 영혼까지 다시 살려낸다는 이 최고최상의 맛은 불교에서 감로(甘露, 감미로운 맛의 이슬)에 비유됩니다. 감로는 고대 인도 베다시대부터 '신(神)의 음료'로 알려져있던 것으로, 이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않는 불사(不死)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술(天酒)'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불로장생의 음료는 후에 불사열반(不死涅槃)에 비유되어, 불교에서는 열반(니르바나, 궁극의 깨달음 또는 해탈)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감로의 법문(法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법문의 자비로움을 '감로의 법우(法雨)'라고도 하지요. 석가모니가 득도 후, 고심 끝에 깨달은 바를 설법하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한 말은 "내 이제 감로(甘露)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들으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였습니다.



그림2 : 입장하는 성반(盛飯)



그림1 : 운반되는 법(法)의 식사, 감로

이 당당한 말씀. 그는 자신의 설법으로 '감로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 중생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다는 지극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가는 여름이 아쉬워 서울 근교로 나가 파주 보광사(寶光寺)에 들렀습니다. 대웅보전 안의 좌측 영단(靈壇)에는 밝고 원색적인 색감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 감로탱(甘露幀, 광무2(1898)년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감로탱의 주인공은 바로 '감로'. 보통 감로탱 그림 중심부의 제단에는, 이 감로에 해당하는 온갖 음식과 진귀한 과일의 성찬(盛饌)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꽃과 위패와 번(幡)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감로단(甘露壇)을 중심으로, 위로는 여래 및 보살의 무리, 그리고 아래로는 아귀를 비롯한 고통 속 중생의 무리가 포진됩니다. 즉, ①제단 위에 늘어선 막강한 일곱 여래의 가피력으로→②가운데의 공양 음식은 '법(法)의 감로'로 변하여→③그 은혜가 중생에게 두루 미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감로탱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성찬이 이미 완벽하게 다 차려진 여타 감로탱과는 달리, 이 성대한 감로의식(우란분재)의 주인공인 '감로'가 이제 막 입장을 하는 장면입니다(그림1). 학수고대하던 성반(盛飯)이 영치기 영차 운반되어 옵니다(그림2). 일련의 스님들이 거대한 금빛 발우(어시발우)에 탐스럽게 담긴 성반을 조심스레 머리위로 받쳐들고 진입하자 제사장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제단 바로 밑에는 이를 전달받아 올리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스님들이 릴레이 전달식으로 대기중입니다(그림3).

감로의 성반이 바야흐로 등장하여 이제 막 의례가 시작하려는 설레임의 광경을 그린 이러한 형식의 감로탱은, 이 작품 이외에도 특히 서울 및 경기지역 일대의 19세기말 작품(봉은사감로탱, 삼각산 청룡사감로탱, 백련사감로탱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하나의 초본(불화의 밑그림)이 당시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차려진 제단이 있는 감로탱보다 이러한 형식의 감로탱은, 작품에 묘한 다이나믹함을 더하고 마치 현장 생중계를 보는듯한 생생한 활력감을 부여합니다. 이 새로운 형식의 감로탱을 창안해낸 화사(畵師)의 창의력이 돋보입니다.

운반되어오는 이 법(法)의 식사(즉 감로)는, 물론 우선적으로 우리의 육체적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신적 허기를 채우기 위한 방편(方便)입니다. "먼저 맛있는 음식으로 굶주림을 달래게 하고, 그 다음엔 참다운 진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리라"라는 약사여래의 12대원 중 한 서원과도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는군요. 즉 '참다운 진리의 기쁨의 맛'이란, 법희식(法喜食) 선열식(禪悅食)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끊임없는 욕망으로 항상 굶주려있는 우리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궁극의 만찬'은 바로 이 '감로'일까요. (계속)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仁谷堂 法長 大宗師 涅槃 1週期 追慕茶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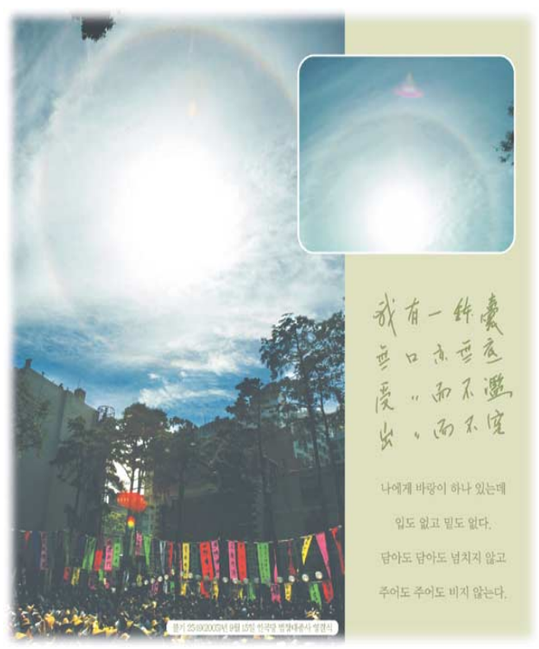
고통을 모으러 다니던 나그네

인곡당 법장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다례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교계 원로대덕큰스님과 사부대중의 무루 동참을 앙망하옵니다.

- 일 시 : 불기 2550(2006)년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덕숭총림 수덕사
- 문 의 : 수덕사 종무소 ☎041)337-6565

서울지역 차량 운행안내

당일 조계사와 화계사에서 06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용 하실 분은 해당사찰에 미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조계사 ☎ 02)732-2183 화계사 ☎ 02)902-2663



대한불교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법정 · 인곡문도회 일동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www.sudeoksa.com 전화 041)337-6565 팩스 337-0072